

www.keis.or.kr

50
60



한눈에 보는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목차



발간사

일러두기

I	신중년 한눈에 살펴보기	08
01	데이터로 보는 신중년(5060)	10
02	신중년 진로설정	22
03	똑똑! 활기찬 신중년을 위한 5가지 준비	38
04	새로운 일과 직장생활의 변화에 대한 대처	43
II	신중년, 출사표를 던져라	49
05	소중한 일 경험, 당신의 꿈을 수 놓기	50
06	배우고 익히니 즐겁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64
07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신중년의 도전	78
III	신중년, 인생 중반부에 꿈을 펼쳐라	82
08	창업 문 두드리기	84
09	기술창업(스타트업) 알아보기	109
10	창직, 내 일 만들기	123
11	사회적기업 살펴보기	150
12	이웃처럼 가까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살펴보기	171
13	사회공헌일자리 살펴보기	194
IV	신중년에게 필요한 정보, 이모저모	210
14	직업경력을 활용한 이·전직 가능 직업 알아보기	212
15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알아보기	220
16	재취업을 위한 채용지원서 작성 꿀팁	229
17	신중년 재취업 지원 정책	242



발간사

최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60세대인 신중년 중 상당수는 본인의 일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많고, 또 수십 년간의 경험을 다양한 기회를 통해 다시 발휘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장년에 이르러 완성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중년의 사회 복귀는 비단 재취업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학력이나 일 경험뿐만 아니라 연령, 가족특성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 선호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것 외에도 개인의 건강과 자산에 따라 창업을 하거나 또는 창업의 형태가 기존의 일반적인 자영업을 넘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양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기보다 타인과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싶은 것을 우선시하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년의 사회진출에 대한 꿈과 기대에 비해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 후 재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점차 늘어나게 될 고학력/고숙련의 경험을 가진 신중년들의 상당수는 교육 및 강의, 컨설팅, 기술고문, 관리, 상담, 사무 등 자신의 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 재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에서는 일 경험과 크게 관련 없는 단순 노무직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는 '긴 세대'일 수 있는 신중년들이 행복한 인생 3모작을 열기 위해 더 많이, 더 미리 준비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 정보서는 미래지향적인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을 통해 신중년이 행복하게 인생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우선 자료 분석을 통해 5060세대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재취업을 위한 진로설정 방법, 본인의 일 경험을 다시 성공적으로 꽃피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또한, 창업, 창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공헌 일자리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와 프로젝트성 일거리 정보처, 신중년 일자리 지원 기관 및 정책 등을 꼼꼼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직업경력을 활용하여 직무의 유사성, 신중년의 입직가능성, 노동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전직할 수 있는 주요 직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세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분들이 우리사회 발전의 소중한 동력으로 다시 자리매김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가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년의 고민을 글로 아낌없이 전달해 준 전문가들, 그리고 사례 인터뷰에 응해주신 신중년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홍





일러두기

신중년(5060)의 일자리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중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안내서는 많지 않다. 이번 <한눈에 보는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에서는 신중년이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욕구와 경험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현실과의 거리 차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일단,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접하고 자신의 역량과 하려는 일이 적합한지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 또한, 다양한 길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 신중년들의 후기 등을 수록함으로써 신중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사회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Chapter I. 신중년 한눈에 살펴보기(제1장~제4장)에서는 신중년의 취업실태, 진로 설정 방법, 새 출발을 위한 변화 사항 등을 확인함으로써 신중년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Chapter II. 신중년, 출사표를 던져라(제5장~제7장)에서는 신중년의 재취업 시 일 경험 활용 방법, 훈련 등을 통해 새롭게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과 함께 재취업에 성공한 신중년의 실제 사례를 담아내었다. Chapter III. 신중년, 인생 중반부에 꿈을 펼쳐라(제8장~제13장)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창업, 창직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사업이나 일을 시작하는 방법과 그와 관련된 정보들과 함께 성공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Chapter IV. 신중년에게 필요한 정보, 이모저모(제14장~제17장)에서는 신중년의 새 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과 정부 지원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다.



Chapter I

신중년 한눈에 살펴보기

- 01 데이터로 보는 신중년(5060) 10
- 02 신중년 진로설정 22
- 03 똑똑! 활기찬 신중년을 위한 5가지 준비 38
- 04 새로운 일과 직장생활의 변화에 대한 대처 43

Chapter II

신중년, 출사표를 던져라

- 05 소중한 일 경험, 당신의 꿈을 수 놓기 50
- 06 배우고 익히니 즐겁대! 새로운 길을 찾아서 64
- 07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신중년의 도전 78

Chapter III

신중년, 인생 중반부에 꿈을 펼쳐라

- 08 창업 문 두드리기 84
- 09 기술창업(스타트업) 알아보기 109
- 10 창직, 내 일 만들기 123
- 11 사회적기업 살펴보기 150
- 12 이웃처럼 가까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살펴보기 171
- 13 사회공헌일자리 살펴보기 194

Chapter IV

신중년에게 필요한 정보, 이모저모

- 14 직업경력을 활용한 이·전직 가능 직업 알아보기 212
- 15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알아보기 220
- 16 재취업을 위한 채용지원서 작성 꿀팁 229
- 17 신중년 재취업 지원 정책 242



인생 3막을 위한 신중년의 재도전



Chapter

I



신중년 한눈에 살펴보기

01 데이터로 보는 신중년(5060)

02 신중년 진로설정

03 똑똑! 활기찬 신중년을 위한 5가지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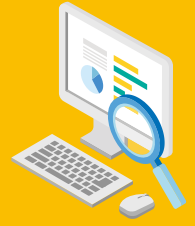
04 새로운 일과 직장생활의 변화에 대한 대처



01

데이터로 보는 신중년(5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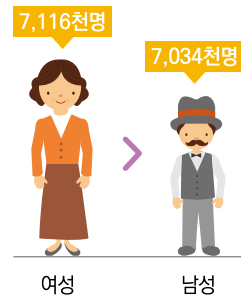
신중년의 경제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1. 신중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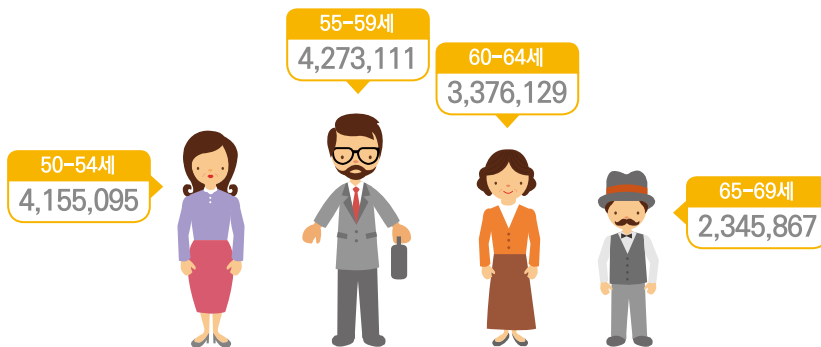
(1) 신중년 인구규모

-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신중년(50~60세)은 14,150천 명이며, 여성이 7,116천 명으로 남성(7,034천 명)보다 8만여 명 많다.
- ❖ 연령대별로는 55~59세가 4,273천 명으로 가장 많고, 65~69세가 2,346천 명으로 가장 적다.



| 그림 1 | 신중년 연령대별 인구 규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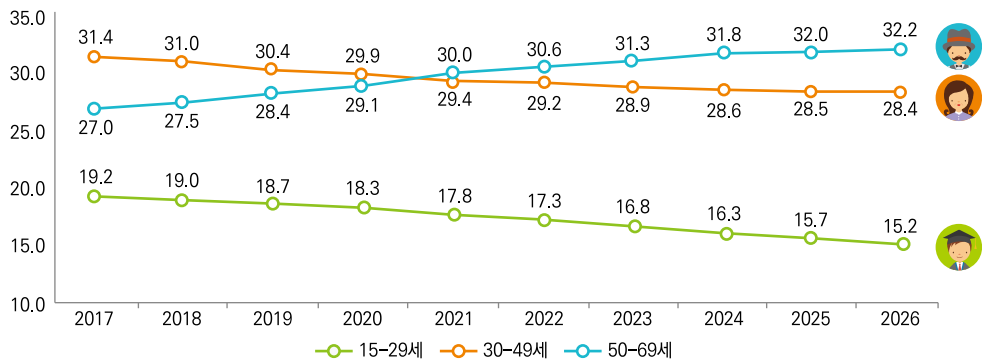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2) 연령대별 인구비중 추이

- ❖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신중년(50~69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7.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 30.0%를 넘어서 2026년에는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2 | 연령대별 인구비중 추이

(단위 :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7~2065년) 중 중위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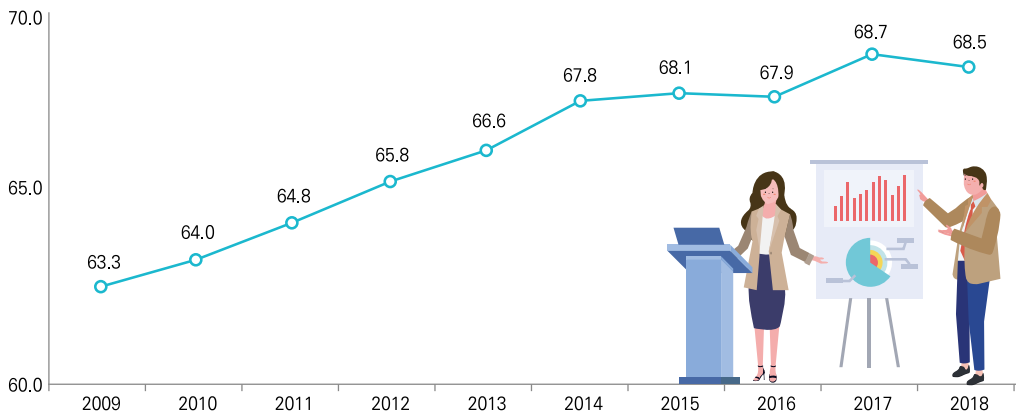
2·신중년 경제활동

(1) 신중년 경제활동참가율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신중년(50~69세)의 100명 중 68.5명은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상태(경제활동참가)이다.
- 신중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63.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68.7%로 가장 높았다가 2018년에는 68.5%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 그림 3 | 신중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 | 신중년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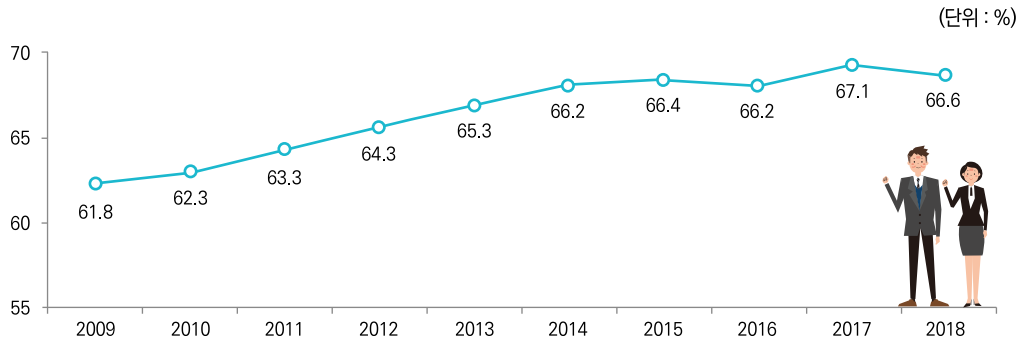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중년 (50~69세)	비율(%)	63.3	64	64.8	65.8	66.6	67.8	68.1	67.9	68.7	68.5
	빈도(천명)	6,531	6,909	7,350	7,726	8,106	8,544	8,881	9,157	9,472	9,716
50대 (50~59세)	비율(%)	72	72.7	73.1	73.8	74.6	75.9	76.2	76.1	77	77.1
	빈도(천명)	4,587	4,908	5,257	5,533	5,812	6,083	6,215	6,295	6,442	6,510
60대 (60~69세)	비율(%)	49.2	49.5	50.4	51.6	52.4	53.5	54.5	54.9	56	55.7
	빈도(천명)	1,944	2,000	2,093	2,193	2,295	2,461	2,666	2,862	3,031	3,206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신중년 고용률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신중년(50~69세)의 100명 중 66.6명이 일하고 있는 상태(고용률)이다.
- 신중년의 고용률은 2009년 61.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67.1%로 가장 높았다가 2018년에는 66.6%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림 4 | 신중년 고용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 신중년 연령대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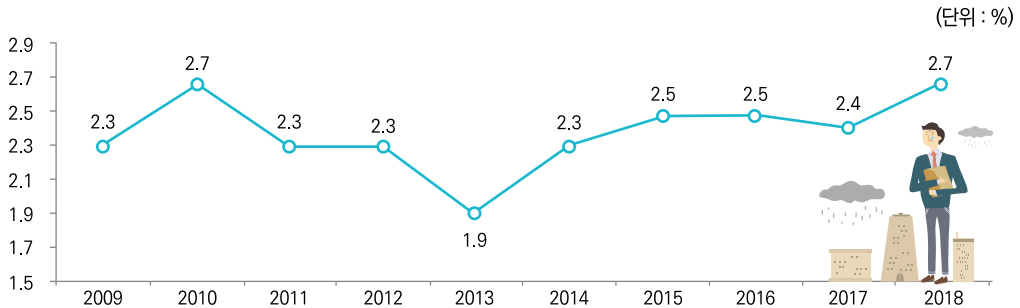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중년 (50~69세)	비율(%)	61.8	62.3	63.3	64.3	65.3	66.2	66.4	66.2	67.1	66.6
	빈도(천명)	6,380	6,725	7,179	7,551	7,952	8,348	8,661	8,929	9,244	9,451
50대 (50~59세)	비율(%)	70.2	70.9	71.6	72.3	73.2	74.2	74.4	74.3	75.3	75.2
	빈도(천명)	4,473	4,788	5,145	5,416	5,704	5,947	6,068	6,150	6,302	6,346
60대 (60~69세)	비율(%)	48.3	48	49	50.2	51.3	52.2	53	53.3	54.4	54.0
	빈도(천명)	1,907	1,937	2,034	2,135	2,249	2,401	2,593	2,779	2,942	3,10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신중년 실업률

- ❖ 2018년 기준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나라 신중년(50~69세) 100명 중 2.7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실업률)이다.
- ❖ 신중년의 실업률은 2009년 2.3%에서 2013년에는 1.9%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8년에는 2.7%이다.

| 그림 5 | 신중년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3 | 신중년 연령대별 실업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중년 (50~69세)	비율(%)	2.3	2.7	2.3	2.3	1.9	2.3	2.5	2.5	2.4	2.7
	빈도(천명)	151	184	171	175	154	196	220	228	228	265
50대 (50~59세)	비율(%)	2.5	2.4	2.1	2.1	1.9	2.2	2.4	2.3	2.2	2.5
	빈도(천명)	114	120	112	117	108	136	147	145	140	163
60대 (60~69세)	비율(%)	1.9	3.2	2.8	2.6	2.0	2.4	2.7	2.9	2.9	3.2
	빈도(천명)	37	63	59	58	46	60	73	83	89	10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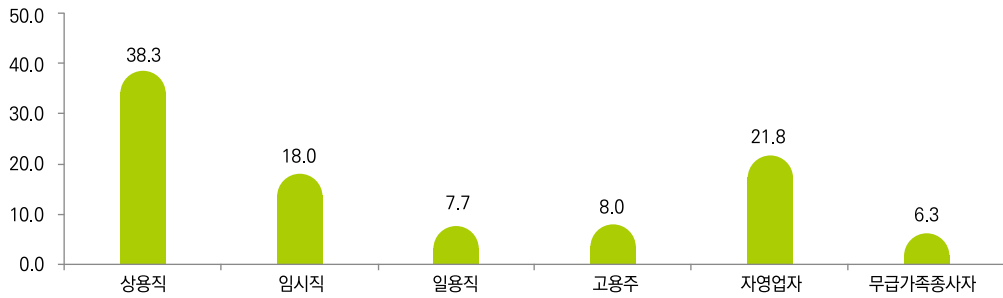
3. 신중년 취업실태

(1) 신중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 2018년 기준 신중년(50~69세) 취업자 100명 중 63.9명(상용직+임시직+일용직)은 회사에 고용된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그 외 고용한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21.8명이다.

| 그림 6 | 신중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 표 4 | 신중년 취업자의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신중년(50~59세)		신중년(50대, 50~59세)		신중년(60대, 60~69세)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임금 근로자	상용직	3,615	38.3	2,804	44.2	811	26.1
	임시직	1,697	18.0	1,023	16.1	674	21.7
	일용직	724	7.7	452	7.1	272	8.7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759	8.0	539	8.5	220	7.1
	자영업자	2,057	21.8	1,178	18.6	879	28.3
	무급가족종사자	598	6.3	349	5.5	248	8.0
전체		9,451	100.0	6,346	100.0	3,1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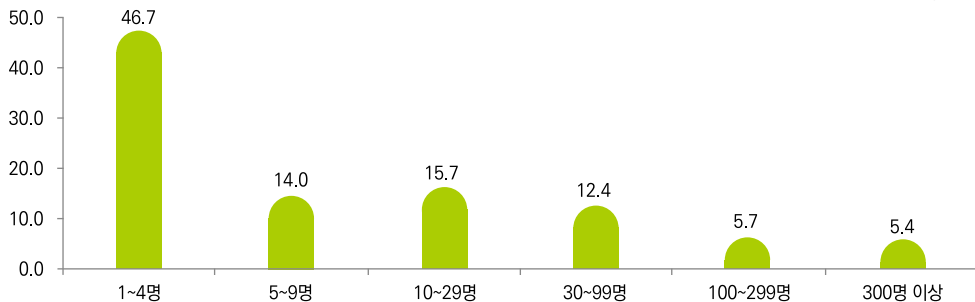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2) 신중년 취업자의 종사 기업 규모

- ❖ 2018년 기준 신중년(50~69세) 취업자 100명 중 46.7명은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기업에서 일하고, 나머지 중 11.1명만이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 그림 7 | 신중년 취업자의 종사 기업 규모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 표 5 | 신중년 취업자의 연령대별 종사 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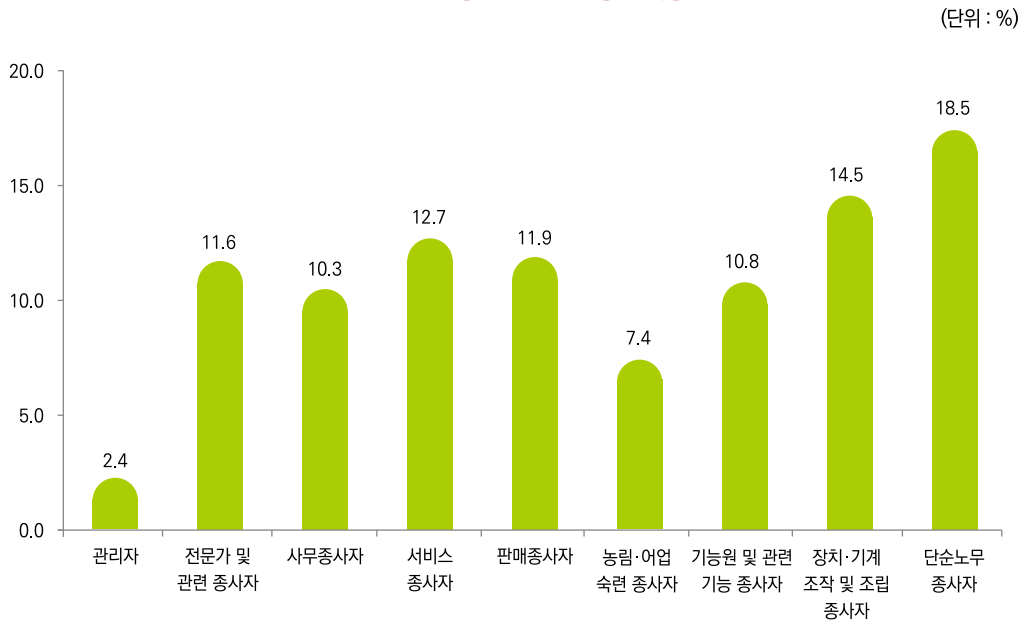
종사 기업 규모	신중년(50~69세)		신중년(50대, 50~59세)		신중년(60대, 60~69세)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1~4명	4,415	46.7	2,681	42.2	1,734	55.9
5~9명	1,325	14.0	885	14.0	440	14.2
10~29명	1,487	15.7	1,015	16.0	472	15.2
30~99명	1,170	12.4	884	13.9	286	9.2
100~299명	542	5.7	437	6.9	106	3.4
300명이상	510	5.4	444	7.0	66	2.1
전체	9,451	100.0	6,346	100.0	3,104	10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3) 신중년 취업자의 종사 직종

- 2018년 기준 신중년(50~69세) 취업자 100명 중 18.5명은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4.5명), 서비스 종사자(12.7명) 순으로 많다.

| 그림 8 | 신중년 취업자의 종사 직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 표 6 | 신중년 취업자의 연령대별 종사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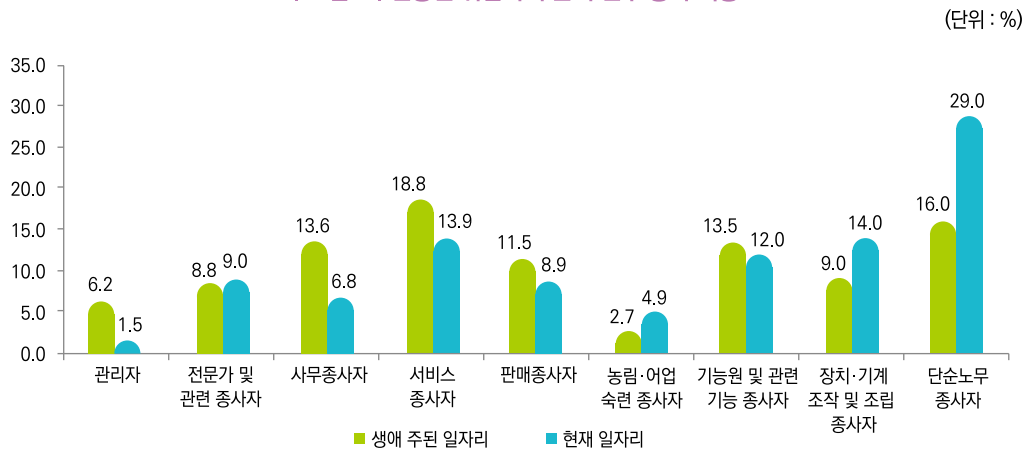
종사 직종	신중년(50~69세)		신중년(50대, 50~59세)		신중년(60대, 60~69세)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관리자	225	2.4	173	2.7	51	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92	11.6	864	13.6	228	7.3
사무 종사자	971	10.3	797	12.6	174	5.6
서비스 종사자	1,203	12.7	825	13.0	378	12.2
판매 종사자	1,124	11.9	808	12.7	316	10.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97	7.4	272	4.3	424	13.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24	10.8	726	11.4	298	9.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68	14.5	944	14.9	424	13.7
단순노무 종사자	1,749	18.5	937	14.8	812	26.2
전체	9,451	100.0	6,346	100.0	3,104	10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4) 신중년 취업자의 은퇴 전후 종사 직종

- ❖ 은퇴(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55~64세)의 은퇴 전 직종을 살펴보면 서비스종사자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은퇴 후 재취업한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라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 그림 9 | 신중년 취업자의 은퇴 전후 종사 직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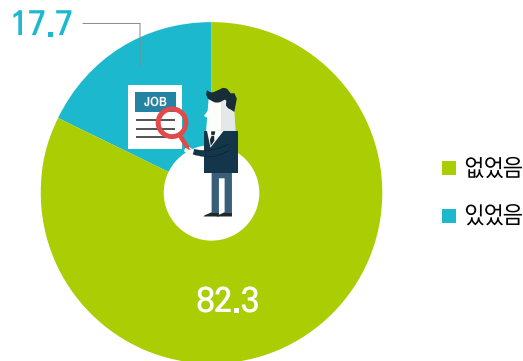
4·신중년 최근 1년간 활동과 향후 계획

(1) 최근 1년간 구직활동

- ❖ 2018년 기준 신중년(55~69세) 100명 중 17.7명이 구직활동을 한번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0 | 최근 1년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 표 7 | 신중년(55~69세) 성별 최근 1년간 구직활동 여부

구직 활동	전체		남성		여성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없었음	8,255,241	82.3	3,973,688	80.6	4,281,553	84.0
있었음	1,770,095	17.7	954,742	19.4	815,353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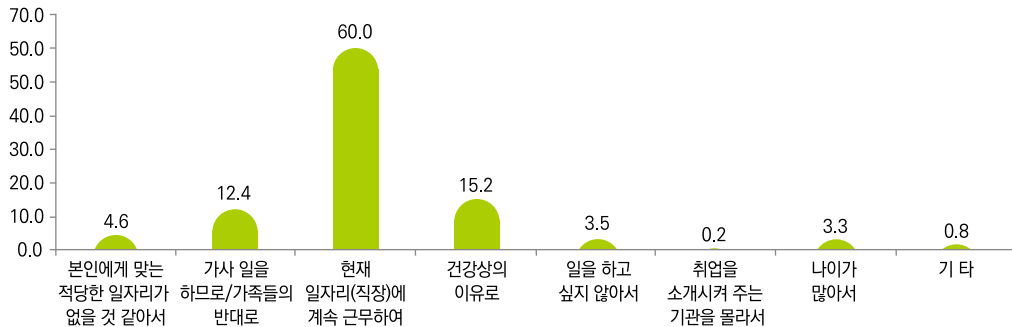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2) 최근 1년간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 ❖ 최근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신중년(55~69세) 100명 중 60.0명은 현 직장에서의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3.5명)와 나이가 많아서(3.3명)라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 그림 11 | 신중년(55~69세) 최근 1년간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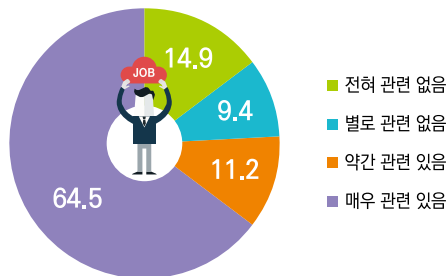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3) 은퇴 전 직종과 현재 직종 관련성

- 신중년(55~69세) 100명 중 24.3명은 은퇴 전 직종과 관련 없는(별로+전혀 관련 없음) 직종에 현재 종사하고 있다.

| 그림 12 | 신중년(55~69세) 은퇴 전 직종과 현재 직종 관련성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 표 8 | 신중년(55~69세) 성별 은퇴 전 직종과 현재 직종 관련성

	전체		남성		여성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전혀 관련 없음	1,075,523	14.9	610,137	14.7	465,386	15.2
별로 관련 없음	682,357	9.4	352,808	8.5	329,549	10.7
약간 관련 있음	806,067	11.2	460,086	11.1	345,981	11.3
매우 관련 있음	4,664,724	64.5	2,734,534	65.8	1,930,189	62.8
합계	7,228,671	100.0	4,157,565	100.0	3,071,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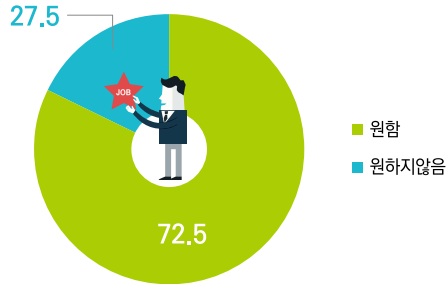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4) 향후 계속근로 희망여부

- 신중년(55~69세) 100명 중 72.5명은 향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3 | 신중년(55~69세) 향후 계속근로 희망여부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 표 9 | 신중년(55~69세) 성별 향후 계속근로 희망여부

	전체		남성		여성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원함	7,267,324	72.5	4,142,426	84.1	3,124,898	61.3
원하지않음	2,758,013	27.5	786,005	15.9	1,972,008	38.7
합계	10,025,336	100.0	4,928,430	100.0	5,096,9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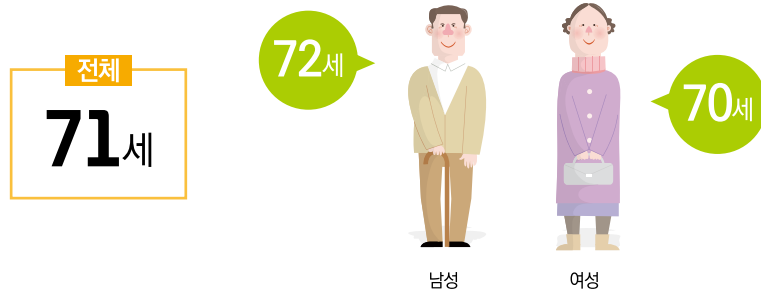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5) 일을 그만두고 싶은 평균 나이

- 신중년(55~69세)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평균 나이는 71세이며, 남성(72세)이 여성(70세)보다 2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4 | 신중년(55~69세) 일을 그만두고 싶은 평균 나이

(단위 : 세)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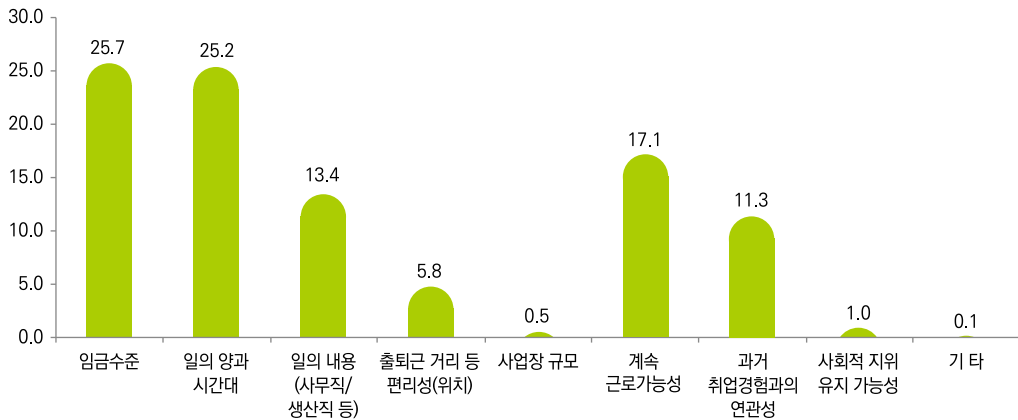
5. 취업 시 고려사항

(1) 취업 시 고려사항

- ❖ 신중년(55~69세) 취업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100명 중 25.7명이 임금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일의 양과 시간대라는 응답자도 25.2명이다.

| 그림 15 | 신중년(55~69세) 취업 시 고려사항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 표 10 | 신중년(55~69세) 취업 시 성별 고려사항

취업시 고려사항	전체		남성		여성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임금수준	1,870,817	25.7	1,142,078	27.6	728,739	23.3
일의 양과 시간대	1,833,174	25.2	809,660	19.5	1,023,514	32.8
일의내용(사무직/생산직 등)	971,713	13.4	598,810	14.5	372,903	11.9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위치)	419,086	5.8	136,454	3.3	282,632	9.0
사업장 규모	34,839	0.5	24,197	0.6	10,642	0.3
계속 근로가능성	1,240,418	17.1	812,088	19.6	428,329	13.7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	819,114	11.3	552,371	13.3	266,743	8.5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	72,270	1.0	63,447	1.5	8,824	0.3
기 타	5,892	0.1	3,320	0.1	2,571	0.1
전체	7,267,324	100.0	4,142,426	100.0	3,124,8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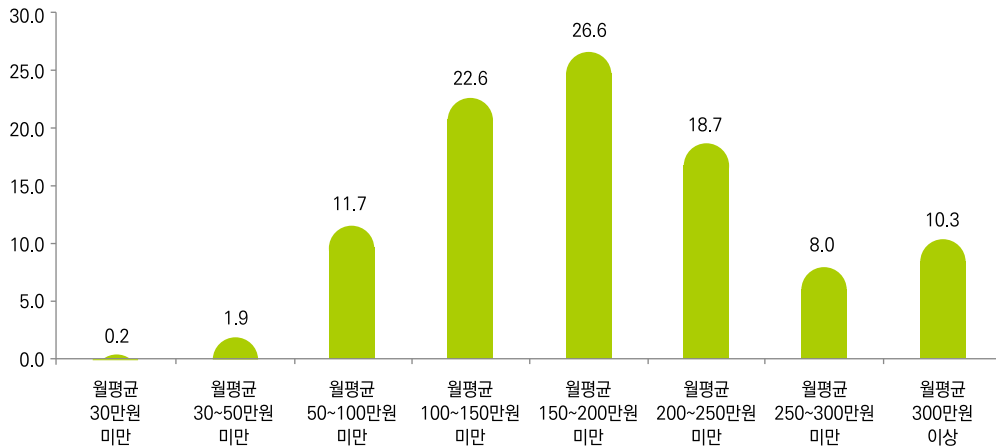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2) 취업 시 희망임금

- 신중년(55~69세) 취업 시 희망하는 임금이 월평균 150~200만 원이라는 응답이 26.6%로 가장 많았고, 100~150만 원이라는 응답도 22.6%이다.

| 그림 16 | 신중년(55~69세) 취업 시 희망임금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 표 11 | 신중년(55~69세) 취업 시 월평균 희망 임금

취업 시 희망임금	전체		남성		여성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월평균 30만 원 미만	16,507	0.2	3,471	0.1	13,036	0.4
월평균 30~50만 원 미만	140,704	1.9	32,694	0.8	108,010	3.5
월평균 50~100만 원 미만	852,424	11.7	195,086	4.7	657,338	21.0
월평균 100~150만 원 미만	1,640,948	22.6	627,108	15.1	1,013,840	32.4
월평균 150~200만 원 미만	1,934,114	26.6	1,135,254	27.4	798,860	25.6
월평균 200~250만 원 미만	1,356,505	18.7	1,040,934	25.1	315,571	10.1
월평균 250~300만 원 미만	579,549	8.0	478,259	11.5	101,290	3.2
월평균 300만 원 이상	746,573	10.3	629,620	15.2	116,953	3.7
합계	7,267,324	100.0	4,142,426	100.0	3,124,898	10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신중년 진로설정

100세 시대를 위한 새로운 진로설정!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노후생활이 아닌 인생의 2막을 준비해야 하는 신중년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본인의 업무에만 전념하느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신중년은 빠르게 변화한 사회 환경에 재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에서 접해야 하는지, 새로운 직무에 자신의 역량이 얼마나 적합한지 등 여러 고민을 겪고 있는 신중년을 위해 본 장에서는 진로결정 시 마주하게 되는 절차, 진로 미결정의 요인 그리고 진로컨설팅 지원기관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1 · 진로결정 절차 알아보기

일반적인 진로결정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자기이해 단계 : 자신이 무엇에 흥미가 있으며, 직업을 통해 어떤 가치를 충족 받기를 원하고, 어떤 적성과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탐색
- ② 직업정보 이해 단계 : 어떤 취업처가 있으며 해당 취업처의 수행 직무, 업무 조건, 복리후생 등에 해당
- ③ 대안설정 단계 : 자기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직업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취업처들의 대안을 마련
- ④ 의사결정 단계 : 확보한 대안들 중, 자신의 가치와 가장 부합되는 1개의 취업처를 설정
- ⑤ 계획 단계 : 해당 취업처에 취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시작

| 그림 17 | 진로결정 절차



신중년의 경우, 무엇보다도 자신이 일했던 산업이나 직업과 동일한 계열로 취업을 원하든지, 다른 계열로 취업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특히, 동종 계열의 직무를 원할 경우, 중장년 연령층의 인력을 해당 동종 계열에서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 진로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진로 결정이 어려울 때는 진로 미결정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판 직업결정척도>를 참고하여 본인의 진로 미결정 요인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진로결정을 미루게 되는 5가지 요인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 요인1 : 결정을 미루는 성격적 요인

우유부단한 성격적 요인으로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 및 깊이 있는 개인 성찰을 통해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심리적/성격적인 부분은 단기간에 변화하기 쉽지 않으므로, 결정에 대표적으로 관여하는 감정인 불안에 대해 수용하고, 완벽한 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고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요인2 : 진로 정보 부족 요인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취업은 원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구인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워크넷 및 구인 홈페이지 (장년워크넷 <https://www.work.go.kr/senior/>, 시니어일자리 <http://www.seniorwork.net/> 등)에서 취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원스톱 프로그램은 아래의 진로컨설팅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요인3 :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요인

어느 특정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얼마나 흥미를 갖고 있고, 잘할 수 있는지, 해당 직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얼마나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충분한 자기이해가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직업이 경제적으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가치의 충족 등 삶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 및 검사(워크넷의 직업선호도검사 L형, 직업가치관검사,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등)와 해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요인4 : 외적 환경 요인

특정 직무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내적 고민이 아닌 주변 환경, 즉 외적 갈등이 있는 경우이다. 중요 타인 또는 경제적 상황 등 외적 환경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경우 외적 환경이 실제로 개선이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선에서 자신과 외적 환경과의 타협점을 설정하고,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진지한 고민 해결을 위해 개인상담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요인5 : 진로결정 필요성 부족 요인

현재 진로에 대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후 진로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지, 혹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현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래에 대한 조망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상담 또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 · 진로컨설팅지원 프로그램 살펴보기

(1)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장년워크넷/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길어진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평생 현역 준비프로젝트”

가. 대상

-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나. 내용

-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 평생 현역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애경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경력준비 가이드라인 제공, 진단 결과에 따라 유형별 특성과 행동 전략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력 관리 및 추천 서비스 제시, 생애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한다.(교육비 무료, 식사/수료증 제공)

① 재직자과정 40+ 경력전성프로그램

만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초 일반과정 1	심화 일반과정 2	선택 일반과정 3
모듈 1 (3시간) 경력관리 : 고용시장에서 고용유지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경력관리를 할 수 있다.	모듈 3 (3시간) 평판 및 네트워크 관리 : 경력관리 성공요소로서 네트워킹과 평판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건강 : 노화예방, 건강유지 재무 : 자산관리 여가 : 여가정보 제공 관계 : 소통과 갈등극복 경력관리 성공요소로서 네트워킹과 평판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모듈 2 (3시간) 변화관리 : 변화하는 사회, 조직, 업계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모듈 4 (3시간) 성과관리 : 성과창출의 핵심요소를 확인하고, 역량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재직자과정 50+ 경력전성프로그램

만 5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경력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생애를 되돌아보며 평생 경력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기초 일반과정 1	심화 일반과정 2	선택 일반과정 3
모듈 1 (3시간) 나의생애 조망하기 : 생애주기 상 중장년의 의미와 과제 확인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 일과 성공에 대한 재정의의 통해 삶의 가치 변화를 확인한다.	모듈 3 (3시간) 경력대안 개발하기 : 경력설계의 방법을 학습하고 성공의 핵심요소를 파악, 중장년 경력설계의 특징과 네트워킹에 대해 이해한다.	건강 : 노화예방, 건강유지 재무 : 자산관리 여가 : 여가정보 제공 관계 : 소통과 갈등극복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관심 있는 생애설계 강의를 선택하여 참여한다.
모듈 2 (3시간) 직업역량 도출하기 : 외부 직업세계의 변화를 학습하고, 직업역량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 약점을 만회하기 위한 개발 방법을 모색한다.	모듈 4 (3시간)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설계하고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한다.	

③ 재직자과정 60+ 경력전성프로그램

만 6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삶과 일, 여가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초 일반과정 1	심화 일반과정 2	선택 일반과정 3
모듈 1 (3시간) 숨 고르기 : 삶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100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모듈 3 (3시간) 균형 잡기 : 삶, 꿈, 일, 학습, 여가 균형을 찾아 효율적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건강 : 노화예방, 건강유지 재무 : 자산관리 여가 : 여가정보 제공 관계 : 소통과 갈등극복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관심 있는 생애설계 강의를 선택하여 참여한다.
모듈 2 (3시간) 발견하기 : 삶을 돌아켜보고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고, 삶의 축이 될 가치를 발견한다.	모듈 4 (3시간) 뛰어들기 :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정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④ 생애경력설계 구직자 프로그램

만 40세 이상 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생애 중간 시점에 본인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제 2의 인생 준비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기회를 제공한다.

1. 인생 들여다보기	2. 인생 되돌아보기
모듈 1 (5시간) 인생 2막 준비 현황과 필요성 : 인사합시다! 호모 헨드레드 시대의 이해 100세 시대 우리의 고민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말하다 인생2막 준비 현황과 필요성 중장년 노동시장 이해 : 생각해봅시다! 중장년 노동시장 개요 다양한 일자리의 이해 재취업, 창업, 창직, 귀농·귀촌, 사회공헌 일과 직업 이해 : 생각해봅시다! 일의 의미 은퇴의 의미	모듈 2 (6시간) 나의 진로 경력 회고하기 : 인생 회고(Life Review)의 의의 인생을 돌아보는 질문들 나의 인생 정리하기 베이비부머의 정체성 격려와 응원 주요경력에서 핵심역량 찾기 : 진로·경력 회고 베이비부머의 근로생애 유형 주요 경력에서 핵심역량 찾기 주변 경력에서 몰입 경험 찾기 : 직업 가치관 버킷리스트 직업 흥미검사

3. 제 2의 인생 계획하기	4. 제 2의 인생 실행하기
모듈 3 (3시간) 생애계획 수립 : 생애설계의 이해 생애설계 실습 경력경로 설계 : 경력설계의 이해 경력설계 실습 구직계획 수립 : 구직설계의 이해 조사단계 접근단계 후속단계 구직계획 수립	모듈 4 (6시간) 구직준비 : 구직준비의 이해 지원분야 분석 실습 구직서류 준비 면접 준비 삶의 균형점 찾기 : 구직 준비의 이해 지원분야 분석 실습 구직서류 준비 면접 준비 일의 영역 확장하기 : 라이프 리밸런싱의 이해 라이프 리밸런싱 연습

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하거나 각 지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문의(www.work.go.kr/senior/lifePlan/lifePlanEduList.do)
- 개인신청 : 홈페이지 접속/교육신청 ▶ 지역/과정/날짜별 프로그램 선택 ▶ 교육신청 완료
- 기업신청 : 홈페이지 접속/기업출강요청 ▶ 접수 및 답변 ▶ 일정 및 장소 등 세부진행내용 협의
- 한국고용정보원 대표번호 : 1577-7114

(2) 전직지원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장년워크넷/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전직을 원하는 모든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전문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금융권 퇴직(예정)자 대상, 특화 전직지원 서비스 별도 제공(장년워크넷 참조)

가. 대상

- 만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자

나. 내용

- 중장년 성공취업·성공창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종합 솔루션 제공(비용 무료)

① 1:1 맞춤 재취업·전직 컨설팅 제공

전문 컨설팅 배정, 개인별 체계적 분석,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코칭, 구직전략 수립, 면접전략, 구직알선, 취업 및 사후관리

②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전문 컨설턴트들이 중장년 적합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알선, 기업에 적합한 인재 추천, 중견 전문 인력 풀 운영 및 매칭서비스 제공, 구인 기업문화 체험 및 현장 면접 기회 제공

③ 구직지원 서비스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 촬영, 구직활동을 위한 사무기기(PC,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무료 제공, 구직활동 공간 및 휴게공간 제공(운영센터 : 노사발전재단 본부, 서울서부,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충청, 강원, 제주 센터)

④ 전직지원교육 프로그램

단기교육프로그램으로 변화관리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중장년기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으며, 재도약 프로그램으로 퇴직 이후 경력목표에 따라 목표 설정·취업스킬·건강관리 등의 교육을 20시간 운영(수료 후 취업동아리 연계)

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구직신청/인증(이력서 등록) ▶ 전직지원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승인 ▶ 개인별 컨설턴트 배정 ▶ 전직지원서비스 시작
-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촬영 : 서울서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구로), 인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경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수원), 부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대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진행, 전직지원서비스 신청 후 증명사진 촬영신청, 방문 순서대로 진행한다. (<https://www.work.go.kr/indivMemberSrv/chgjbSptMng/pshtnMngInfo.do>)
- 한국고용정보원 대표번호 : 1577-7114

(3)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체계

*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 후 근속기간(3개월(30만 원)/6개월(40만 원)/12개월(80만 원))에 따라 취업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최대 150만 원)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가.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24세) :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만18~69세 이하)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
 - ①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④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나. 내용

- 1단계(진단·경로설정) : 집단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2단계(의욕·능력증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 수당지급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 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1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5~70% 자부담 발생
(단, 정부 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3단계(집중 취업알선) :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 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를 방문(<https://www.work.go.kr/pkg/succ/index.do>) 하여 ‘참여방법-신청방법’ 탭을 선택,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는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를 방문(<https://www.work.go.kr/pkg/succ/index.do>)하여 ‘참여방법-운영기관찾기’ 탭을 선택, 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운영기관(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을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대표전화로 연결
- 고용센터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0
- 한국고용정보원 대표번호 : 1577-7114

(4)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취업지원프로그램)

- ❖ 중장년 구직자들이 인생 2막을 새롭게 설계하고 재취업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생 후반부 삶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재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구직기술 습득 및 구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며 제 2의 인생을 설계해나가는 프로그램

가. 대상

- 중장년(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이직/전직 희망자, 자신감 증진이 필요한 중장년, 인생 후반부 삶의 계획과 함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구직기술(이력서, 면접 등)을 배우고 싶은 50세 이상자

나. 내용

- 12~15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되며, 4일간 6시간 씩, 총 24시간 동안 진행
- 4일간 인생 재설계, 취업자신감 향상, 구직기술 습득, 대인관계 기술을 통한 직장적응 능력 향상 및 취업설계의 내용으로 진행
- 집단 내에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사후활동을 통해 정서적 교류 및 다양한 정보 공유

1. 새로운 삶	2. 배우는 삶
+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 설명 + 참가자 간 소개 및 발표 + 고령화 사회의 변화 이해하기 + 참가자 인생 회고 및 생애 계획 세우기	+ 직업 선택 시 가치관, 능력, 성격 등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직업세계 및 취업관련 기관 이해, 희망직업 탐색의 중요성 이해
3. 준비하는 삶	4. 성장하는 삶
+ 구직스킬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설명 + 구인자 관점에서의 이력서 작성 이해와 이력서 작성 실습 + 면접 이미지 메이킹 및 면접 답변 대비 + 모의 면접	+ 비합리적 사고 이해 및 대안반응 학습하기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이해하기 + 구직계획 수립 및 실천하기 + 프로그램의 마무리 및 격려하기

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 ▶ 고용복지정책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 ▶ ‘일정보기’ 및 ‘참가신청’ 탭 선택 후 신청
(<https://www.work.go.kr/empSpt/empSptPgm/oldReemp/intro.do>)
- 고용센터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0

(5)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서울특별시)

- ❖ 50+세대를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사회참여 지원, 여가와 일상 지원 활동 등, 일자리 정보 및 취업교육 제공

가. 대상

- 중장년 층 누구나 방문하여 정보 확인 가능(서울에 해당되는 정보 다수)

나. 내용

- 50+세대의 인생 후반을 지원하고, 50+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원 사업

① 자가진단

- 성공적인 제2의 인생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여러 분야의 자가진단 검사 제공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검사 후 결과 확인 가능(재무, 건강, 가족, 사회적 관계, 여가, 일과 자기계발, 사회공헌)

②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정보

다양한 50+기관의 채용정보 확인 가능

사회공헌 일자리

은퇴한 장년층이 학교·복지시설·지역 등과 연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제2, 제3의 커리어탐색형 일자리(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회 공헌활동 지원사업, 이야기할머니사업)

양코르 일자리

50+세대가 ‘개인적 의미와 성취’, ‘사회적 영향과 가치’, ‘지속적 수입’을 모두 만족 하는 ‘일과 참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다양한 유형의 50+세대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

인재뱅크

일자리를 위한 50+세대 인재 데이터와 일자리 수요 데이터를 매칭하는 시스템, 인재뱅크 등록 후 향후 관련된 사회공헌형 일자리 모집 시 매칭을 지원하는 시스템(영역별/분야별 50+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수요에 적합한 50+인재풀 확보)

③ 50+ 창업 프로그램

- 창업 관련 교육 제공, 50+세대의 활동 공간과 베이스캠프 기능을 지원하는 독립형 사무공간, 개방형 공유 공간 제공, 창업 및 단체 설립 인큐베이팅,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제공
- 그 밖에 50+세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관 정보를 분야별로 제공(사회적 가치 공유형 창업, 기술형 창업, 소상공형 창업, 1인 여성 창업)

④ 온라인 및 방문 상담 제공

- 50+세대의 주요 고민(건강, 재무, 가족, 일과 사회참여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⑤ 관련 지원 사업 및 50+ 커뮤니티 정보, 배움, 사례 정보 제공

- 50+행사 및 커뮤니티, 50+매거진, 다양한 분야 강의 정보, 양코르 커리어 사례 제공(50+세대의 관심과 경험에 맞춘 3개 학부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다. 홈페이지 정보 및 문의

- 5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곳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포털(<https://50plus.or.kr/>)
- 대표전화 : 1661-5516, 02)460-5050
- 이메일 : help@50plus.or.kr
- 서울시50플러스재단 facebook(페이스북) 운영
- 타 지역 유사 사이트 :
 - ①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busan50puls.or.kr 대표번호 : 051)864-6300
 - ② 대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daejeonsenior.or.kr 대표번호 : 041)331-5064

(6) 시니어인턴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

가. 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내용

- 인턴기간(3개월) 및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월 급여의 50%를 기업에게 지원(참여자 1인당 최대 270만 원)
- 기타 홈페이지를 통한 공익활동, 재능 나눔, 채용정보 및 교육내용 열람 가능

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 :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방문(<https://www.kordi.or.kr/main.do>)
- 100세누리 시니어사회활동포털 방문(<https://www.100senuri.go.kr:4431/main/main.do>)

(7) 고령자인재은행 (고용노동부)

- ❖ 취업이 어려운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인·구직 등록 지원,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재취업 상담,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가. 대상

- 구직자 : 5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건강한 남·여
- 구인자 :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

나. 내용

-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아래 기관 중 지역에 맞게 선택하여 문의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서부여성발전센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서울남부여성발전센터	의정부 YMCA
남양주 YMCA	수원 YMCA	평택 YMCA
춘천 YMCA	강릉 YMCA	속초 YMCA
원주 YMCA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사)경남고용복지센터
울산 YMCA	양산 YMCA	진주 YMCA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포항 YMCA	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권본부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안동 YMCA	광주 YMCA
노동실업광주센터	전주 YMCA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익산 YMCA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목포 YMCA
순천 YMCA	여수 YMCA	세종 YMCA
천안 YMCA	충주 YMCA	제천 YMCA
제주 YMCA	서귀포 YMCA	





진로결정을 위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한국판 진로결정척도

다음은 탁진국과 이기학에 의해 개발된(2003) 한국판 직업결정척도이다. 이 척도는 한국의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진로정보 부족, 자아정체감, 우유부단함, 진로결정필요성 부족,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 외부요인 등 5가지 요인으로 보았다. 해당 문항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문항으로, 일부 문항을 중장년층에게 해당되도록 수정/보완하였으나,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타당도와 신뢰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번호	문항	1점	2점	3점	4점	5점
1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2	나는 매사에 소극적이다.					
3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4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합계:						
5	내 전공에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6	내가 바라는 직업이 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7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8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합계:						



번호	문항	1점	2점	3점	4점	5점
9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0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11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2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합계:						
13	내가 바라는 직업을 나의 중요 타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14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15	학벌이나 연령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16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합계:						
17	현재로서는 직업을 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8	요즘은 직업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19	다음 직업을 현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20	내 이후 인생에서 직업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합계:						

❖ 결과해석 방법

1. 총점 : 20점-100점 사이 분포
2. 하위 요인별 점수의 해석 : 하위 요인에서 합이 12점 이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미결정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문항	하위요인	점수	내점수
1번-4번	우유부단한 성격	최상 20점-4점	
5번-8번	진로 정보 부족	최상 20점-4점	
9번-12번	자아정체감 부족	최상 20점-4점	
13번-16번	외적장벽	최상 20점-4점	
17번-20번	필요성 인식의 부족	최상 20점-4점	

똑똑! 활기찬 신중년을 위한 5가지 준비



1. 은퇴 후의 변화에 대비하기

‘누구나 퇴직을 앞두고 노후자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도 하지만, 퇴직 이후의 삶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이에 맞게 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퇴직 후 5가지 변화에 대비하자』 류재광(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퇴직 후 신중년이 맞게 될 5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지위 변화

은퇴로 인해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명함이나 직함이 없어지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의 사회단체나 자원봉사 단체, 평생학습 참여 등 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 리듬의 변화

그 동안 일과 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생활 리듬이 퇴직 이후에는 바뀌게 된다. 갑자기 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TV만 보면서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기 십상이다.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월 계획표와 하루 일정표를 작성하고 새로운 리듬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셋째, 소비수준의 변화

은퇴로 인해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소득이 없어지면서 소비에도 제약을 받는다. 퇴직 이후 경제력에 걸맞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던 직장 생활과는 다르게 소비수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 내 역할 변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변한다. 그동안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을 지켰다면 이제는 새로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100세 시대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점을 명심하자.

다섯째, 체력 변화

나이가 들면 체력과 운동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규칙적인 운동과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만들어 활력 있는 노후를 맞이해야 한다.

이렇듯 은퇴 후, 이전의 인생에서는 없었던 변화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책 『당신의 마인드를 디자인하라』에서는 성공적인 변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성공적인 변화의 과정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변화하기를 원하는가를 인식하는 단계가 변화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 변화의 대상을 인식하고 목표를 정하면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행동은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의식적인 행동은 **긴장과 고통을 동반한다**. 컴퓨터 자판을 다루는 것을 처음 배웠을 때를 기억해보라. 눈으로는 자판을 보아야 했고 동시에 손가락도 같이 움직여야 했을 것이다. 만약 그 시기에 리포트를 작성했다면, 자료를 보고 나서 자판을 보면서 동시에 손가락도 자판에 맞추느라 손가락은 물론 어깨까지 아팠을 뿐만 아니라, 한 장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 단계는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단히 결심한 계획이 사흘을 가지 못하는 작심삼일이 반복된다. 자연과 인간 세상의 공통된 법칙 중 한 가지는 ‘모든 행동에는 똑같이 비례하는 반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원하는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이 좋아하던 것을 못 하게 되는 등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변화의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이 99도가 아닌 100도가 되는 시점에서야 수증기로 변화하는 것처럼, 원하는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기가 되어야 임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는 곧 ‘무의식적 차원의 새로운 능력’이 된다. 컴퓨터 자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자판을 보지 않고 자유자재로 자판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원하는 변화를 위하여 일정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임계점을 지나 능력의 단계가 된다.

즉, 변화의 과정은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단계’에서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를 인식하는 의식의 단계’를 거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단계’에서 임계점을 지나 ‘변화된 능력이 탄생하는 새로운 무의식의 단계’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지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영국의 처칠 수상의 두 마디 연설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를 기억하면서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원하는 변화를 성취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 당신의 마인드를 디자인하라(이성희 著) 중에

2. 나 다운 삶을 위한 직업 선택하기

인생 중후반기 삶의 직업은 자신의 생계수단이든, 지식과 경험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회공헌 일자리 활동이든, 신중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중년들이 50세 중반에 은퇴해 7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하면, 중후반기 인생에서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인생의 중후반기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탐색과 역량분석, 흥미 및 적성 분석 등과 같은 노력을 요구하며, 신중년은 청년과 달리 여러가지 직업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업 선택에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중후반기 직업 선택은 자신을 둘러싼 변화를 인식하고 눈높이를 조절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중년 3모작 패키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구직을 위해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후반기 삶의 직업관리에 도움이 된다.

표 12 | 신중년 일자리 정보 한눈에 살펴볼까요?

워크넷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포털로 장년층 대상 정보만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중장년층 취업 정책과 관련 정보 제공	www.work.go.kr
나라일터	인사혁신처 주관 공공기관 채용 정보 등재	www.gojobs.go.kr
잡투게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며, 73,000여 개 회원사의 채용정보를 제공	www.jobtogether.net
100세 누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종합 정보 포털, 일자리, 교육, 복지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니어 사회활동 포털	www.100senuri.go.kr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채용공고, 입찰공고 등을 제공	www.alio.go.kr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소식, 뉴스, 창업지원, 채용정보 등 제공	job.seoul.go.kr
50+보람일자리	50+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정보 제공	50plus.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	www.kordi.or.kr
한국시니어클럽	고령사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등 활기찬 노후 지원	www.silverpower.or.kr
대한노인회취업센터	무료 노인 취업 상담 서비스	대표전화 1577-6065
서울인생이모작센터	지역사회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상담, 알선 등 기회 확대	http://seoulseior.or.kr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http://www.vocation.or.kr/main.aspx

3. 경제적으로 탄탄히 준비하기

신중년의 안정적인 중후반기 삶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가정 경제의 지출요인을 분석하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자녀와 관련된 재무 위험을 줄이고 가족 간 재무에 관한 대화로 사전에 갈등을 줄이며,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한다. 아울러 증여와 상속 등과 같은 중장기적 자산변화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손실위험이 높은 투자보다는 안정적 자산관리에 집중한다. 본인의 자산, 부채, 연금정보와 같은 금융정보는 금융소비자 종합정보포털(<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경제적 노후대비는 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눈높이를 조정하고 비정기적인 일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주변과 풍요로운 관계 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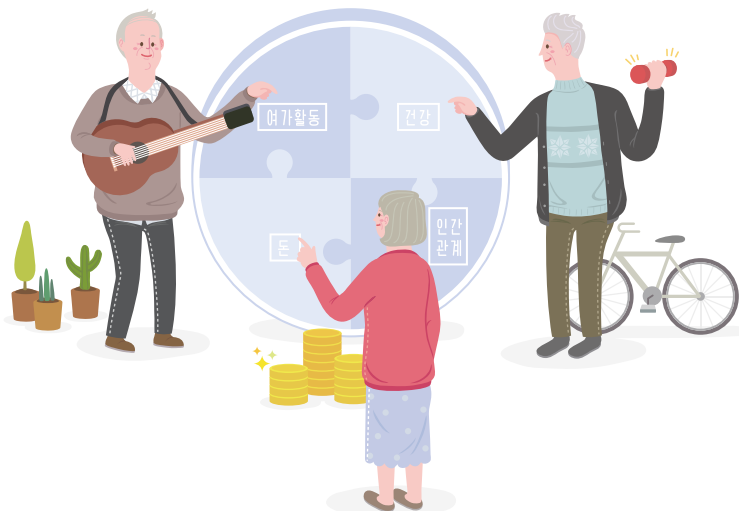
중후반기 삶은 대인관계를 강화하여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고독과 우울감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인생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인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형성하기 위해 친목 모임 및 취미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후반기 삶은 속도보다는 여유를 갖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목표와 경쟁보다는 화합과 유연성으로 임하자.



5·여가와 건강 알차게 챙기기

은퇴 후 여가활동은 중후반기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수단이므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필수적이다. 여가생활을 통해 개인은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을 해소하고 자기존중과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본인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여가활동의 종류로는 자원봉사형, 취미형, 학습형, 관계지향형, 건강관리형, 문화형, 여행형 등이 있다. 중후반기 여가활동은 배우자와 함께 혹은 각자가 따로 할 수 있는 여가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은퇴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해야만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잃게 되면 의료비용이 발생하고 가족의 행복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한눈에 보는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

04

새로운 일과 직장생활의 변화에 대한 대처



지금의 신중년들이 학교에 다닐 때, 리포트는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작성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플로피 디스켓에 문서를 저장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CD에 저장하는 식으로 발전했다. 이제는 조그마한 USB에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심지어는 실체가 없는 공유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문서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처럼 기술과 직장 생활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변화하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20~30대는 변화된 세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신중년들은 자신이 젊은 시절 지녔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일과 직장 생활에 임하면서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3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신중년의 일과 직장 생활에서 어떤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지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겠다.

1. 우리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어떻게 변해왔나?

(1) 정치적 격변

우리나라는 격변기 80년대를 거치며 민주화된 정부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2) 경제적 성장

신중년들의 어린 시절 1인당 국민소득은 1천 달러였지만(1977년), 지금의 20~30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일 때(1995년)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처럼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의·식·주 등 여러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다.

(3) 사회적 가치관 변화

신중년들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배고픔을 견디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다. 또한, 자식들이 성공하여 본인들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는 ‘성공 우선주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반면 비교적 풍요롭게 어린 시절을 보낸 20~30대들은 ‘성공’보다는 ‘만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신중년들은 새마을운동 등의 영향으로 성실·근면한 생활 태도를 최우선으로 여겼으나, 20~30대들은 성실·근면보다는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다. 더불어 신중년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성과 배분에 있어 장유유서를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지만, 20~30대들은 성과 배분의 기준으로 실력이나 실질적 기여도 등을 더 중요하게 간주한다.

(4) 문화적 변화

베이비부머 세대인 신중년과 달리 N세대 또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들은 소유보다는 공유를,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며, 컴퓨터와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정보 검색 및 활용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법률적 강화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직장 내 동료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방지 관련법률 등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직장 생활과 관련된 법률적 변화가 많았다.

(6) 기술적 진보

최근 들어, 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은 혁신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발전은 우리 사회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과 직장생활은 어떻게 변해왔나?

(1) 정치적 변화와 세대 간 갈등

신중년 세대의 대표적 특징은 군대 문화이다. 당시의 정부의 성격과 군대 문화를 통해 상명하복(上命下服)이 당연시되었으며,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견을 달면 ‘소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또한, 상급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눈치를 살펴 가며 의사결정을 주로 하였다. 반면 20~30대들은 사회전반적으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교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상급자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그러한 지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함에도 상급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20~30대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50~60대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사고에 머물러 있어 직장에서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경제 관념의 차이

신중년들도 직접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로부터 ‘보릿고개’ 이야기를 들으며 배고픔의 두려움을 느끼며 자라났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신중년들은 잔업수당이 기본급여의 1.5배이다 보니 잔업에 대한 불만을 갖기보다는 잔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20~30대들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어린 시절을 비교적 풍요롭게 보내다 보니 ‘급여’보다는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신중년 중에서는 20~30대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한 야근 대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30대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보다는 차를 먼저 구입하여 여가를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여 20~30대들과 직장에서 마찰을 빚기도 한다.

(3)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

사회적 가치관이 '성공'에서 '만족'으로, '성실·근면 우선주의'에서 '즐거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장유유서'에서 '실력 우선주의'로 변하고 있다.

신중년들이 승진 등 성공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중시하는 데 반해, 20~30대들은 이러한 성공의 의미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고 만족을 느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오로지 승진하여 성공하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인식한 신중년들에 비해, 승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20~30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신중년들은 학교 교육에서 '창의성', '다양성' 등보다는 '성실·근면'이 최고의 가치로 배웠기에 2~3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는 20~30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신중년들은 전날 과음을 해도 다음 날 반드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20~30대들은 갑자기 다음 날 아침에 휴가를 신청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20~30대의 모습이 신중년들에게는 성실성이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신중년들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장유유서(長幼有序)를 중요시하는 반면, 20~30대는 장유유서보다는 실력을 우선시한다. 20~30대들이 성과배분 시, 장유유서보다는 실력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는 신중년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라고 생각하며,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적 관점에 따른 변화

신중년들은 군대 문화로 대변되는 단체주의적이며 집단적인 문화 성향이 강하다. 반면, 20~30대는 N세대 또는 밀레니엄 세대로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신중년들은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조선 사람은 모래알 조직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개인주의는 안 좋은 것이다'라고 각인 받았다. 그런 교육을 받은 신중년 입장에서는 20~30대들이 직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개인을 우선하는 행동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신중년들은 많은 형제·자매들 틈바구니에서 생활하다 보니 좋지 않은 상황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 반면 20~30대는 핵가족 안에서 부모님들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겪고 스트레스에 스스로 대처하는 법을 체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신중년 입장에서는 20~30대들은 나약하다고만 생각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따라, 인해 20~30대와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있다.

(5) 법률적 강화에 따른 변화

신중년들은 영업 등 고객 또는 거래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상대방에게 금품 또는 선물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2015년부터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분야 등에서 일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액 이상의 금품 또는 선물을 주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신중년 중 일부는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법이 제정되기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어학연수 등으로 서구의 생활을 경험한 20~30대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 등을 은근히 바라는 신중년들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관련 법률들이 강화되면서 성희롱에 대해 사회적,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괴롭힘 방지 규정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어, 취업 시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중년들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거래(원청의 갑질)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법률적으로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원하청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6) 기술적 진보에 따른 변화

신중년들은 20~30대들에 비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 사용능력이 부족하고,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소통도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격차로 인해 세대 간 소통 부족, 업무처리 방식의 이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변화에 따른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법률·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신중년들과 20~30대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다양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더욱이 신중년들은 기존의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거나 창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마찰은 재입사 후 적응과 성공적인 경영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신중년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우선 신중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뿐만 아니라 법률 및 기술적 변화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2) 평생 동안 공부하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학구열은 세계 최고지만 그 이후 생애의 학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평생학습체계를 설계하고 꾸준히 실천**할 필요가 있다.

(3)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용하자

학습을 통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발전을 도와주기 위한 동아리 등의 모임에 참여해 활동**하는 것도 변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 관련 동아리에 참여하여 기술적 변화를 이해하거나, 예·체능 동아리 참여를 통해서 공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Chapter

II



신중년, 출사표를 던져라

- 05 소중한 일 경험, 당신의 꿈을 수 놓기
- 06 배우고 익히니 즐겁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 07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신중년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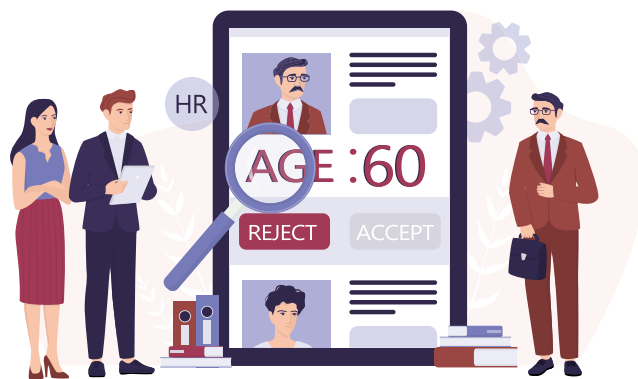


소중한 일 경험, 당신의 꿈을 수 놓기



‘신중년’은 곧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수 신중년들은 재취업 일자리에선 직무 포부와 임금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무엇보다 희망 일자리의 부재로 불안감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재취업 의지가 굳건한 신중년이라면 눈을 낮추거나, 새로운 방식의 일거리를 개척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신중년 세대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생애적 관점에서 일의 의미와 퇴직 과정에서 필요한 대처기술과 정보, 그리고 인생 3모작을 통해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자 한다.



1·신중년,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개인이 겪는 사건, 시대와 환경, 생애 역할 등이 통합되면서 자의든 타의든 몇 번의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환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바꾸어 새로운 환경을 통과하는 것인데 정년퇴직처럼 계획된 전환과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의 비계획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전환이 있다. 일의 역할이 단절되어 위기를 느끼는 신중년이 이 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새로운 생애 전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각종 프로그램, 강의, 상담 등에 참가한 신중년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극복의 흐름을 보였다.

(1) “믿을 수 없어” : 분노와 스트레스

신기용(가명, 56세)씨는 청년 시절 군대 제대 후 수월하게 대기업에 취업하였다. ‘직장은 곧 나의 삶이다.’라고 할 정도로 휴일 출근을 당연하게 여기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전형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이다. 주어진 일이 천직이고, 회사가 집이라고 생각하며 30년 동안 한곳에서 일하다 보니 무난하게 승진하고 임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조직은 변화하고, 신기용 씨는 퇴직하게 된다. 회사에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도 받았지만,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분노감으로 휩싸인 채 주변의 그 어떤 말도 위로로 들리지 않았다. 이처럼 권고사직 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분노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다.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들도 자신의 내쳐진 처지와 연결되어 사소한 것에도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신체에도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 시기를 보내는 데에는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된다.

(2) “그래, 이만하면 다행이다” : 위로

‘언젠가는 겪을 일이고 이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것이다’라는 주변의 다독임과 분노의 상태에 계속 놓여있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을 인정하게 된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심리학자 Hopson과 Adams(2014)는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게 만들고 싶은 욕구라고 하면서 ‘최소화’라는 명칭으로 표현했다. 심리적 안정을 스스로 찾으려는 ‘자기 합리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만큼 해왔으니 이만하면 다행이지.’라는 다독임이다. 이때 실직에 대한 무기력감과 공허함이 밀려와 절망 상태에 빠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극복이 잘 이루어지면 자기를 긍정적으로 탐색하게 되고 일에 대한 의미도 재정립하게 된다.

(3)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 자기반성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무엇이 문제였나’, ‘그때 그 일 때문인가?’ 등 온갖 생각이 스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지만 억울함과 상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뿐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4) “괜찮아, 아무렇지 않을 거야” : 타협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상황들이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상처가 된 좌절감이나 긴장감 등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들을 점차 내려놓는다. 여기서 합리적 타협이 일어나면 효과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며 온전한 자신을 찾으려는 내면의 욕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반면 앞에서 자기반성이 부정적 정서로 흘러가면 비합리적 타협이 이뤄져 원래의 자신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5) “이번 기회에 새롭게 시작하자” : 기회

프로그램 참여자라면, 이 단계에서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조언도 해주고 자신의 경험담을 서슴없이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결성하기도 한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에너지가 생기고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앞날을 기대하면서 낙관적으로 전향한다. 이때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과 전략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행동으로 직업훈련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알선을 요청하는 등 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

(6) “어떤 일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 관점 재통합

앞 단계의 실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하는 과정으로, 실직 위기라는 것이 ‘인생 2모작’에서 ‘인생 3모작’으로 가는 가교 역할임을 깨닫게 되며, 이 시간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젊은 시절의 일 경험이 그대로 발현되는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지만, 포부보다 낮은 일자리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하면서 ‘일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감사함과 다행감을 경험하게 된다. 설령 새로운 기회를 또다시 찾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것으로 보람을 찾고, 기쁨을 얻는 방법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다음은 굴지의 기업에서 관리자 역할로 전성기를 누렸을 때를 회상하며 최○○(63세, 남)씨가 전하는 말이다.

“예전에는 최고의 위치에서 지시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어요. 지금은 위에서 시키는 일을 제가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 복지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맞아요. 봉사도 하는데 나는 돈을 받고 하니 더 좋지요. 환경 정비 같은 단순한 일은 1~2시간이면 끝나고 예전 내 전문 영역이었던 정보통신 기술을 재능기부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복지관에 오신 분들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 기술을 도와주고 있는데, 아주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5년씩이나 했겠어요. 복지관에서도 나를 꼭 필요한 사람이라 여겨 아주 좋아해요.”

2.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산업사회의 주역으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지금의 신중년들은 과거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 그렇지만 이제는 넓은 의미에서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어디에 소속되어 높은 직위를 갖는 것도 좋겠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선택과 결정, 이후 일에서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 경제적인 이유

많은 신중년들이 계속 일하려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이유’이다. 일이라는 것이 아무리 보람되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출 관리가 쉽지 않아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진다고 말한다. 결국은 대인관계도 기피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고, 건강관리, 대인관계 유지와 취미활동, 노후대비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느낀다.

(2) 자기정체성 발견

신중년들은 남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성과를 내다보면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직 몰입에 에너지를 쏟은 세대이다. 이렇게 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은 기업 마크와 유니폼, 명함에서 인정이 되었고, 부의금과 축의금 봉투에 찍혀 있는 소속과 직함 자체를 신중년 자신으로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성과를 통해 경쟁의 우위에 서거나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진 것과 쌓아온 능력들을 사회에서 발휘할 기회를 찾으려 한다. 위치라는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관리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체를 뜻하게 된다. 즉, 조직의 가치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존재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정체성’을 탄탄하게 만들면 전문직 등 고숙련 직종을 따지기에 앞서 ‘일 자체’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설정하여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3) 삶의 질서 새롭게 만들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인으로 살다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진 신중년은 처음 얼마 동안은 등산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는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란함과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좋았다는 것을 되새긴다. 회사 다닐 때는 힘들어서 다니기 싫을 때가 많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옆에서 깨우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눈 뜨면 갈 곳이 있던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에 재취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재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눔에서 28년간 회계 및 경영관리 직무를 수행 후 최근 퇴직한 한○○(남, 57세)씨의 표현이다.

“아유 말도 마세요. 쉬고 나니 좋은 건 얼마 안 가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괜히 마누라 눈치만 보이고 스스로 관리가 안 되어요. 괜히 불안하고 뭐를 해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렵네요. 짧은 시간이라도 일이 있어야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젊고 건강한데 퇴직했다고 집에 있는 게 말이 되나요?”

(4)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

군 전역 후 잠시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 후 요양보호사로 인생 3모작을 살고 있다는 김○○(남, 65세)씨는 누가 뭐라고 하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어르신을 보살핀다는 것에서 소명과 보람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말 붙이기도 어려워하는 남자 어르신을 보살폈는데 오히려 ‘남자라서 더 좋네요.’라는 말을 듣고 ‘이 일을 참 잘 시작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낀다고 한다. 어떤 일이 되었건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단순 노역이 아닌 기술이었고, 사명감이 포함된 ‘일의 숨은 뜻’, ‘도움 되는 존재’로서의 가치는 ‘자아성취감’의 발견이었다.

(5) 몰입의 즐거움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 중 ‘일하는 즐거움’은 세상 시름을 잊게 해 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보수와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열중할 수 있고 빠져들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다.

3·인생 3모작으로 가는 길에 서다

구직활동을 하고 일을 선택하기에 앞서 먼저 큰 틀에서의 삶의 방향을 짚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사는 삶’,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인정받는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100세 인생을 하루 24시간으로 비유하자면 신중년은 이제 반나절을 조금 지난 셈이다. 나머지 반나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추상적이지만 큰 틀 안에서 일이 주는 의미를 짚어보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된 후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후회가 없다. 그렇다면 적당한 시기는 언제일까?

(1) 회사를 나오기 전에 준비하자

정년퇴직처럼 퇴직이 예측된 경우라면 2~3년 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일자리나 일거리를 미리 준비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도 자신감에 도움이 된다. 어떠한 경우든 퇴직 전에 평판 조회도 대비해 두는 게 좋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퇴직인 경우 정서적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내 전직 프로그램 참여 권유조차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 준비 없는 퇴직의 길로 접어들곤 한다. 부정적 정서가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는데 제3자의 눈으로 코칭을 받는다면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2) 주된 일자리 경험을 충분히 살리자

어떤 형태를 바라건 주된 일자리에서의 일 경험을 살리게 되면 새롭게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부담감이 줄고 인맥 활용이 수월하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동일직무 또는 동일계열의 다른 직무로 이동한 한 사례를 보자.

대형 식품회사에서 판매 유통관리와 인적관리 직무를 수행했던 신○○(남, 60세)씨는 유사업종의 새벽 배송 판매관리직으로 재취업 후,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자기 계발의 시간을 낼 수 있어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람을 상대로 한 일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와 함께 이전의 중압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지혜롭게 해쳐 온 신중년 세대는 굳건한 인내심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

그러나 IT, 전자 등의 기술집약적인 직무라 할지라도 가치가 다른 세대와의 융합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의 적응이 어려워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기술 임원 퇴직자 한 분은 중소기업 임원 계약직으로 들어갔으나 성과에 대한 부담감, 새로운 조직과의 문화 충돌, 전문직 경력자들과의 갈등과 혼란, 예전과 달리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짧은 기간에 그만두어야 했다.

(3) 이력서 작성을 위해 삶을 꼼꼼히 돌아보자

새로운 직업, 혹은 직장에 지원하기 전에 먼저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반추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왔던 일, 하고 싶었던 것, 묵혀 두었던 꿈, 일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 자격증이나 교육 등 보유자원, 네트워크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자기 이미지, 성격 및 성향, 흥미와 재능, 직무 전문성 등을 챙겨보자. 과거의 나를 회상하면서 어떤 때 행복했는가? 언제 만족이 큰가? 보상인가? 소명인가? 이바지하는 삶인가? 이러한 특성을 가능한 A4 한 장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칸을 정해서 핵심 단어로 정리한다. 또 다른 A4 용지에는 앞에서 뽑았던 항목 중 직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그 직무에서 얻었던 성취, 흔히 말하는 성과들을 수치와 함께 적어본다. 이렇게만 적어 봐도 신중년 자신이 어떤 강점이 있고,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감이 잡힌다. 여기에 자신의 철학과 가치, 일에서 얻은 성과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 비전과 포부를 함께 제시하여 정리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써야 할 내용이 풍부해진다.

(4) 지나간 채용공고 속에서 숨은 정보를 파악하자

자기 특성 파악을 했음에도 딱히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채용 공고 사이트를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취업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입력해 다양하게 검색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채용공고들을 살펴보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기술을 발휘하게 되면 채용공고를 분석하여 목표를 정하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가능성을 가늠해본 다음 직업훈련까지 확장하여 준비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다.

(5) 잔뜩 힘들어간 목과 어깨는 내려놓자

대기업 제조부서에서 부장으로 퇴직 후 지방의 작은 회사 공장장 자리로 입사한 후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된 신중년의 사례가 있다. 그는 말이 공장장이지 역할에 대한 존중은 커녕 체계도 없이 혼자서 여러가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보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내려왔나.'라는 생각으로 선부르게 퇴사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회사는 상장 되어 가치가 올라갔고 한참 성장하는 회사라는 걸 알고 나니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당시를 후회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부분까지 간과한 것이다.

황○○(남, 69세)씨는 규모가 있는 빌딩의 시간제 주차관리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잡았다. 취업 성공에 대한 감사함은 잠시였고, 중소기업 사장까지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지인들이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체면 때문에 포기한 후 다시 그만한 조건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의 나이는 71세였다.

예전에 화려했던 사회적 위치와 경력 기반으로 경력과 보수가 어느 정도 맞추어질 거라 기대하지만 신중년의 재취업 자리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이 아니다. 주로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 소기업에서 재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대기업 임원, 공기업 고위직의 이력서를 눈앞에 놓고 뽑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모셔야 할 분으로 신입견이 작용하지 않겠는가? 과거의 지위를 내려놓고 절박함이 있을 때, 일거리를 찾는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은 것을 보게 된다.

(6) 주변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적극 이용하자

자신에 대한 지나친 방어와 체면은 구직활동을 방해한다. 채용시장의 속성상 헤드헌터, 취업포털 사이트, 취업박람회 등에 공개된 정보는 비공개된 정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정말로 괜찮은 정보들은 숨어있다는 의미이다. 워크넷 외에도 포털사이트에 이력서를 성실하게 등록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 주변 사람들에게는 현재 구직 중임을 알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정보가 나에게는 소중한 정보일 수 있다. 신중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원 시스템을 최대한 구축하여 활용해보자.

50대 후반 여성 공무원 퇴직자 한 분은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먼저 취업을 했다. 이후 또 다른 비슷한 연령대 여성에게 정보가 전달되어 이웃 학교에 재취업을 했고, 양쪽 학교에서 나란히 근무하게 된 사례가 있다.

(7)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자

어떻게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경험과 주변 환경을 살펴보자. 가령 신중년들이 희망하는 시간제 일인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을 다른 신중년 누군가가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치자. 부러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보아야 한다. 직무나 장단점, 진입 경로, 준비할 것, 대상 등을 직접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일인지 가능하다면 하루 이틀 정도 들어가서 관찰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다. 한○○(여, 57세)씨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가서 책 읽기를 즐겨 하는 신중년 중 한 분으로, 무질서하게 어질러진 책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도서 도우미’를 자청하다가 시간제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의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데 펼칠 자리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한 재능기부 시민강사부터 시작해볼 것을 권한다.

(8) 꿀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잘 알아두자

상업계고 졸업 후 평생 회계 경리업무를 봐왔던 신중년이 작은 회사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해봤더니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은 이제 쓸모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좌절할 것인가? 직업훈련을 받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 먼저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해보자. 김○○(여, 58세)씨는 진로 전환 시점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취득했건만 한 군데도 뽑아주는 곳이 없었고, 반복된 구직 실패로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마침 과거 일 경험 중 미용사 경력이 있었고,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기회는 없었으나,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난 중소도시 미용학원에 직업상담사로 취업하면서 일 경험을 융합하였다.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이 기준이 되지만 산업체 현장 경험을 중요시하는 산학협력 중점 교수가 되는 방법은 산학협력 종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 전자, IT 등 산업체 경력으로 특성화고 산업체 우수 강사가 되는 길도 생각해 보자. 예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력 풀 형태로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공고를 내고 선발하는 방식 이라서 교육청 사이트에 정보가 올라온다.

4· No pain, No gain.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자!

생각과 계획에만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면 괜히 할 일만 쌓여가고 그 일의 부담으로 어깨만 무겁다. 커뮤니티에 나가보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해보자. 에너지가 생길 것이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가까운 고용센터와 지역 일자리센터 부터 기본적으로 방문해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사소한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본다.

먼저 명함부터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정체성과 멘탈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명함 이미지는 인터넷에 무수히 많다. 과거의 화려했던 직함 대신 자신만의 전문성이 살아있는 명칭을 넣어 인쇄소에 가보자. ‘세대소통전문가’, ‘도보여행기획자’, ‘자기경영컨설턴트’ 이런 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돈보다는 내 가치를 내가 정하고 나를 이끌어야 상대방도 나를 알아본다. 명함에 바라는 내가 목적지라고 한다면 새로 타이어를 교체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다시 주행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속도로로 달려왔다면 이제는 국도로 주행하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현역으로 3모작을 경작해볼 일이다. 자리에 연연하던 시대는 지났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만 보내게 된다. 직책만 있고 직무가 없는 이력서보다는 할 수 있는 일과 의미에 치중하여 마음을 열고 바라는 일에 몰입하는 신중년이 진정 건강하다.





경력활용 재취업자

신중년(5060) 재취업 도전기 Q&A

소중한 일 경험, 나의 꿈을 수놓다.



경기도 안양시 이○○ (52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저는 대학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한 후, 국가공무원(기술직)으로 임용되어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상공부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지내는 30여년 동안, 주로 제 전공 분야인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산업, 지역연고 산업 지원, 무역·통상·투자·중소기업 및 산업분야 정책 수립과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0년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 후, 공공기관인 ○○관리원 경영상무로 재직하여 국내 석유시장 안정과 유사석유 근절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에 임기 종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그 후 대외협력사업과 R&D사업을 2015년까지 담당하였습니다.

Q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공무원 재직 시 국내 섬유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및 업체로의 취업제한 조치로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나, 기관에 재취업하기에는 제약요건이 많아 동 분야로의 재취업은 거의 포기하고, 제 능력껏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재취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퇴사 전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30여 년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생활을 즐겁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과 희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Q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A 연로하신 장모님을 비롯하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요양보호사 지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보람찬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상 어르신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서로 대화하며 그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을 비교적 좋아하여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일찍 작고하신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에 종사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팔다리가 되고 말동무가 됨으로써, 저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Q 재취업을 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다행히 공무원연금 덕에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다소 젊은 나이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족들 보기에 미안하고, 스스로 무능하다는 생각에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취업을 해보아겠다는 다급한 생각에 여러 분야에서 구직 활동을 해 보았으나, 60대 중반의 나이로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 외에 전문적인 직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무엇보다 나를 채용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자신 있게 일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재취업을 하기까지 도움 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변 지인의 소개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관리를 수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의 지원으로 취업지원 성실프로그램을 수료(2017. 6월) 하면서 직장 내 인간관계와 소통, 매너, 직장적응, 감정 다스리기, 대화법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60대 후반이 되어도 보람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이수(2017. 09월, 11.01월) 한 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직책은 무엇인가요?

A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은 안양고용복지+센터의 고용지원관과 구인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롱라이프 그린케어”로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을 도와 드리는 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송영(운전 등) 업무와 주 1~2회 조회와 치매예방체조, 주 1회 노래교실 운영, 인지활동 및 사회적응 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Q 현 직업에서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타 직업군에서는 나이 제한으로 취업이 곤란함에도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도와드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사무적인 일만 했던 제가 과연 얼마나 근무할 수 있을까 우려도 되었지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도와드리는 어르신들도 저를 자식같이 생각하시고 좋아해 주셔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좋아서 하는 일인 만큼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현 직장엔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단지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인 만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Q 재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올 때의 아쉬움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생각을 접고 재취업하고자 하는 일에 만족하고 성실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조기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6

배우고 익히니 즐겁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

세상 탓, 남 탓, 나이 탓을 하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다시 재정비하여 2막 아니면 3막의 여정을 시작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일 수도 있다. 그 여정을 위해서는 ‘배우고 익힘’, 즉 ‘학습’이 필수적인데,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신중년이 가진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방법, 새로운 길의 종류, 그리고 연착륙을 위한 적합하고 효율적인 세 가지 실행방법을 알아본다.

”



1·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답해야 할 것들

(1) 내가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

다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중년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는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희망하는 미래의 상황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개선해야 할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희망하는 미래의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빼보면 ‘차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개선해야 할 내용이다. 바꾸어 말하면, 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이다. 이 개선 내용은 대부분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KSA : Knowledge, Skill, Attitude)라는 세 가지 범주에 속한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고, 배움을 통해서 인생 2~3막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배우고 익히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배우고 익히는 것의 즐거움을 아는가? 배우고 익혀서 사전 준비를 한다는 생각은 꿈을 키워 주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 삶의 여정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효과도 낳는다. 더불어 그들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에 대한 정보도 매우 소중하다. 따라서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 각종 지원센터 방문

앞서 자신의 문제를 식별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은 고용 복지플러스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그리고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센터 등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50플러스재단을 두면서 다수의 50플러스센터와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신중년들의 인생 2~3막을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50플러스재단을 벤치마킹한 유사 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들을 방문하거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목적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민간기업 퇴직자들의 경우, 기업에서 실시하는 경력개발 교육, 각종 퇴직지원 교육 등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훈련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희망퇴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전직지원 서비스를 통해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필자의 현장 경험에 의하면, 사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참여만 한다면 자신의 새로운 길 설정에 매우 유익하다. 여러 재취업지원사업, 전직지원사업을 경험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수료자가 미수료자들의 희망 진로 안착률이 두 배 가량 높았다.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 배우고 익혀보자.

다. 교육훈련 상담

각종 센터 방문이나 프로그램 참여 시, 배우고 익히기 위한 교육훈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주제는 재취업 등을 위한 역량 향상이며, 필요시 생애경력 설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잡을 수 있다. 대상은 실업자, 경력 전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담의 목적은 교육훈련 선택과 이수, 그리고 희망하는 곳으로의 진출이며, 통상적으로 단기 상담을 1~2회 실시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이다. 물론 재취업 및 교육훈련 상담을 받아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재취업 및 각종 교육훈련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과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가 있다. 이런 사이트에서 과점명 등을 입력하면 운영 기관이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직업훈련과정의 세부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

2. 새로운 길 찾기

(1) 일자리 VS 일거리

우선 일자리와 일거리의 개념부터 확립해야만 한다. 일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업으로서 경력을 부여해 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지속성을 지닌다. 일거리는 경제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경험을 부여해 주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지속성이 없고 기회로 보면 된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규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등을 일거리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신중년들은 인생 1막에서 꿈의 직업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꿈의 직업은 삶을 영위해나가면서 부양의 의무까지 다하도록 해주었고, 동시에 대부분 고용의 안정성을 부여해 준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생 2~3막에서 인생 1막과 같은 꿈의 일자리에서 다시 일할 수 있을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기회를 잡기는 힘들다. 또한, 그 극소수도 장기간 그 일자리에 머물기 힘들다. 그래서 인생 1막에서 경험하였던 일자리의 개념이 아닌 일거리의 개념으로 바꾸어 인생 2~3막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여러 갈래의 새로운 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길의 종류를 크게 여덟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 대부분의 신중년들은 통상적으로 재취업 혹은 창업을 먼저 고려하지만 ‘신중년 경력개발 유형 8가지’를 통해서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고, 후반 삶에서의 연착륙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가 인생 1막에서 해보고 싶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못 했던 일도 찾을 수 있다.

| 그림 18 | 신중년 경력개발 유형 8가지



가. 귀농

귀농은 말 그대로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농업 세계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귀농이라고 하면 우선 지역사회와의 사전 화합이나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 이유는 귀농 실패 사례의 다수가 적응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귀농을 할 때 필수적으로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귀농은 농사를 짓는 것이지만 창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창업과 마찬가지로 귀농의 경우에도 먼저 ‘무엇을 경작할

1) 한국고용정보원 사무직베이비부머 퇴직설계 프로그램 참조

것인지?’, ‘무엇을 나의 상품으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이는 창업에서의 사업 아이템과 같은 의미이다. 더불어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경로를 사전에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아이템 + 판매 경로’를 사전에 고려하고 구축해야만 하는 등 창업 마인드로 귀농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다수의 실패 사례는 그냥 농촌 생활을 동경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종합센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 등에서 귀농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나. 사회공헌

사회공헌형 일거리로서 인생 2~3막에서 자신이 가진 여러가지 역량을 발휘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로 환원하는 일거리를 뜻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봉사형으로 볼 수 있으나, 순수 봉사형과 달리 일부 실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많다. 신중년들의 경우에는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누릴 수 있고,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정신적 건강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공헌을 ‘징검다리 일거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사회공헌 일거리에서는 대부분 전문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자리, 일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공헌이 사회공헌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전문성도 향상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이점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각종 지자체에서 위탁한 사업기관 등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있다.

다. 재취업

신중년에게 재취업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재취업의 경우도 4가지로 구분해본다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동종산업/동일직무, 동종산업/다른직무, 다른산업/동일직무, 다른산업/다른직무로 나눌 수 있다.

| 표 13 | 재취업 유형

동종산업 - 동일직무	다른산업 - 동일직무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서 재취업이 쉽지 않다.	모든 산업에서 유지하는 공통직무의 경우로서 다른 산업으로 가서도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예 : 인사총무, 회계, 교육 등 모든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동종산업 - 다른직무	다른산업 - 다른직무
기존산업에서의 경력을 통해서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는 있다.(예 : 교육이나 컨설팅 등)	전격적인 생각의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직무가 많아지는데, 그런 곳에서 일자리, 일거리를 찾는 방법 이다.

라. 외주창업

대부분의 기업들은 핵심 업무 이외의 업무를 비용 절감, 유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일부 업무로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년 자신이 기존에 근무하던 기업이나 유사기업으로부터 비핵심 업무를 외주** 받을 수 있다. 보통 물품조달, 인사총무업무 중 보수 지급 등의 회계업무나 일부 교육업무, 전산업무 그리고 청소용역이나 식당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미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숙달되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다면 업무 수행이 쉬울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역시 기회를 찾기가 만만하지는 않다.

마. 1인 지식기업

1인 지식기업은 자신의 직무 전문성, 취미, 그리고 관심 주제 등을 지식서비스와 지식상품의 형태로 전환하여 기업, 개인, 단체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지식서비스의 형태는 강의, 컨설팅 등이며, 지식상품의 경우는 콘텐츠를 담은 여러가지 형태의 상품을 말한다. 최초 창업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 고수익도 보장해 준다. 반면 일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에의 소속감이 그리울 경우도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성을 축적하기 이전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규칙한 수입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전의 고정된 일자리보다는 자신이 그 일자리, 일거리를 직접 운영하는 즐거움이 숨어있다. 1인 지식기업은 아래에 설명되는 전문계약직, 전문가 창업, 그리고 창직의 형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가진다.

바. 전문계약직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연간 평균 업무량에 기초하여 직원 수를 유지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의 창출이나 수주 시에 추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때 기업에서는 단기간 같이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게 된다. 기업은 채용의 부담을 덜고, 전문가는 또 다른 수입을 올리면서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일거리 형태이다. 대부분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들은 특정 프로젝트 수행업무에 투입된다. 현재 선진국에서 다수 운용되는 깃 워커(gig worker)가 이와

같은 경우이다. 계약에 따라서 전일 근무, 혹은 요일 근무제,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일 근무가 아닐 때 전문가는 또 다른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형태이다.

사. 전문가 창업

이는 여러 명의 동종 혹은 이종 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공동 브랜드를 구성하여 소규모 일반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일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고, 지원 사업도 많이 펼쳐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이나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역시 구성원들의 전문성들을 융합하여 공동 브랜드를 통해 기업, 개인, 단체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미래의 일자리, 일거리는 각자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개인적인 일을 할 수도 있으나, 필요시 이와 같은 협업에 기초하여 유연성을 가지는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다.

아. 창직

말 그대로 자신이 일자리,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중년들은 창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데, **기존에 없는 직업을 창출하거나, 기존에 있는 직업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자신이 최초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각 정리 전문가’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여러가지 산만한 방안들을 정리하는 기법을 제공하는 형태의 창직이었으며, ‘화분 임대업’의 경우 운전기사와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협업하여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등에서 미화를 목적으로 배치하는 화분 등을 관리 및 교체해 주면서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형태이다. 자신이 직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은가? 이 역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3. 배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는 효율적인 방법 세가지

(1) 인적 네트워킹을 풀가동한다

신중년이 무언가를 도모하고자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인데 고연령, 전문성 부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혹은 전부 해결해 줄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입사서류로서 나를 대변할 수 없으면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네트워킹은 나를 추천해 줄 사람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직접 네트워킹과 추천 네트워킹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흡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력서에 바로 추천인과

그의 추천사를 넣은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일자리나 일거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추천인이 자신의 이름을 거는 만큼 믿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추천인이 없을 때는 자신이 지닌 가용자산을 잘 식별하는 가운데 직접 네트워킹을 통해서 길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2) 제안서를 작성해본다

이는 자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발견하였을 때 자신의 전문성을 그들의 요구와 맞추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의 확장이나 신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경우 사내에서 전문가를 찾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획득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관해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안서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시해야만 한다. 신중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원서로는 경쟁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채용 측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개념으로 수행할 직무와 관련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기업이 바라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신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 주거나, 수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업이 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선진국의 HR 전문가들이 90여 년 전부터 매우 강조하였던 방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제안서 작성이 취업스킬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3) 나만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만들어 계속 시험한다

배우고 익히는 삶은 즐거울 수도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완벽한 준비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칫 고뇌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같이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미리 담금질해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런 고뇌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좋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무언가를 저질러보는 것이다. 물론 위험부담이 큰 선택을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현장을 파악하고, 경험을 통해 자신의 방향도 잘 조정해나갈 수 있다. 현재 상황과 원하는 미래 상황과의 차이를 잘 파악하여,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현장에서 담금질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발전시켜 보자. 그런 담금질의 과정을 계속해나가면 어느덧 목표하는 바, 원하는 바가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교육 및 훈련분야(1)

신중년(5060) 재취업 도전기 Q&A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서울특별시 이○○ (62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저는 ○○전자에서 29년 동안 국내 영업·마케팅 업무를 전담하였고, 2016년에 부장으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Q 재취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 후 과거의 경력만으로는 전직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장을 원해도 나이로 인한 제약, 과거의 대기업 경력에 대한 거부감 등이 취업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취업을 하기 위해 퇴사 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격증 취득(경영지도사, 유통관리사)을 알아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Q 퇴사 전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아무런 준비 없이 퇴사를 맞이하게 되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절망감, 막막함 등으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 부터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그들의 시선에 노심초사했습니다.

Q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A 퇴사 5개월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으나 2주라는 짧은 기간에 그만두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양한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컨설팅에 필요한 NCS, 멘토양성과정, 전직지원전문가과정, 강사 및 저술 활동을 위한 책 쓰기, 퍼실리테이션 교육 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다양한 교육, 훈련이 프리랜서 활동의 밑바탕이 되었고, 현재는 컨설팅, 강사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재취업을 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저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험 재설계를 통한 통폐합, 신용카드 사용중지(외상 없애기), 채무 상환으로 이자지출 없애기, 경조사 선별 및 계획 지출 등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였습니다. 퇴직 전 가족회의를 통해 이해를 구했고, 퇴직 후에는 적극적으로 가사 분담을 함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가족들과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이를 위해 4년째 매주 일요일 저녁은 가족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Q 재취업을 하기까지 도움 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고용복지+센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직지원전문가양성과정'을 수료하였고, 서울시 50+ 재단에서는 사회 적응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저렴하게 수강하여 네트워킹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경우, 전문 컨설턴트에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 기법과 노하우 전수받았으며, 폴리텍대학에서 요리와 목공 등 전문 기술교육을 받았습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직책은 무엇인가요?

A 자두컨설팅 대표(프리랜서)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 멘토, 전직지원컨설팅, 강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재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퇴직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설계했으면 합니다. 특히 퇴직이라는 변화 상황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삶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것이 100세 시대를 맞는 중년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데 중요합니다.





교육 및 훈련분야(2)

신중년(5060) 재취업 도전기 Q&A

오랜 기간 동안 탐색과 준비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홍○○ (58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금융단체에서 3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회원기업의 이익 대변 및 현안 개선을 위한 조사와 개선안 마련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고, 부서장 직책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만55세 나이가 도래하여 조직의 규칙에 따른 명예퇴직하였습니다.

Q 재취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인생 1막에서 담당했던 업무보다 나에게 더 맞는 분야에서의 활동을 희망하였고, 커리어 컨설팅 분야에서의 근무가 그럴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직무로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50세의 나이에 야간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담심리학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MBTI 등 각종의 심리진단도구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Q 퇴사 전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새로운 활동분야(커리어 분야)의 현실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또 늦은 나이에 진입이 과연 가능한지 우려되어 자신감이 저하되기도 하였습니다.

Q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A 재취업을 하기까지 준비단계 1년과 중간 활동기간 1년 6개월이 걸려, 총 3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준비한 것이 재취업을 성공하게 하는 요인이었던 것 같고, 그중에서도 전직지원컨설턴트 과정과 생애설계 과정 및 직업상담사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재취업을 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퇴직 전의 씬 씬이를 기준으로 지출을 50% 정도 줄이고 입직을 위한 정보수집 및 네트워킹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Q 재취업을 하기까지 도움 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서울시 뉴딜일자리의 취업지원관 활동(18개월)시 커리어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의 학습이 도움이 컸습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직책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커리어 분야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학원에서 직업상담사 교과목 강의를 맡아 교수하고 있으며, 신용관련 공직유관 단체에서 채무조정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인생 2막(5060) 세대 생애 컨설턴트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Q 현 직업에서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프리랜서 활동이므로 시간 제약이 없다는 점은 만족스럽습니다만, 정규직이 아니므로 소속이 불안정한 것이 아쉽습니다.

Q 재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정규입직이든 프리랜서 활동이든 적어도 퇴직 전 3~5년 전에 인생 1막을 먼저 재평가하고 자기의 적성, 가치, 흥미를 고려한 인생 2막에서 활동할 분야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퇴직 전 자신이 맡았던 전반적인 직무에 대하여, 일의 내용, 본인의 강점, 추진 과정 그리고 결과 등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면 인생 2막의 진로설정 시 참고가 되면서 자기소개서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신중년의 도전



“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핫(hot)한 화두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보는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되어 기술발전의 속도와 영향의 범위가 매우 넓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괴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중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에 둘러싸여 있어,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 즐거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한다.

”



1·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자

일자리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하급수적 기술 진보’, ‘융복합과 불확실성’, ‘무경계화와 초연결 사회’의 3가지로 정리된다.²⁾

일자리 관련 4차 산업혁명 특징	내용
기하급수적 기술 진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보가 인간의 속도, 능력 등 생산능력을 넘어서면 생산 기반의 산업현장에서 인간의 일자리는 없어지거나 대체될 것
융복합과 불확실성	4차 산업혁명은 기술 또는 산업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 이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의 등장이 촉진될 것
무경계화와 초연결 사회	초고속 무선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기계와 상품, 사람이 데이터와 연결되어 자율성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보에 따른 일하는 방식과 환경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바로 세 번째인, ‘무경계화와 초연결 사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술발전은 인간의 일하는 방식에 점진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산업화, 전산화, 디지털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계, PC, 인터넷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능화시대 인공지능과 근로자와의 협업은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긴다. 현재도 온라인 근무 형태(모바일 근무, 원격근무)가 다양한 직종에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평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비용이 현저히 낮아지고 근로자의 실제 이동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데이터에 접속하여 협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 체계의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이다. 기업은 외부자원(생산시설, 인력)을 저렴하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아웃소싱 및 프로젝트 조직이 증가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고용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온 디맨드 서비스(services on demand)의 확산으로 플랫폼 근로자가 증가 예상되며, O2O(Online to Office) 서비스와 P2P(Peer to Peer)거래의 확산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면서 개인이 공급자로서 시장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2) 한국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 변화’

특히, 플랫폼 근로자나 프리랜서(크몽, 휴넷, 탤런트뱅크, 아웃소싱 플랫폼) 또는 프로슈머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보에 따른 일하는 방식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인 신중년은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무조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보다는 현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일자리 변화의 핵심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관리 및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더불어 평생 교육이라는 자기 계발에 적극 동참하여 신기술과 신직업의 흐름에 순응하여야 하겠다. 산업계에서 디지털 전환기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 재교육을 하듯이, 신중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로 하다.

2. 신중년에게도 기회는 있다

신중년도 4차 산업혁명의 틈새를 알고 나면, 인생 3모작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 등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일자리 또한,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는 어디에서 기인되는가? 단연 인공지능(AI)을 꼽힌다. 현재 세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AI 기술이 융합되면서 AI와 관련된 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플랫폼(platform)이라는 말은 원래 기차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평평한 곳이라는 의미이나, 이제는 다양한 I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치를 만드는 생산자와 그 가치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만나고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플랫폼으로는 우버, 에어비앤비, 이베이, 타오바오, 쿠팡, 티몬, 알리페이,페이팔, 렌팅클럽, 페이스북, 카카오톡, 스카이프, 리눅스, 유튜브, 킨들, 네이버 등이 있다. 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이며, 앞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다.

플랫폼 중에서 특히, 재능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가 바로 전문 프리랜서이다. 재능마켓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주로 디자인, IT 개발, 번역 등 디지털 노마드형 업무 종사자이다. 미국의 프리랜서는 노동자의 35% 정도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및 성장하고 있다.

각 이코노미³⁾ 경제 개념의 프리랜서 시장은 수요자와 매칭을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추세에 따라 한국에서도 프리랜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플랫폼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공유하고 있다.

생산 자동화에 의한 효율성 개선에 따라 직접고용보다는 분야별 전문가가 등록된 플랫폼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감으로써 향후 플랫폼 노동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한시적으로 사람을 구해 일을 맡기고, 일을 처리한 후 관계를 정리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보면 전문분야에 재능을 공유하고, 조직에 종속되지 않아서 자유롭다. 원하는 일을 적정한 시간과 일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만족감이 클 수 있다. 신인력서비스 확산과 재능 마켓 플랫폼의 지속적인 서비스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면,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⁴⁾

| 표 14 | 프리랜서 재능마켓 플랫폼 예시

플랫폼	내용	비고
크몽 (Kmong)	분야별 전문가와 고객 매칭 플랫폼 국내 최초 프리랜서 마켓, 서비스중개업체	프리랜서 마켓 1위, 전문가 16만명, 63만명 이용 온라인 마켓
탈런트뱅크 (talentbank)	기업고객을 위한 전문 매칭 플랫폼 (인력,지식을 사회적, 기업, 시니어니즈 매칭)	(주)휴넷, 18년7월 창립, 1천명의 시니어전문가로 400건 체결
숨고 (soomgo)	레슨, 홈/리빙, 디자인, 건강, 알바 등 매칭 (숨고 = 숨은 고수)	180만 누적 접수, 700 가지 서비스 고수 26만명 등록, 125억 투자유치
탈잉 (taling)	재능 강의 진행 (배우고 싶은 분야 매칭) (탈잉 = 탈출 잉여시간)	15년 7월 창립, 1,213건 진행 211개 등록 수업 수
리브릿지 (Libridge)	글로벌 재능공유 플랫폼(원격 근무 등), (대한민국 유일 글로벌 재능 활동무대)	등록회원 8천명, 해외 회원 1천명, 해외시장 진출 타겟
기타 재능마켓 플랫폼	프립, 바꾸, 비비하우스, 넷뱅, 디자인몽, 위드몬, 워크몬, 오투잡, 스터디 파이 등	분야별 다양한 매칭 플랫폼

* 출처 : 재능마켓 플랫폼 및 자체 내, 외 자료 참고

3) 각 이코노미(Gig Economy)란, 스마트폰 앱이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능을 주고 대가를 받는 일을 말함.

4) 이보람, 조재경(2018), [재능마켓 플랫폼의 판매자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한국기초조형학회

인생 3막을 위한 신중년의 재도전



Chapter

III



신중년, 인생 중반부에 꿈을 펼쳐라

08 창업 문 두드리기

09 기술창업(스타트업) 알아보기

10 창직, 내 일 만들기

11 사회적기업 살펴보기

12 이웃처럼 가까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살펴보기

13 사회공헌일자리 살펴보기



1. 창업 제대로 알고 가자

창업 관련 제도나 지원 기관은 다양하다. 그러나 신중년 창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신중년에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 창업 관련 정보처 |

- 1 www.k-startup.go.kr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를 위한 교육, 정책자금 등 종합 정보
- 2 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창업에 관한 정보 및 지원정책
- 3 www.kised.or.kr (창업진흥원) : 기술창업 분야 관련 정보

| 주요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지원기관 |

- 1 www.50plus.or.kr (50플러스재단, 서울시)
- 2 www.gbsa.or.kr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창업 관련 지원 기관을 다양하게 운영 중

신중년 창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기술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나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사고의 전환을 통해 창업한 사례들로 어려움 속에서도 반짝이는 사고의 전환이 만들어낸 성과들을 눈여겨보자.

사례 소개

▶ 사는 곳을 바꿔 창업하기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A씨는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강화도로 이사를 하였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면서 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부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A씨의 경우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부인과 이후 계획을 의논해왔다. 부인도 커피를 내리는 법이라든지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준비를 했다. 퇴직 1년 전쯤 강화도에서 식당을 하던 2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현재는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2층은 가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아내의 도움이 컸고, 카페도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좋은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홀 서빙과 건물 주변 환경 관리 그리고 텃밭 가꾸기를 하고 아내는 카페 주방을 담당한다. 돈보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A씨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례 소개

▶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이 최고!

대기업을 명예퇴직한 B씨는 재직 시절 회사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들으면서 크린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교육 중간에 관심 분야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3년이 흐른 뒤, B씨로부터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는 아주 밝았다. 지금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계단 청소를 하고 있다면서 즐겁게 이야기한다. 비록 그 일이 보잘 것 없을지 모르지만 남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

B씨가 청소업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아내였다. 아내의 반대는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하기에 납득이 가는 면이 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열정을 이길 수는 없다. 결국엔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이런 업종의 경우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배우면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B씨가 재미를 느끼며 일을 하다 보니 사업도 성장하여 3년이 지난 지금은 수입도 안정적이다. 물론 나이 들어서 남의 건물 청소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사실이 본 사례의 교훈이다.

사례 소개

▶ 창업 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기

K씨는 36년간의 경찰공무원 퇴임식을 마친 바로 다음 날부터 블루베리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퇴직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다. 공무원 연금도 나오는데 그 돈으로 살면 되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리던 이들도 있었지만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일이 주는 행복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퇴직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K씨는 퇴직 후 고향에서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퇴직 5년 전부터 고향 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이곳에서 잘되는 농작물에 대한 의견을 물어 블루베리로 정했다. 700여 평 규모의 밭을 임대받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농장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어 가꾸기 시작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K씨는 덕분에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다.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지금은 친환경농장으로 인정받고 고정 고객도 있어 해마다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직장 동료들에게 당당히 자신이 농사지은 블루베리를 홍보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인다. 농작물의 특성상 하절기 3개월간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동절기에는 여행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평소 습관이나 생각 그리고 환경에 변화를 주면 새로운 일과 행복이 보이기 시작한다. 신중년 세대들에게 선뜻 응하기 어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다. 창업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실패가 두렵지 않다. 창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공에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창업이란 무엇인가?

창업은 자기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쉽고 빨리 돈을 벌 생각으로 창업에 접근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은 자칫 창업에 대한 본질을 왜곡시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창업을 통해 돈도 벌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의 반복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창업이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저 어떻게 하면 실패를 거치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뿐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더라도 스스로가 일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가치있는 일이다.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이유로 창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창업의 시작이다.**

(2) 왜 창업을 생각해야 하는가?

사회구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면 지금처럼 창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신중년 세대들은 20,30년 전 입사 때부터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일터에 쏟아부었다.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퇴직 후 또다시 20, 30년을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흔히 돈만 있으면 노후를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일을 하는 것”이다.**

양복 재단사 일을 수 십 년간 해오던 70대 김 모씨는 기성복의 등장으로 한 때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기도 했다. 수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의류 수선업이 다시 부활하여 지금은 아주 즐겁게 자신이 하던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남을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신중년이 창업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인생의 황혼기를 돈을 쓰면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느라 돈 쓸 시간조차 없게 맞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창업이다.

(3) 창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 왜 창업을 했는지 물으면 대부분 답은 비슷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까?” 라고 재질문을 하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 왜 창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저 창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이다.

창업은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다.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를 정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창업을 하면 이후 겪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만의 튼튼한 일자리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돈이 목적이 되면 쉽게 그만

두게 된다. 그래서 창업시장에서는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속설이 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4) 창업의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

창업에는 4가지 기본 요소가 있으며 창업자, 아이템, 창업자금, 상권이 이에 해당된다. 이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요소 간 필요충분조건이 맞는 창업이 바람직하다. 즉, 창업자에게 맞는 아이템과 아이템에 맞는 상권 그리고 그 상권에 입점 가능한 창업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업자다. 나머지 요소가 완벽하더라도 창업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창업자가 확실하면 나머지 요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

| 그림 19 | 창업의 4가지 기본요소



가. 자신을 알면 절반은 성공한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다.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대부분 ‘하면 되지 뭐’, ‘돈 버는 일인데,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간과 돈이 문제다. **창업자는 ‘자신이 창업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영업 시작 1개월 만에 점포 운영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창업자 자신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데서 오는 현상이다. 창업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창업자 자신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창업에 맞는 인간형으로 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나. 내 몸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라.

아이템은 창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무엇을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업종을 말한다. 이는 창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보통 아이템을 결정할 때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창업자와의 적합성이다.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아이템을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창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잘되는 업종에 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된 동기를 조사해보면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 후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가진 적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그저 ‘남이 해서 잘 된다’고 하니깐 ‘나도 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업종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창업자가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업종, 이것이 바로 나의 유망 아이템이다. **나의 유망 창업 아이템은 바로 ‘창업자 스스로가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다. 상권이 반이다.

점포 창업에서 상권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창업자들은 A급 상권에서 시작을 하려 한다. 그러나 A급 상권의 점포는 임대비용도 비싸고 권리금도 엄청나다. 이런 상권은 권리금만 1억이 넘는 곳이 많다. 창업자금이 부족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상권에서 장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상권은 크게 역세권, 대학가 상권, 오피스 상권, 아파트 상권, 주거 밀집 상권, 복합 상권 등으로 나눈다. 상권이 좋다고 해서 어떤 상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상권에서도 입지 즉 점포의 위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입지에 맞는 업종이 다 다르다. 이것을 찾는 것이 내게 맞는 상권을 고르고 점포를 선택하는 것이다. A급 상권이라 해서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C급 상권이라 해서 다 망하는 것도 아니다. **각 상권마다 점포 위치, 크기, 업종 그리고 투자자금 등의 요소를 따져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라. 창업자금을 마련하자.

창업에는 반드시 돈이 든다. 이러한 창업자금은 총투자비용의 70%를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자기 자본이라 함은 그 돈이 없어도 당장 사는데 지장이 없는 자산을 의미한다. 즉,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다. 자금 없이는 창업이 불가능하므로, **창업을 준비한다면 자금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자금이 부족하면 선택한 업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권, 점포 크기, 브랜드 선택 등에 있어 창업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족한 자금을無理하게 차입해서 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1억이 창업자금이면, 최소 7천만 원은 자기 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자금에는 반드시 예비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고비도 넘지 못해 성공 직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5) 창업의 시기를 기다려라.

❖ 창업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결론적으로 답하면 **창업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가 가장 좋은 때다.** 아이템 별로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 요구 수준을 해결한 상태를 가장 기본적인 창업 준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김밥 집을 창업 아이템으로 정했으면, 김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김밥의 경쟁력, 차별화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김밥 만들기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기본적인 준비가 된 다음에는 아이템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외형적으로 보면 성수기에 오픈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다고 해서 점포 운영에 대한 노하우까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성수기보다는 비수기에 창업을 하는 것이 점포 운영의 체계와 고객 관리 요령 등을 익히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창업자들은 성수기 직전에 오픈하기를 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창업과 동시에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포 운영 체계나 고객 서비스 등 전반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성수기란 이유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그 고객이 고정 고객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다. 더하여 비수기 매출 하락으로 인한 경영자의 심리적인 박탈감이 더 큰 손실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6) 신중년의 창업전략은 이것이다!

신중년은 앞으로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40년을 살아야 한다. 결코 행복하다고만 하기는 어렵다. 재취업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유로 창업시장에서는 신중년 창업이 관심사다. 재취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이 여의치 않고 설사 일자리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연장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창업시장 진입도 쉽지는 않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창업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신중년 창업을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패 확률만 높일 뿐이다. 신중년 창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업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신중년들의 ‘마인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신중년의 마인드 개선

① 먼저 창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흔히 창업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창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돈은 일을 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창업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돈을 버는 방법에만 집중하는 자세는 특히나 신중년 창업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신중년 창업은 자신의 일자리를 자신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랜 직장생활을 한 퇴직자가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 청년 창업의 경우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찾을 수 있지만 신중년에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창업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창업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반복된 연습을 통해 그 아이템을 즐겁게 실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② ‘나는 바보다’라는 생각을 갖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직장 생활에서 배운 지식이나 노하우는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신중년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창업형 인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체면과 위신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고집을 부리다가는 돈이 많이 들게 되고 창업에서 성공은 멀어진다. 돈보다 일을 생각하고 내가 진정하고 싶은 일이면 체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정한 배우는 관객이 없다고 무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신중년 창업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공을 하기 위한 댓가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생활의 규모도 줄이자.**

간혹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이용해 퇴직 이후에 그동안 못해본 것을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돈을 쓰는 사람을 보게 된다. 앞으로 30년 혹은 40년을 살아야 하고 수입의 규모도 그전에 비해 줄어든다. **지출의 규모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비용을 창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개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④ **올인은 금물이다**

도박장에서 마지막에 쓰는 승부수 중에 올인이 있다. **창업은 도박이 아니다.** 한 번에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기 확신에서 퇴직금을 올인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다.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설사 그런 것이 있다하더라도 나만 아는 게 아닌 다른 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다. 신중년 창업자들은 돈으로부터 유혹을 견뎌야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돈을 지켜낼 수 있다.

⑤ **창업은 감당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잘 안 될 경우 다시 도전을 해야 한다. 특히 자금 운용 계획 수립 시,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강하면 남들은 실패 하더라도 자신은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좋은 직장 그리고 높은 직급에 있던 신중년일수록 자기 생각만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 전에 반드시 자신의 창업계획을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⑥ **성공적인 창업은 열정을 요구한다.**

열정은 일단 관심에서 출발한다. 관심이 몰입을 낳고 몰입이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돈을 벌겠다고 관심도 없는 아이템을 사업화하면 금방 열정이 식는다.** 열정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려면 관심이 있는 것에 몰입해야 한다. 아이템은 어떤 것이든 시장에서 일정한 수준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완성도 있고, 수준에 맞는 기술 혹은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행과 반복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는 창업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지금까지 신중년 창업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중년 세대들은 연령적으로나 창업에 대한 준비 기간이나 경험 등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창업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자기 분석을 기반으로 ‘쉽게 빨리 보다는 어렵게 천천히’를 기억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 창업전략, 1·2·3·4·5 법칙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은퇴 후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에는 노후 생활 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돈을 모으는 직장인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돈보다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물론 은퇴 후 다시 직장에 들어가 7,8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결국 내 일자리는 내가 만들어야 하고 그 시작이 바로 창업이다.

신중년이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이름붙인 창업전략 ‘12345 법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첫째, 시작은 바로 1이다. ‘1=일’이라는 뜻이다. 남은 50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하고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에 돈이 우선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자
1·2·3·4·5 법칙



- 2 둘째, 1+1=2다. 일을 자꾸 하면 이로워진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2=利’다. 이로운 일을 해야 한다. 나에게도 이롭지만 먼저 남에게 이로운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다. 내게만 이로운 일은 오래가기 힘들다.
- 3 셋째,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나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그 일은 ‘3=삼’이다. 즉 삼삼할 것이다. 삼삼하다는 것은 재미가 있고 흥미를 느끼고 매력적이라는 말이다. 다음은 ‘4=死’다. 그 일을 하다가 눈감게 될 것이다. 사력을 다해서 일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5=OH/V’가 된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감탄해하며 결국엔 승리하는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한 말장난이라고 폄하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신중년 세대들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때 ‘12345법칙’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한 일 그리고 오랫동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는 일, 그런 일을 말이다.

50년을 산다고 가정해도 실제로 퇴직 후 33.8년(12,345일) 정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12345법칙’으로 우리는 내 일을 찾아야 한다.

2. 창업가 정신이 성공을 결정한다

(1)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더라도 어느 순간 일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일을 중시한다는 이유는 자신의 상품을 구매해주는 고객과의 신뢰를 생각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보자. 김밥 장사로 돈을 번 50대 부부가 김밥 장사를 정리하고 좋은 상권에서 점포를 키워서 막창전문점을 창업했다. 더 큰 규모로 창업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김밥집보다는 목 좋은 곳에서 막창이라는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모양새가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실패라는 시련을 겪게 된다.

김밥을 팔아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무엇이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 착각이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선택을 할 때 자신의 더 큰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지 여부는 창업가 신에서 비롯되는데, 창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우 자신의 부질없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단순히 돈을 좇다 보면 과욕 때문에 더 큰 손실의 결과를 초래하여 갖고 있던 돈마저 잃게 된다. 즉, ‘창업자’ 정신을 갖고 있는 자가 성공의 지속적인 유지나 단절이냐를 가름하는 요소임을 기억하자

(2)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버는 것이 창업이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제한된 시장과 자원으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한계 매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창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는 것이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한 번에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적은 수익이 모여서 큰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 창업이라 할 수 있다.

창업으로 성공한 경우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바로 장기 운영이다. 단기 운영을 통해 성공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 성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오래 버는 창업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창업은 지속성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도 많다.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할 가능성도 크고 자신의 판단 기준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래 버는 구조로 창업에 접근을 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창업 후 발생하는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준비된다.

3·내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라

(1) 아이템과 창업자의 관여도는 어떻게 연관될까?

창업자 관여도는 창업자가 선택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관여도에 따라 아이템의 선택이나 창업자의 창업전략은 달라진다. 아이템에 따라 창업자의 관여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창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가. 관여도가 높은 업종

창업자의 관여도가 높은 업종은 대부분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업종**을 말한다. 창업자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소자본 창업, 특히 독립창업 업종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밥집, 백반집 등의 음식점을 들 수가 있다.

나. 관여도가 중간인 업종

프랜차이즈 창업 형태 중에서 판매업이나 서비스 업종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일정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원자재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형태**는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의류판매점,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같은 대부분의 판매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 관여도가 낮은 업종

창업주가 점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이다. 독서실, 당구장, 노래방과 같은 **시설장치 업종**이 대표적이다. 관여도에 따라 창업 전략이나 창업자의 마음가짐, 창업자금, 상권, 운영전략 등에 큰 차이가 있다.

| 표 15 | 창업자 관여도에 따른 아이템 선택 - 핵심 Keyword

구분	핵심 Keyword	
관여도가 높은 업종	- 자기만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수 -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 상품 질이 다름 - 입지나 상권보다는 상품 자체가 경쟁력	- 1억 미만의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 - 상권과 입지 선정이 용이
관여도가 중간인 업종	- 상품의 품질보다는 판매기술에 따른 성과 차이 - 창업자는 운영에 역량을 집중	- 2억원 이상의 창업비용과 상대적으로 입지 중요 - 고객 응대나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성패 좌우
관여도가 낮은 업종	- 창업자의 역할이 없거나 아주 미미 - 경제적 여유가 있으나 직접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창업자에게 적합 - 창업자의 역량보다는 시설이나 장치의 수준에 따라 성패 결정	- 입지선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창업비용은 최소 3억 원 이상 - 점포 운영기간이 길어지면 점포 가치가 하락

(2) 업종의 이해와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보까요?

창업의 업종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 창업자가 한정된 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한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이 그것이다.

가. 외식업

먹고 마시는 모든 아이템을 서비스하는 업종이 여기에 속하며 크게 음식점, 주점, 그리고 외식 판매업으로 나눌 수가 있다.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창업을 시도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의 차이도 큰 영역에 해당한다. 이 분야의 시장이 넓고 접근이 쉽지만, 완벽한 사전 준비 없이 창업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 1단계

예를 들면 김밥 전문점을 생각해보자. 창업하기 전에 메뉴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제품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김밥을 완벽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매장 운영을 경험한 후 자신의 **창업 역량에 맞게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은 품질에 따라 고객의 구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충족해야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준비에 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간과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 2단계

아이템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주요 고객은 앞으로 진행되는 창업 과정의 방향이나 전략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보면 삼계탕 전문점으로 창업을 결정하고 주 고객을 20~30대 여성으로 정했다고 하면, 우선 입지는 20~30대 여성의 유동이 많은 곳이어야 한다. 제품의 품질이나, 양 그리고 가격 기타 점포 환경이나 서비스 등등 모든 부분이 주 고객을 대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초보 창업자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맛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다가 실패를 겪게 된다.

나. 판매업

이미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업종이 구분된다.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권과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 부담이 없어서 음식점에 비해 창업은 용이하다. 그러나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된다.

창업자는 판매하기로 결정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하며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판매가 용이**하다. 창업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관심이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아이템 선정에 있어 초보 창업자의 경우 판매가 쉬운 생활편의용품이나 구매빈도가 잦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아이템을 판다 하더라도 상품의 진열, 점포의 환경 그리고 운영자의 서비스 마인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은 깊이보다는 넓이가 중요하다.**

다. 서비스업

지식·기술 서비스업과 시설장치 업종으로 나뉜다. 전자라면 상품의 가치가 될 만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 큰돈을 벌기 보다는 오랜 시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서비스업의 장점이다.

수선업, 세탁업, 네일아트, 안경점, 자동차 수리업, 미용, 컨설팅, 전문강사, 상담, 코칭, 각종 수리업, 전기, 방수 등 다양하다. 업종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한 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장 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가 바로 창업의 핵심**이다. 상당한 시간과 경험을 통한 노하우 습득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아이тем이다.

시설장치 서비스업은 **창업자의 지식이나 노하우보다는 시설이나 장치의 상태가 고객의 선택 요건**이 된다. 이런 업종은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가가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구장, 노래방, 독서실, 사우나, PC방 등과 같은 업종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업종은 나중에 창업할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양도할 수 있으면 창업시기와 상관없이 양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업종선택 시 고려사항

업종선택은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창업자 자신을 기준으로 아이тем을 선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다음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 시대 흐름에 맞는 업종이 좋다.

선택한 업종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을 때에는 적절히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시대 흐름에 맞는지는 소비 트렌드나 성향 등을 통해 판단한다.

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동시에 따져야 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수익성 높은 업종이 유리하다. 수익성이 좋을지라도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선택을 유보해야 한다. 성장성의 경우 아이тем의 대중성과 역사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창업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면 답이 나온다. 원재료 공급이나 상품 공급의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더라도, 수익성이 약한 아이тем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업종이 유리하다.

업종마다 요구되는 운영자의 성격이 있다. 대부분 창업자는 이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데, 창업 자체를 쉽게 생각하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의 성격과 업종의 연관성을 무시하게 되면 성공 여부를 떠나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창업자와 아이템의 관여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된다.

라. 창업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 좋다.

창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관련업종 종사경험이다. 실제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성공 확률이 높다.

관련 아이템의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업소 창업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가장 좋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창업 전에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업종으로 충분한 경험을 쌓아 보는 것이 최선이다.



마. 자금조달 범위 안의 업종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창업자금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규모를 조절해야지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는 것은 성공을 보장받기 어렵다.



바. 유행아이템보다는 유망아이템이 좋다.

유망하거나 유행하는 아이템은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필요하다. 해마다 유행처럼 브랜드가 등장하지만

이듬해 그 기세가 꺾이는 경우가 많다. 한해 돈을 벌고 그다음 해부터 심각한 경영문제로 골치 아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보창업자의 경우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남들이 다 포기한 아이템이라도 창업자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유망한 아이템이다. 결국 유망아이템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 자신과 연관지어 판단해야 한다.

(4) 연령별로 적합한 아이템

아이템을 선정할 때 창업자의 연령과 주 고객층의 연령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차이가 많을 경우 창업자뿐만 아니라 고객도 불편하다. 일반적으로 창업자 자신의 연령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연령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대 창업자가 60대를 주 고객으로 하는 경우, 운영자와 고객 간의 생각의 차이가 커 서비스 점점 수준을 찾기 어렵다. 운영자보다는 오히려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생긴다. 창업자가 젊은 층일 경우는 수용 가능한 연령층이 넓을지라도 주요 고객층을 창업자와 비슷한 연령층으로 형성하지 못한 경우 장기적인 운영에 있어 무리가 따른다. **일반적으로 창업자 자신의 연령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연령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장년층이 관여도가 낮은 업종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설장치 사업의 경우 초보자도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있어 장벽이 낮아서 편의점과 같은 단순 판매업의 경우도 큰 무리가 없다.



중장년층에게 창업연령은 중요하다. 청년 창업의 경우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고 사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갈 수가 있다. 반면 중장년층은 현실적으로 창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적합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자기 연령으로 소화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4·내게 맞는 창업방법을 알아보자

창업방법은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독립창업

독립창업은 창업자가 하고 싶은 대로 창업을 하는 것으로 창업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지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초보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택한다.

(2) 프랜차이즈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본부 선택이 성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가맹본부의 규모나 브랜드 이미지 등등 외형적인 요소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확인이 필요한 3가지가 있다.

가. 가맹점 모집 경로를 확인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 확장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단기간에 다수의 가맹점을 확보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때로는 리스크를 안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한다. 무분별한 확산 전략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본사의 운영비용 확보인데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의 성공이 중요하게 지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직영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경우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할 때 살펴보아야 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가맹점 모집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이다. 다시 말해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본사가 얼마의 비용을 쓰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본사가 가맹점 모집에 비용을 많이 쓸 경우 가맹점을 유지관리 하는 데 사용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장기적으로 보면 본사의 지원이 감소하게 되어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수익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나. 매출대비 수익성을 분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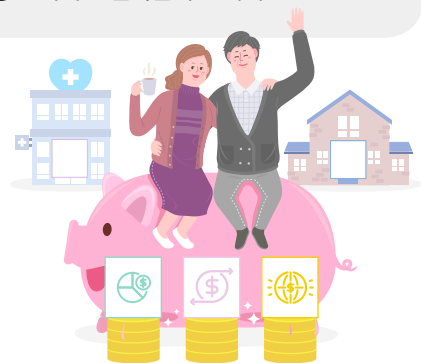
매출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성이 저조하면 가맹점은 본사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업종에 따라 적정 수익률은 다르지만 브랜드별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익성이 아무리 좋아도 매출이 부족하면 곤란하다. 이런 경우는 선택 자체를 하지 않겠지만 매출이 좋은 경우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매출이 높으면 수익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다. 투자대비 수익성을 확인하라.

매출과 수익성이 좋더라도 투자비용이 많이 들 경우도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은 월 3%, 투자비용 회수 기간은 3년 이내가 적정하다. 이보다 짧을수록 유리하다. 창업 아이템에 따라 적정한 투자비용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가맹점 모집에 드는 비용이 적은 브랜드 그리고 매출 대비 수익률과 투자 대비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에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양도양수가 많은 브랜드는 가맹점 모집 경로나 브랜드 이미지 등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매출 대비 수익성이나 투자 대비 수익률 부분에서 가맹점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모집 경로를 살피지 않더라도 매출 대비 수익성과 투자 대비 수익률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도 이름 있는 브랜드를 무조건 신뢰하는 관행은 버리고 실속을 우선하자.





창업(1)

신중년(5060) 새 출발을 위한 도전기 Q&A

창업, 가족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인천광역시 강화도 류○○ (58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1978년 체신공무원(전화국)으로 시작하였으며 전화국에서는 선로시설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1981년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환되고 2002년 ○○로 민영화되어 선로시설 업무에서 영업(마케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만 60세 정년퇴직하였습니다.

Q 창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에서 영업(마케팅)을 담당을 하며, 퇴직 2~3년 전부터 제 2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영업은 핸드폰, 전용회선 등과 관련된 것으로 통신 대리점을 제외하곤 창업할만한 아이템이 적어 경력 활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더구나 통신 대리점은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내가 10여 년 전부터 취미생활로 커피에 관심을 가지며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고 제과 제빵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아내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함께 하였고, 아내가 취미지만 상당 수준의 커피의 맛과 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살려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자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운영 지역을 설정하고 품목 설정, 인테리어 콘셉트 구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Q 퇴사 전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처음 카페 창업 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생소하여 제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카페 창업을 한다고 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규모를 꼼꼼히 계산해야 했고, 투자 규모도 지출 가능한 자원 상태와 예비비 등도 고려하여 결정해야만 해서 더욱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아내와의 의견 충돌도 자주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딱히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잘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욕심부리지 말자, 젊어서도 못 번 돈인데 나이 먹어 무슨 떼부자라도 되겠냐는 생각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면서 차츰 고객층을 확보하면 좋아지지 않겠냐는 희망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Q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A 퇴사 1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강화도의 여러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자본금이 많지 않아 주거 가능한 카페로 매물을 검토하여 퇴직 후 카페 운영할 건물로 이사하였습니다. 개업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전문가가 시공할 부분과 본인이 직접 할 부분을 나눠서 시공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취미 생활을 적극 활용하였고 또한, 인테리어를 기존 인테리어 전문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조경을 하였습니다.

Q 창업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창업 후 1년간 휴일 없이 운영해왔지만 적자가 계속되어 품목 재설정과 영업시간 조정, 상품 가격 조정 등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1년간 사회 활동을 중지하기로 아내와 논의 후 기존 인간관계 모임을 연 1~2회로 줄였습니다. 관련 동우회, 모임에 불참 취지를 설명하는 등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Q 창업하기까지 도움 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회사 퇴직 전에 창업, 귀농, 귀촌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창업 교육(이타○○연구소)과 전직 교육을 이수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현 사업장에서 선생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아내와 잠시 휴직 중인 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본인은 카페 주변 정원 가꾸기, 꽃·돌담·휴게시설 정비를 하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Q 현 사업장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A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가족과 함께 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칭찬이 있을 때 만족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만 비용 부족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과 카페 뷰가 조금 아쉽습니다.

Q 창업을 준비하시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고 자신이 운영 가능한 재원에서 설계하기를 권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나 새롭게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어떤 창업이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잘 할 수 있다는 확신과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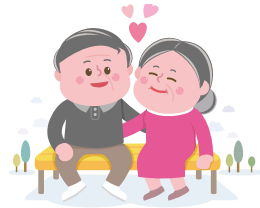




창업(2)

신중년(5060) 새 출발을 위한 도전기 Q&A

창업, 미리 준비하면 걱정 없어요!



대구광역시 서○○ (67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사로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지도를 위해 학교와의 협약을 맺고 노인들을 배치하는 등 노인 일자리 담당자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일하고 계약 만기로 퇴사하였습니다. 창업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Q 창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전업주부로 지내오다 나 자신의 발전과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뒤늦게 학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노후에도 꾸준히 일을 하기 위해 창업을 결심하였습니다.

Q 창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사회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업을 통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고 정보를 얻으며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노후에 대한 막연함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은 것이 수제 육포였습니다. 우선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시식과 함께 메뉴 개발 및 맛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 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의 신사업 아이템에 선정되어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창업 시 부족한 메뉴를 보완하기 위해 수제 양갱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하여 수제 육포와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위한 준비 기간은 3~4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준비하였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과 나만의 브랜드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퇴사 전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 불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또한, 수제 제품이어서 생산량이 한정되고 임금부담이 커서 매장 운영이 어려울 거라 생각되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창업 초기에 과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능력이 되는 만큼까지 행복하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Q 퇴사 후 창업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A 1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Q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A 취업 중에도 창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창업 준비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퇴사 후에는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신사업 아이템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준비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창업을 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주부로서의 역할, 학생의 역할, 창업을 위한 준비 등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므로 시간을 나누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어떤 일이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다른 일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이해와 배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 창업하기 까지 도움을 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소상공인 진흥공단(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실시한 대회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되어 창업 준비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성공 아이템 접촉 및 체험 점포 경험을 통해 직접 본인 사업 아이템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여 창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또한, 과정을 마치면 지원금이 주어져 창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 사업장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A 그동안 제가 들인 시간과 정성에 대해 매장 방문 고객분들이 느끼고 표현해줄 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시간 제약으로 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Q 창업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상황에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면 이러한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전달되므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술창업(스타트업) 알아보기



1. 들어가며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신중년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퇴직 후 새로운 삶에 진입해야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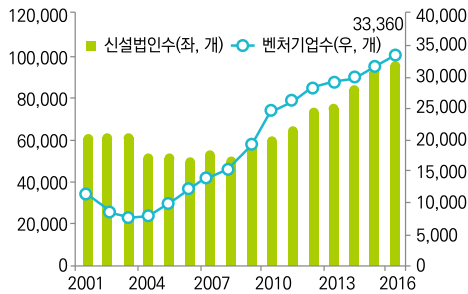
늘어나는 평균수명,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이제 신중년의 퇴직 이후 경제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국내 경제의 성장과 쇠퇴의 판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창업시장은 위기에 봉착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벤처기업 붐과 과거 IMF를 통한 경기침체의 극복 과정을 거치며 당시에 설립된 창업기업 중에는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창업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였으나, 경영애로를 극복하지 못한 창업기업들이 소멸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술창업 생태계의 활력이 저하되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국내 창업의 양적 지표에 해당하는 신설법인, 벤처기업 수는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기회추구형 창업과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비중은 창업 선진국들(평균 52.9%)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21.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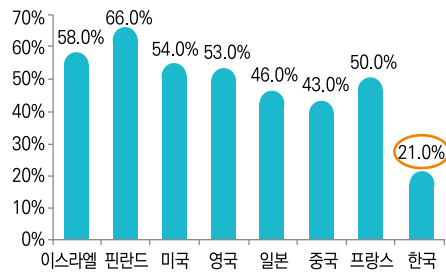
5)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관계부처합동, 2017)

| 그림 20 | 연도별 신설법인·벤처기업 수



★ 자료 : 통계청

| 그림 21 | 기획추구형 창업 비중



★ 자료 : OECD('14년)

- 연도별 신설법인·벤처기업 수 : 통계청(2017)
- 기획추구형 창업 비중 : OECD(2014)
- 이미지 출처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관계부처 합동 : 2017)

이는 우리의 창업 현실이 비자발적 창업, 다시 말해 생계형 창업으로의 쓸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신중년이 수십 년 동안 주된 일자리에서 쌓아온 그들의 기술력, 능력치와는 별개로 접근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은 개인의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다.

이번 장에서는 신중년이 고부가가치형 '기술창업'에 대해 이해하고 탄탄한 준비를 기반으로 조금 더 쉽게 창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2. 성공적으로 기술창업하기

(1) 기술창업⁶⁾이란 무엇인가?

본격적 가이드라인 제시 이전에, 우리가 흔히 일컫는 '창업'에 대해 다시금 정의하고 이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기술창업'이 창업 범주 안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6) 기술창업기초 ((사)한국창업보육협회, 2017), II-1. 기술창업의 정의는 (사)한국창업보육협회가 발간한 기술창업기초의 기술창업의 이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인용 및 참고하여 기술함

가. 창업(創業)의 정의와 분류 살펴보기

‘창업(創業)’은 사전적 정의로는 ‘기업(企業)’을 새로이 ‘만드는(創)’ 일로써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는 방법, 분야, 기업의 목적 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표 16 | 창업의 분류

구분	분류별 종류
창업 방법에 따른 분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 분야에 따른 분류	기술창업, 일반창업
기업 목적에 따른 분류	일반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이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촉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창업(광의로는 벤처창업을 포함)’이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앞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기회형 창업’, ‘혁신창업’과 ‘기술창업’이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기술창업’의 개념은 다음의 표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표 17 | 창업 분야(업종)에 따른 창업의 분류

구분	주요 내용
기술창업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벤처창업	High Risk—High Return에 충실하며 반드시 기술창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음
일반창업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서 도소매업과 일반서비스업,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 등이 이에 해당됨

나. 기술창업의 정의와 특징 알아보기

‘기술창업’이란 특정 분야의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 창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넓게는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 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한다. 때문에 기술창업은 일반창업(생계형 창업)과는 달리 창업자의 창업동기, 기업의 특성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 표 18 | 기술창업의 특징

구분	주요내용
창업동기	- 창업자가 보유한 기술 수준, 개발욕구와 상관관계가 크다. - 기업의 CEO가 기술개발, 마케팅, 자금, 생산 등 기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기업을 설립한다.
기업특성	- 신기술 또는 개발 아이디어를 독립적 기반으로 영위하며 R&D의 집중도가 높다. - 기술적 우월성이 기업성공의 주요 요인이며, 기술력의 우수성, 전문성,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므로 일반창업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 - 초기에는 제품 개발 중심 전략을 펼치며 성숙기로 갈수록 원가절감 및 경영 효율화를 높이는 형태의 기업 운영 전략으로 변화한다.

(2) 기술창업의 절차와 단계별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창업의 최소기준은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지만, **신중년의 경력설계를 위한 창업은 준비에서 시작하여 사업화하고, 나아가 이를 성장시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다.** 신중년이 기술창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기업을 경영하려면 단계별로 전략적인 계획수립과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기술창업의 절차를 소개하고 단계별로 준비할 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기술창업을 꿈꾸는 신중년, 나에 대해 알아보기 - 자가진단

창업을 준비하는 개개인이 객관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내 자신이 현재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술창업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신중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에듀의 '창업역량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기술창업 역량을 창업자(CEO), 시장기회,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전략 등의 다각적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창업에듀에서는 본인이 부족한 분야의 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창업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TIP!**▶ 기술창업은 어떤 사람이 도전해야 하는가?****• 신중년에게 기술창업은 ‘기회’이자 ‘전투’**

우리는 앞서 ‘기술창업’에 대해 살펴으며 ‘기회형 창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말 그대로 신중년에게 기술창업이란 온전히 ‘기회’일까? 본인의 경력과 기술, 노하우를 충실히 반영하여 기업의 대표로 우뚝 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꿈이다. 그러나 ‘기술창업’은 분명 적지 않은 리스크(위험요소)를 동반하는 도전이며 동시에 끊임없이 급변하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전투이기도 하다.

• 나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준비된 기술창업가 인가?**- 기술창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⁷⁾으로,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혁신활동을 수행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활동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기업가의 태도와 정신적 특징을 포괄⁸⁾하는 개념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창의와 도전정신, 혁신 등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은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창업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다.

기술창업이 기회형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창업 성공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일반창업에 비해 초기 투자자본과 노력이 많이 드는 만큼, 자신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기술창업에 적합한지 스스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창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기

기술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은 흔히 본인이 보유한 기술력 등을 토대로 ‘창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초기 단계의 아이템을 어떻게 구체화 및 사업화할 것인지, 주 고객층은 누구인지, 관련 시장의 경쟁자 현황 등 한 단계 심화된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반짝이는 창업 아이디어가 창업 성공의 핵심요소인 것임은 확실하나, 창업자 본인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아이디어’, ‘아이템’ 차원의 수준이라면 계획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7) 배종태·차민석(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8) 유희성(2016) 기업가정신의 이해

| 표 19 | 창업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아이디어 발굴	- 기술력, 창의성,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창업아이템(제품, 서비스 등)을 탐색 및 발굴	
정보수집 및 시장분석	-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한 아이디어의 강점/약점, 경쟁자, 목표(target)시장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분석 진행	
사업화계획 수립 (비즈니스전략)	- 비즈니스모델 수립 - 창업로드맵(사업계획서) 작성	-

잘 수립된 사업계획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도 필수적이지만, 후에 창업지원, 자금조달,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매우 귀중한 재원이 된다. 다만, 혼자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본인의 능력에만 의지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면, 본인의 사업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받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다.

TIP!

▶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컨설팅을 통한 탄탄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창업 업종, 교육의 심화 정도, 추진하는 기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그중에서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특화된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실전 창업교육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서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창업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지원대상 :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규 모 : 연간 교육생 3000명 내외 및 린스타트업 300팀 내외
- 지원시기 : 상·하반기 중 1회
- 교육내용 : 아이디어개발 → 비즈니스모델 수립 → 린스타트업 등의 내용을 교육 및 멘토링 하여 (예비)창업자가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하고 탄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 과정은 약 75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린스타트업 과정은 멘토링 방식 등으로 이루어짐
- 참여방법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사이트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후 교육 참여 가능

TIP!

- **창업에듀(온라인강좌)**

창업단계별 강좌 및 최신 트렌드 정보를 온라인 강좌로 제공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지원대상 : 기술창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 교육내용 :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창업, 창업교양 전 과정에 해당하는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제공함
- 참여방법 : 창업에듀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후 연중 수시 참여 가능함

- **멘토링플랫폼**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하고 빠른 사업화 지원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지원대상 : 멘토링이 필요한 누구나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참여방법 : 아이디어마루(www.ideamaru.or.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하여 우수 아이디어로 선별 되면 집중 멘토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창업 진행 준비과정에서 수립한 비즈니스 전략을 바탕으로 적합한 기업의 설립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인데 두 가지 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창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과 기업 설립에 필요한 요소인 사업장(시설·공간)과 관련한 정보를 알아본다.

(1) 기업 설립하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⁹⁾을 가진다. 예비창업자는 본인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잘 부합하는 사업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9) 기술창업기초 ((사)한국창업보육협회, 201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특성 비교 <표 1-4> 인용

| 표 20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특성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절차	사업자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설립	정관작성 및 법인설립 등기절차
경영책임	단독 무한 책임	형태 및 출자에 따른 유한책임
의사결정	개인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	이사회 등 다수 공동결정 체제
자본조달	개인의 전액출자로 조달 한계	다수의 출자자로 자본조달 가능
이윤분배	개인 독점	출자자 지분에 의한 분배
세제상 차이	소득세 과세	법인세 과세
	대표 자본인 급여/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고 장부기장 등 상대적으로 덜 엄격함	대표자 급여/퇴직금 인정 회계의 투명성, 엄격성을 요구함
기타	대의 신용도 취약	대의 신용도 유리

TIP!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한 간편하고 신속한 법인설립!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 준비, 법인설립 온라인 민원신청, 법인설립 관련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으로 법인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유한/합형/합자/유한책임 회사도 설립할 수 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매뉴얼과 비용계산 시뮬레이션, 사업인허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이용방법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tartbiz.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법인설립 매뉴얼에 따라 법인설립 진행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상담센터 : ☎1577-5475

(2) 기업 설립을 위한 시설·공간의 확보하기

준비하는 기술창업의 분야(제조업·지식서비스업)와 사업화하여야 하는 아이템의 유형(공장부지가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시설과 공간의 규모와 입지, 컨디션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기업 설립을 하며 잘 꾸며진 사업장(사무실)은 창업자들이 창업을 꿈꾸며 가장 소망하는 것이기도하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당장 공간이 필요 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점포창업)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항목이기도하다. 아직 사업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당장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템으로 작업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할 임대료를 내고 무작정 사무실부터 계약 한다면 초기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관리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정부에서는 초기 기업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작업공간, 준비공간 등 다양한 시설 및 공간 지원정책도 펼치고 있으니 이를 똑똑하게 활용하도록 하자.

TIP!

▶ 다양한 창업 지원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사무실 마련하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시설·공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면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훌륭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창업자들끼리 모여 자연스럽게 시너지를 내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시설공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초기 창업기업에는 일석삼조의 효과이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신중년 전용 창업공간 지원)

중장년(40세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창업 후 3년 이내)
- 규 모 : 전국 27개 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원내용 :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창업공간 지원과 더불어, 경영지원 및 창업교육, 네트워크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
- 신청방법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창업보육센터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 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 기기 및 사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창업기업
- 규 모 : 전국 260개 창업보육센터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및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기술, 경영, 행정, 자금 등) 지원
- 신청방법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http://www.bi.go.kr/>)을 통하여 신청·접수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과 세무·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지원센터 창출 및 사업화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규 모 : 전국 50개 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원내용 :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창업공간 지원과 더불어, 경영지원 및 창업교육, 네트워크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
- 신청방법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을 통해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 가능

TIP!

▶ 지자체나 지역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시설·공간 활용하기!

‘창업기업’의 설립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제행위이며, 또한, 지방자치 관할지역 내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내가 속한 관할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창업 및 일자리 지원기관을 통해 창업을 위한 시설·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자. 다음 대표적인 지자체 및 지역단체 운영 창업 시설·공간지원서비스를 사례로 참고해 보자.

• 50+공유사무실

- 운영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센터
- 지원대상 : 만 40~69세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 등록지가 서울인 자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
- 참여방법 : 서울시50플러스포털(www.50plus.or.kr)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

• IBK 창공(창업공장) 부산

- 운영기관 : 부산광역시, IBK 협력 운영
- 지원대상 :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 지원
- 참여방법 : IBK창공 홈페이지(<https://www.ibkchanggong.com/>)를 통해 신청·접수

4 • 상품화(사업화)하기

기술창업에서 상품화(사업화)는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서 가장 길고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유형이나 기술 수준, 경쟁시장의 유무 등에 따라 전략을 차별화하여 수립하여야 하므로 표준화된 절차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기술창업기업이 상품화와 사업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금을 무작정 투자하여 리스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창업 기업의 설립과 성장단계에서 보통 2회 정도의 죽음의 계곡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초기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단계, 두 번째는 사업화된 창업아이템을 양산하고 또 다른 아이템을 찾고 사업화하는 초기 성장단계이다. 이 두 단계를 극복한 창업기업의 생존이야말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은 창업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1단계에서 30~50%, 2단계에서 40%가량이 실패를 경험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들을 통하여 예비·초·중기 창업기업들이 이 고비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중년 기술창업 기업들은 청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할 자금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정책적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실패의 위험을 본인의 것으로 떠안으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창업 역시 정보의 싸움이다.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활용하여 똑똑하게 사업화를 추진해보자.

TIP!

▶ 창업 단계별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들을 활용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 위험을 낮추자!

• 예비창업패키지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전담 멘토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연간 1,700여 명 내외
-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의 창업 사업화 소요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창업교육과 전담 멘토 매칭 등을 통한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창업·경영자문 서비스도 제공

• 초기창업패키지

유망 초기 창업자(창업 3년 이내)에게 자금,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의 기술혁신 및 성장을 뒷받침

- 지원대상 : 제조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3년 미만 기업
- 지원규모 : 연간 8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마케팅 활동 등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 초기창업패키지 내 성장지원프로그램(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은 초기창업패키지를 운영하는 주관 기관별로 다르게 추진

TIP!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화·성장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 및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 지원규모 : 연간 1,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성장지원(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을 위한 투자, 수출, 제품개선 서비스(최대 1억))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K-Startup(<https://www.k-startup.go.kr/>)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

5. 기술창업 지원기관

국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협회 등)이 있다. 이러한 창업정보들을 총망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술창업 정보, 사업, 모집공고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 신청할 수 있는 포털 등과 상담 시스템이 있으므로, 신중년 (예비)창업자들은 반드시 다음의 경로를 통해 주기적으로 창업 정보를 수집하고 창업역량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1) K-Startup(케이스타트업)

- 홈페이지 : <https://www.k-startup.go.kr>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주요내용 : 기술창업과 관련한 모든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타 정부부처, 지자체, 각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 관련 정보들도 폭넓게 접할 수 있다.

(2) BI-NET(비아이넷)

- 홈페이지 : <https://www.k-startup.go.kr>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주요내용 : 기술창업과 관련한 모든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타 정부부처, 지자체, 각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 관련 정보들도 폭넓게 접할 수 있다.

(3) 비즈니스지원단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등록 풀(Pool)로 기업의 경영 애로와 관련한 무료 상담, 현장클리닉 등을 지원한다.

(4)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7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들을 통해 지원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에 대한 상담과 문의를 해결할 수 있다.





부록

기술창업 성공 스토리

❖ 저탄소, 친환경 정책 등의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전기자동차 충전 아이템으로 창업에 성공한 A씨

“환경분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지속적 관심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가 성공의 열쇠”

A씨는 확대되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감하고 일찌감치 창업에 뛰어들었다.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충전 공유 서비스 등을 사업내용으로 아이템 개발뿐만 아니라 지속적 기술혁신 노력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 정부 사업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했을 뿐 아니라, 해외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접근이 어려운 치열한 메모리 시장에서 ‘신뢰’로 입지를 다진 B씨

“시장의 변동성이 큰 분야이다 보니 오히려 굳은 심지와 욕심으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B씨는 IT 분야에서 오랜 기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다. IT 분야의 영업을 위해 관련 분야 지식을 두루 섭렵하면서도 고객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메모리 제조업에 집중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시장 내 불리한 위치와 안정적인 정착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변동성이 큰 메모리 시장에서 안정적인 정보와 분석력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B씨는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력’만이 아닌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 발 빠른 대응과 영업력 등 복합적 요소임을 말하고 있다.



창직, 내 일 만들기



1. 들어가기

신중년의 일자리 대안으로 창직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직(創職)은 개인의 지식, 기술,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일자리 창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창직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웨딩컨설턴트도 창직의 결과이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도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된 창직 사례이다.

창직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쉽지 않고 인구구조, 기술발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년기의 일이 갖는 중요성과 경제활동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창직은 사회적 수요에 기반을 두어 본인이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경제활동도 영위하고 사회적 기여도 하는 등 보람 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중년은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과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창직 성공 잠재력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창직으로 경제적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창직자 개인의 재정적 여건이나 가치도 달라 창직을 고려하기 전에 우선 개인에게 있어서 창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창직의 절차와 방법, 장단점과 한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

2. 왜 '창직'인가?(창직 등장 배경)

“창직이 새로운 진로선택의 대안으로 대두된 배경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 즉 직업세계의 변화와 일자리 문제가 있다.”

(1) 창직을 부르는 직업세계의 변화

직업은 유기체와 같아서 세월 따라 생로병사를 겪는다. 인구구조, 경제사회, 환경변화 및 과학기술 발전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없던 직업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수요에 따라 사라진다. 예전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없었던 취미수준의 활동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직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증가도 직업세계의 변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 복지, 미용, 웰빙과 관련된 직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교육, 판매, 의료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면서 기존에 없던 직업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직업의 발생은 기존의 제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타나거나, 새로운 기술·능력 등을 바탕으로 이종(異種)산업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식산업의 진전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서비스업에서 많이 생겨난다. 그 원인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과거 대량생산과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경제 시대에서 정보와 지식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전에 따라, 창조성, 소프트웨어, 문화를 활용한 창의적 경제 시대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쟁력이 품질과 가격이 아닌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속도에 달려있다.** 따라서 세분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등장하거나, 디지털기기와 인터넷의 진화 등 IT의 발전을 기초로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핵심기능 외 아웃소싱화를 통해 외부의 힘을 빌리고 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한 주체인 소비자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개인의 고유성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해오던 일들을 대체할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중심의 일거리가 많아진 것은 프리랜서와 같은 1인 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 기회를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2) 신중년의 일자리와 삶의 문제

저성장 추세에 따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편견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속에 신중년의 재취업이 만만치 않다. 재취업을 한다해도 장기적 근속이 어렵고 비정규직 일자리 형태로 인한 숙련 축적도 어렵다. 그래서 퇴직 후 우리가 선택하는 창업 아이템이라는 것이 커피숍, 식당 등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에 집중되어 있고 진입자가 많은 레드오션 분야의 창업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신중년 중에는 자기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게 일이란 단순한 경제적인 활동을 넘어서 그간 쌓아둔 경험, 지식, 기술을 발휘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전문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가운데 그간 신중년의 진로선택이 재취업이나 기존 분야에 한정되었다면, 창직은 이러한 이분법적 범위를 넘어 '새로운 진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창직'은 무엇인가(창직의 개념과 특성)

(1) 창직(創職)이란?

창직(創職)은 '새로운 직업(또는 일자리)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직업 또는 일자리로 병행해서 표기한 것은 대부분의 직업은 처음에는 일자리(job) 수준으로 나타나 성장하기 때문이다. 하는 일과 일에 사용하는 기술, 지식 등이 기존 직업과 차별화되고 종사자가 많아지면 후행적으로 우리는 '직업'으로 간주한다.

또한, '새로운 직업'에서 '새롭다'는 말은 기존 직업군에서 찾을 수 없었던, 새롭게 느껴지는 '창의적인 것'을 말한다.

한편 '창직활동'이 '창직'과 함께 쓰이는 것은 직업을 만드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 기술, 경험 등이 사회생활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이 기존 노동시장의 일자리에 진입하지 않고 문화, 예술, IT,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토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적성 등을 활용하여 직업(또는 아이디어)을 발굴하여 본인의 진로로 삼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창직과 창업, 무엇이 다른가?

❖ 창업은 창직 후 구현되는 한 형태

창직과 창업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거나 차이를 여전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결론적으로 창업은 창직활동을 통해 구현되는 하나의 유형이다. 예컨대, 반려동물을 산책 시키는 직업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이 일을 기반으로 회사를 창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창업은 창업자가 자본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고 사업 아이디어에서 설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이다.

❖ 창직은 새로운 직무를 만드는 것이다.

창직은 새로운 직무를 만드는 것으로 직무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내용과 지식, 기술 등이 포함된다. 창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주로 제품이나 기술이다. 반면 창직은 직무를 토대로 직무를 분석하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력을 양성하여 시장에 배출하면 일자리가 형성된다.

❖ 창직은 창업보다 직업적 역량이 더 중요하다

창직과 창업이 추구하는 관점도 다르다. 직업에서 중요한 것은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즉 어떤 일을 어떤 능력과 지식을 통해 잘 해내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 관련 직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등 제공하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직자의 사업 활동 영역은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나 자격 개발 및 보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창직은 창업, 취업, 프리랜서 활동 등의 상위 개념으로 창직을 통해 구현한 제품과 서비스, 직무역량을 결집해 창업,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창직과 창업을 혼동하는 이유는 창직을 통해 구현되는 방법이 대부분 창업이기 때문이다.

| 그림 22 | 창직의 운영형태



(3) 창직의 특성은?

- ❖ 창직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창직은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구체화하고 시장성을 타진하며 수요처를 발굴하여 홍보·마케팅 등 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현도 어렵지만, 직업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린다.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없으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직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최소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일반화된 체형관리사인 다이어트 프로그래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며, 2000년대 초반부터 몇몇 선도자를 중심으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직업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생 및 이색직업」 정보서에 2004년에 수록된 점을 볼 때 거의 10여 년이 지난 후에 대중에게 알려진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 동안 창직자들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험과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창직은 가급적 재직 중에,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창직에서 중요한 것은 창직자의 역량이다

창직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직업(직무)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직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내고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과 네트워크 등도 필요하다.

새롭게 직업을 만들어 시장을 개척한 사람들을 토대로 **창직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등을 살펴보면 ① 융합적 업무역량, ② 복합적 업무역량, ③ 해당분야의 전문역량, ④ 네트워크 역량, ⑤ 자기관리역량, ⑥ 문제해결역량, ⑦ 소통역량, ⑧ 대인관계역량, ⑨ 긍정적인 태도** 등이 필요하다.

❖ **창직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 여건을 살피는 것이다**

신중년은 그 특성이 다양하다. 그간 축적한 역량과 지식, 기술, 네트워크가 다르며 개인의 재정적 상태도 다르다. 또한, 개인이 의미를 두는 삶의 가치 또한 다르다. 따라서 창직에 앞서 개인의 여건을 살펴야 한다. 창직은 직업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과를 낼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재정적 상태도 검토해야 한다.** 당장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으면 입지가 매우 좁아진다. 퇴직 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안으로 우선 다른 직업 활동과 병행하여 창직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 **틈새시장을 노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창직활동을 통해서 성공에 이르는 길은 지난한다. 그럼에도 창직을 권유하는 이유는 돈을 떠나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행복한 직업생활을 영위하라는 것이다.** 신중년에게 새로운 일은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자기만족감을 높이고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앞으로 70세까지 경제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4 • 이것을 고려해야 창직이다.(창직의 조건)

창직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나 기준은 없다. 다만 창직활동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므로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1) **참신해야 한다.**

- ❖ 창직은 새롭거나 기존에 있지 않은 직업이어야 한다. 새 직업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지식, 스킬, 능력, 작업 활동 등이 기존 직업과 다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기존 직업 진입으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경쟁을 가급적 피하자는 것이다.

- ❖ 신 수요가 발생 가능한 영역에서 대상이나 사업내용 및 방법 등을 달리하는 것도 넓게 보면 창직이다. 예컨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 서비스’도 새로운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사례 소개

미국에는 고령자를 위한 이주 전문 서비스 업체가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업체가 수행하는 포장이사 뿐 아니라 고령자의 부동산과 법률문제를 대행해 주고 요양 시설 입주 및 퇴소 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즉 고령자가 이주할 집이나 요양소를 알아보고 각종 재산 등을 처분하는 일도 한다. 관련 협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 500개의 업체가 있다.

- ❖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시장에서 구현하여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창직 소재로 손색이 없다. 또한, 새롭게 태동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창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창직자의 만족감이다.**

(2)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 ❖ 직업은 경제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 잠재적이 구현가능한 시장과 수요**가 있어야 한다. 창직의 목적이 예비 창직자 스스로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창직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수요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으로 창직 아이템의 시장성을 명확히 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령화, 다문화, 여가에 대한 선호 등 거시적인 트렌드를 통해 시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전문가 등을 통해 시장성 여부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3) 실현 가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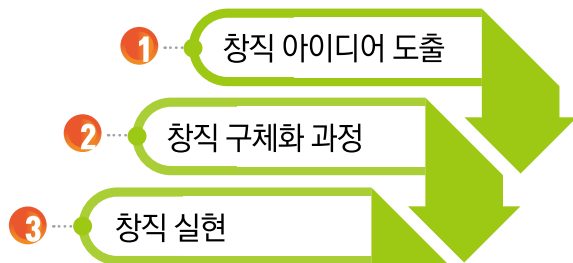
- ❖ 창직 가능 직업은 시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 시장에서 직업으로 안착시키려면 각종 법적, 제도적 여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컨대 “치료사” 등 의료 관련 직업은 전공자만이 가능하며 자격자만이 인정된다. 또한, 아직 제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직업은 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 이처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한이 가해지는 직업 제한이 있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가급적 삼가거나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4)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 ❖ 창직은 새로운 전문분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로 만든 직업에 진입장벽이 크지 않다면 직업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성은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침서 개발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5. 막연한 아이디어를 직업으로(창직 절차)

- ❖ 창직은 대체로 다음 3단계로 이루어진다.



- 1 창직 아이디어 도출** : 직업 만들기 방법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한다. 직업세계의 변화와 소비자의 욕구, 미래 트렌드 등을 토대로, 그리고 가급적 본인이 경험,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2 창직 구체화** : 구현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시장성, 실현 가능성 등을 전문가 면담과 시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아이디어를 직업으로 상세화하고 시장조사 등 시장분석을 하고 상세화한 직업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멘토의 조언 등을 토대로 가다듬는다.
- 3 창직 구현** : ‘창직활동’ 단계 이후에는 구현되는 유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따른다.
 - **창업할 경우** 회사를 만들고 인력을 채용하며 각종 특허 등을 내기도 한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사업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알린다.
 -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개발한 창직 내용을 토대로 기업, 개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아이템을 알리고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취업할 경우** 창직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나 본인이 갖춘 역량에 관심이 있는 곳을 찾아 알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창직 6계명

① 튀어야 산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발상의 전환으로 다른 사람이 못 본 틈새시장을 찾아내자. 이미 독특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②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라!

이미 있는 직업들을 합치거나 세분화하면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다. 음악과 치료가 만나 음악 치료사가 탄생했고, 애견 옷 디자이너는 패션디자이너에서 특화된 직업이다. 새 직업 중에는 해외 직업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많다.

③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

잘할 수 있는 일, 학창 시절부터 줄곧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자.

④ 시대보다 반 박자만 앞서 가라!

시장 동향이나 미래 트렌드를 분석해 수요가 커지는 분야를 포착한다.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 가도 안 된다. 시대보다 10년을 앞서면 시장성을 찾기 어렵다. 5년 정도 앞서 가라.

⑤ 도움을 구하라!

시간을 아끼고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실행에 옮겨라.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하라.

⑥ 실패를 활용하라!

하나의 직업이 탄생하려면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좌절하면 안 된다. 꾸준히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6·다양한 창직 방법

창직에 정해진 방법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1) 사회문제나 수요자의 관심사를 분석하라

직업은 인구구조 변화, 과학기술발전, 법, 제도 등의 변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새롭게 나타난다.

웰빙에 대한 관심과 주 5일 근무 확산에 따른 여가문화 정착에 따라 다이어트프로그램머, 파티플래너 등의 직업이 나타나고 관련 법이 완화되면서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브루어가 나타났으며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의료통역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의 직업도 나타났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웹, 모바일 등에 관련된 직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클라우드컴퓨팅 등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전문가, 빅데이터분석가, 3D프린팅제조원 등의 직업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령화,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형성되어 애완동물장례 지도사가 나타났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수납정리인, 놀이시터 등도 생겨났다.

| 표 21 | 신생직업 발생 영향 요인 및 관련 직업

신생직업 발생 영향 요인	관련 직업
생활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여가에 대한 관심, 고객의 눈높이 증가	다이어트프로그램머, 파티플래너, 웨딩컨설턴트,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과학 및 기술의 발전	웹프로그래머, 앱개발자, 웹툰작가, 휴대폰디자이너, 온라인판매자, 디지털마케터,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포렌식분석가, 빅데이터분석가 등
법, 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맥주조주사(주세법 완화), 의료통역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고령화, 저출산, 핵가족화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애완동물장례지도사, 베이비플래너, 유품정리사, 놀이시터 등

이처럼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 인구학적 변화, 과학 및 기술 발전, 수요자의 욕구 등, 직업의 변화 요인 대해 탐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국가나 사회, 기업, 개인이 직면한 경쟁력 확보, 미세먼지, 안전 등 삶의 질 제고, 1인 가구,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까지, 이들이 모두 창작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주요 원천이 된다. 특히 본인이 고려하는 창작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의 수요 등을 예측해 봐야 한다.

(2) 해외직업 사례를 살펴보자.

외국의 직업을 살펴보는 것은 창직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화된 국가에서 이미 대중화된 직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서도 나타날 잠재성이 있다. 현재 국내 직업 중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입된 경우를 알아보자.

가. 맥주 조주사

일반 주점에서 맥주 제조 공정을 관리하며 맥주를 만드는 맥주 조주사인 브루어는 외국에서는 일반적인 직업이다. 이 직업은 주세법의 완화와 함께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도입한 직업이다.

나. 비디오저널리스트(VJ)

비디오저널리스트(VJ)의 경우 6mm 카메라가 일반인에게 보급되고 이 카메라의 방송화질이 기존 방송카메라의 화질에 비해 손색이 없어서 일반 방송에 활용되면서이다. 외국의 경우 노르웨이의 「텔레비베르겐」이 VJ를 최초로 채용하였고, 1990년대에 미국과 일본을 거쳐 국내 VJ는 1997년에 등장했다.

해외 직업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수용 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는 핵가족화에 따라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 주는 유품정리사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예상된다. 각 나라의 문화, 제도, 시장에 따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직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환경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직업 간의 융합을 고려하자.

기존 학문, 직업 간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직업이 재탄생할 수 있다.

예컨대 음악치료사는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는 미술+심리 분야의 직업과 학문이 결합한 새로운 직업이다. 경찰과 IT 분야의 결합으로 사이버경찰관이라는 직업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농촌과 관광을 비롯하여 전산업에 ICT가 결합하면서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도시 등과 관련된 융복합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 노동시장에 전혀 없던 직무보다 기존 직업 간의 결합 또는 융합 등으로 발생한 직업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업 간의 결합과 융합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창직방법 중의 하나이다.

| 창직의 지름길- 반려동물 산업에서 파생 가능한 직업 찾기 |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천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애완동물로 불렸던 호칭이 반려동물이 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직업이 동물에게도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 애완건강장 의사, 애완견옷디자이너, 반려동물재활 공학사 등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직업을 찾아 반려동물에게도 필요한지 살펴 보면 발생 가능한 직업을 찾아볼 수 있다.

(4) 직업의 분화 가능성을 검토해보자

새로운 수요에 따라 기존 직업에서 분화되거나 전문화하여 직업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애견 옷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애견옷디자이너가 나타났다. 이들 직업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핵가족 및 독신 인구 증가로 애완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패션디자이너에서 분화된 것이다. 한편 치료전문가 중에서 알코올, 도박, 게임 등의 중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중독치료전문가도 기존 영역에서 수요가 발생하여 분화한 직업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찾기보단 분화 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7·창직 시 도움이 되는 정보

창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직 공식적인 창직 교육훈련 기관이 없다. 창직 협회를 비롯하여 지자체, 신중년 취업지원 기관 등에서 부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요 시점에서 개설된 교육훈련 기관을 예비창직자가 직접 찾아보거나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창직 연구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창직과 관련한 정보서와 동영상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면 창직 관련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아직 신중년을 위한 창직 지원 제도는 없으나 창직은 창업으로 구현될 수 있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제공하는 각종 창업 지원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직(1)

신중년(5060) 창직 도전기 Q&A

창직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산광역시 김○○ (69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였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손해보험회사에서 영업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 후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법인을 상대로 식품과 소모품을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법인 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MRO(기업의 소모품 및 산업용 자재) 영역에 속하는 업무로 일반화되었지만 당시는 법인에게 식품과 소모품을 전문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없을 때였습니다. 대부분 총무부 직원들이 담당하던 일로 법인을 상대로 배달 서비스가 없던 시절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택배를 통해 법인 일괄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번창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사업영역을 일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00년 자본금 400만 원으로 창업했습니다. 한참 사업이 번창해 업무영역을 넓히던 중 갑자기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 전반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MRO 사업부분 확장에 따른 일괄 거래로 인해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거래처였던 한진중공업 사태의 여파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많이 생긴 2010년,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경력을 살려 창직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다시 사업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소모성 자재를 유통하는 중소기업체 방식에서 탈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집약적인 미래 유망 벤처기업 설립을 다짐했습니다. 소모품의 배달이라 간단한 서비스였지만, 첫 번째 창업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공한 경험은 창직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부여하였습니다.

Q 창직을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A 일본 NHK 방송의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유품 정리 회사를 설립한 대표에 대해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직접 찾아가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국에 유품정리 비즈니스를 소개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다고 부탁했고, 일본의 현장에서 일을 도우며 업무를 배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문제를 맞닥뜨린 일본의 문화를 경험하며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Q 창직 시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일본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과연 이 서비스가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일까 검증되지 않아 두려웠습니다. 또한, 사회구조와 소비자의 인식, 제도와 인프라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정착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창직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실무에 필요한 것을 한 가지씩 준비할수록 그 두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매출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Q 폐업 후 창직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A 폐업 후 곧바로 사업자를 전환해 창직했습니다. 갑자기 업종을 전환한 경우는 아니었고, 폐업 전에 기존 사업을 정리하면서 3년간 일본을 오가며 현장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의 시장 생태계 속에서 창직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Q 창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A 관련 법률을 파악해 우리나라만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부했으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생각해 보았고 매뉴얼 작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에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미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직원을 일본으로 보내 현장 교육을 시켰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장 교육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협력업체에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상황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Q 창직을 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가장 어려운 속제는 생활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곧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고 술과 담배를 끊었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자제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은 줄이고, 빠질 수 없는 경조사나 단체 모임만 참석했습니다. 저녁 모임은 일부러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점심을 같이하는 정도로 시간을 안배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운동으로 자기관리 하며 건강하게 변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임으로써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Q 창직을 하기까지 도움받았던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폐업 후 창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개인의 힘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10여 년 간 특별히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다행히 활로를 찾기 위해 서비스업 기반에서 정보기술(IT) 기반으로 변신하는 작업을 하면서 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창업과제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블록체인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Q 창직하신 곳에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유품 정리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문 회사를 설립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후 부동산 내에 있는 유품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청소, 폐기물, 철거 등 인접 산업 분야에서 용어만 따다 쓰면서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은 패키지 형식으로 유품 정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확충을 위해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Q 창직할 업무에 대해 가장 만족스러운 일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아무리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라도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가령 인식을 바꿔 니즈를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전문 인력이 없다면 기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어렵게 교육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도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면 헛수고입니다. 또 인프라를 갖춘다 해도 정부가 제한하는 규제에 다시 막힌다면 그동안 노력은 허사입니다. 규제를 풀어나가는 사이 후발 주자가 튀어나온다면 처음 시작한 새로움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뺏겨버립니다. 허들 경기처럼 곳곳에 난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 창직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에 먼저 발자국을 내디뎠던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한 권으로도 모자랄 분량의 많은 스토리가 생겼고, 실제 출판으로 이어져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 가능 수치로 본다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창직을 준비하시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새롭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식서비스 기반입니다.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비즈니스에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만족의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명확히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면 외면받는 법이기에 새로운 비즈니스는 기존의 것과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성도 부각해야 합니다.

창직은 시행착오라는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창직을 하고 나면 항상 첫 번째가 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아무리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최초의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조는 새로운 것을 시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즉, 도전에 대한 과정과 결과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 세상에서 강한 자존감을 느낄 수 있고, 철학적으로 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쉽게 따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지원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창직은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활동인 만큼 생태계 구축부터 용어 정리, 직업교육까지 정부 도움이 절실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서 폭넓은 지원을 받는 창업 지원 활동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창직 교육은 단순히 성공한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만든 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가 새로운 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공동의 노력 없이 가로채기가 일반화된다면 긍정적 변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민간에 혼자 내버려 둔다면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도전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창직(2)

신중년(5060) 창직 도전기 Q&A

경력에 기반한 창직으로 내 일을 찾았습니다.



광주광역시 김○○ (70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국내 대기업 본사 과장으로 전국 15개 터미널의 상권 개발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음식점, 대형서점 등의 계약 및 임대매장 매출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2009년 3월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2016년 12월 31일 퇴사할 때까지 8년 정도 근무하였고, 전체 회사 근무 경력은 20년 정도 됩니다. 퇴사한 이유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이가 들더라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새로운 일을 찾아 60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회사 생활에서 실적 압박과 획일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염증이 커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고, 입사 이래로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는 현실을 개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Q 선생님의 경력을 살려 창직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강의하고 싶었으나 자리도 없을뿐더러, 대학에서 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나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산업체 견학을 자주 다니던 중, 이 일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고, 아직 국내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창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Q 창직을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퇴사 전 <넥스트 커리어>라는 저술을 하고 있었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시민 사회단체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봉사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또 짬짬이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활동도 하였는데, 그때 창직을 준비했다기보다는 포괄적인 전직 준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 후 진로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창직을 시도했다는 편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Q 퇴사 전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퇴사 준비는 3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사를 수료하고, 시민단체 활동과 강의 경력도 쌓으면서도 막막했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는 어려웠고, 또 안정된 직장과 높은 급여를 포기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낼지 한 치 앞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부양해야 할 부모와 가정도 있었고, 남들은 대기업에 취업 못해서 안달인데, 나는 인정받는 회사를 내 발로 나가는 게 맞을까 망설임의 시간도 길었습니다.

천일 가까이 기도하면서 세상에 온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한 저울엔 대기업의 월급과 복지 혜택, 그리고 다른 편엔 영혼의 자유와 자아실현을 놓고 저울질하였습니다.

사표를 품에 안고 오랜 고민을 하던 중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만큼 후회되는 일은 없다”는 어떤 어르신의 인터뷰를 듣고 어렵게 퇴사를 결심하였지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Q 창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무엇이었나요?

A 최초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최소 7~8개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단체 모임 등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큰 힘이었습니다.

Q 창직을 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어려움은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직자는 안정된 직장이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편입니다. 희망퇴직금, 저축도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없었으나, 불안감 때문에 수입이 생겨도 소비하는데 부담감을 느끼던 중이었습니다. 일의 안정성을 찾을 때까지 가족을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창직 이후 주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쉬어도 되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압박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명상, 종교, 설법, 독서 등에 많이 의존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애정과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저보다 먼저 많은 경험을 하신 선배, 지인들과 상담하고 자문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추스르는 중입니다.

Q 창직을 하기까지 도움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광주도 광역시인데, 내 주변에는 창직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도 기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도움받을 곳도 없었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따라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는 YMCA 및 시민사회단체 인맥도 많아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너무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창직한 곳에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청소년,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예비창업자들이 주 고객입니다. 비즈니스 스토리텔러로서 국내외 기업 및 비즈니스 현장(쇼핑몰, 상업지역, 복합 문화시설)에서 비즈니스와 관련 인물의 삶과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Q 창직한 업무에 대해 가장 만족스러운 일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제가 좋아하는 일을 나의 능력에 맞게 디자인해서 일하고 있다는 점,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장 행복한 부분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할 때는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려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다만 창직자의 일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아직은 그 일을 같이하는 사람이 없거나 희소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시장 형성이 어렵습니다. 창직 이후 이 일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 업종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창직한 직업만으로는 생계를 다 책임질 수 없어서 다른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창직을 준비하시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신중년 창직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할 만큼 도전정신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해 줄 인간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지방에는 창직에 대한 인식과 시도도 거의 없습니다. 신중년이든 청년이든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너무 적고, 그렇다고 창업은 위험부담이 너무 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틈새를 노려 창직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창직한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소개되어야 신중년들이 “아, 진로에 이런 길도 있구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신중년이든 청년이든 창직은 꿈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창직(3)

신중년(5060) 창직 도전기 Q&A

누구나 창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박○○ (55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학원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기술과목을 가르쳤고 학교 내 업무부장과 학원장학사로 활동했습니다. 1980년 3월 입사하여 2014년 8월 30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첫 번째 이유는 정년 4년을 남기고 그동안 재직하면서 공부한 인문학적 자산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라면 그동안 쌓아온 재능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맞추어 교육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나만의 새로운 교육디자이너로 창직하기 위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창직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교사는 왜 달인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재직 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서 교육 컨설팅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교직 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즉 동료 교사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기에 그 관계의 정립이 나의 살아가는 방향과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노력해왔습니다. 관계에 대한 저만의 인식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창직을 결심하는 원동력인 된 것 같습니다.

Q 창직을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컨설팅 연수를 받았고 퇴직 전 교육청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컨설팅, 학교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실전 경험을 해보며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힘들어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왜 힘들어하는지에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를 나름 연구하고 공부하여 이곳에 컨설팅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Q 퇴직 전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퇴직하던 날 부인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밥 세 끼를 해주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부터 내 밥은 내가 책임진다. 둘째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쓸 것이다. 겁 없이 한 그 약속이 새로운 나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퇴직 후 교사라는 대접받는 직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주유소에 취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살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유원으로 입사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여러 곳(학생수련원 등)에서 경영제안이 들어왔으나 새로운 일을 만들기 위해 잠시 떨어진 곳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얼마나 편한지... 그러나 직업은 못 속인다고 주유원들의 혼유(휘발유와 경유) 실수를 막기 위한 주유하기 전 복창 문구를 만드는가 하면, 고장이 난 주유소 컴퓨터를 고치는 등 점점 참견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나를 내려놓는 일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보던 어느 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유리조각을 쥔던 페스탈로치 교육자가 생각났습니다. 주유 밸브를 돌 듯이 나의 교육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교육자가 되어 보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내려놓기랄까? 극에서 극으로 옮겨오는 일을 경험하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강한 나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Q 창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창직이었던 ○○스쿨은 퇴사 후 2년이 걸렸고, ○○학교 개소는 마을기업으로 등록까지 11개월 걸렸습니다. 창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아내와 했던 두 가지 약속을 지킨 것과 친구(○○ 스쿨 교장)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선 밥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야 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거리를 만들어야 하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인문학 자산을 발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또 잡비를 벌기 위해 퇴직 후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 이왕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해온 일과 연관성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자기 생각을 나눌 친구가 있어야 하며 또한, 자기 일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상의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창직을 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연금이 있으므로 가족들에게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식사 독립과 재정 독립을 선포한 나로서는 주유소 근무 6개월의 수입과 개인 컨설팅, 학교 강의로 재정적 어려움은 별로 없었으며 평소 사람 만나기와 강의 준비하기를 좋아하다 보니 바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Q 창직을 하기까지 도움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평소 제자들과의 지속적 연락 덕분에인지 스승의 날에 찾아온 여러 제자 중에 교육적 도움을 원하는 제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기술과 나의 교육적 경험을 살려 4차 산업혁명 이후의 감성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고 교육과 기술의 융합(에듀 테크놀로지)을 새로운 주제로 삼아 웅촌의 지형적 인문학 자산과 접목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마을기업을 준비하여 2017년 7월에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Q 창직한 곳에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제자들의 기술과 나의 교육 경험을 결합하여 에듀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감성학습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는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에서 출발하므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경험을 살려 마을 공동체와 인문학 강의 등 교육경험을 살린 교육 컨설팅과 체험 학습의 자료 개발 및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학교 공간혁신

강의 등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체험학습을 교육적 차원으로 연결하고 감성 개발과 접목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감성 교육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도 함께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 등을 교육적 차원에서 디자인하고 매년 학교에 방문하여 홍보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자가 아닌 학교 사정을 잘 아는 교사 출신이라 학교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어서 영업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창직한 업무에 대해 가장 만족스러운 일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고 만드는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있어서 더욱 즐겁습니다. 1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가 오늘날 핵심역량으로 간주되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신만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는 일에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에 대한 지속성을 잃어가는 것을 마을 공동체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Q 창직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창직은 내용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수많은 시간의 경험과 고뇌와 감성의 인문학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의 경제 과제는 인공 지능과 무인화의 기계적 메커니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장소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하는 시대의 경제 구조는 대기업 구조나 기술 강대국의 활약 무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접근할 수 없는 인간미가 넘치는 감성제품은 오랜 시간 숙성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크나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속에 전해지고 녹아있는 우리만의 인문학적 자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일에 열의를 쏟아야 합니다.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자산, 공간의 자산, 행복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인문학 자산이 신중년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그 귀중한 자산을 브랜딩하고 상품화하여 모으고 정리하는 일이 신중년 창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감성 깨우기, 나의 인문학 자산 발굴하기, 창직

후 바꿀 수 있는 생활의 변화 등을 컨설팅한다면 누구나 창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수많은 창직자들이 저마다 인문학적 자산을 모으고 분류하면 더욱 새로운 창직 기업이 탄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공장 없는 상품개발, 무형자산의 끝없는 아이디어 창출 등 인문학 자산의 융합이 가져오는 효과도 또한, 클 것입니다. 전국 1인 창직자 모임을 통하여 서로 정보와 마케팅을 나누고 합한다면 새로운 창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Q 그 외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A 신중년 창직에 대한 안내와 설명회, 사례발표 및 방문 등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아이টে를 추천해 드린다면,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비법을 공유하는 것도 생명 사회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인문학적 자산일 것입니다. 신중년의 창직이 사라지면 많은 인문학적 국가 자산이 소실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상품개발을 위한 준비는 인간의 인문학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분류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도 중요하리라 생각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소통과 공유, 나눔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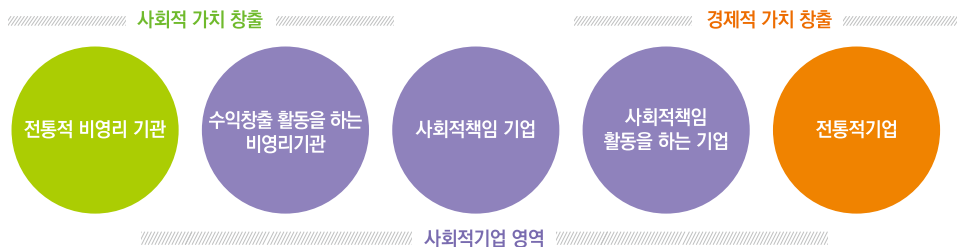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살펴보기



1.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보까요?

(1) 사회적기업이란?

-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 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을까?

-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3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단기·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 또한, 2000년대에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가 소개되었으며 비영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 ❖ 20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이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으며 2011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동참 유도’ 및 ‘육성TF’ 운영 등을 통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 ❖ 현재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문제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 및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사회적기업 창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사회적기업(경제) 교육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 시장경제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 ❖ 특히 50+세대들은 기존 시장경제에 익숙해져 있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목적의 이해, 운영방식의 이해) 등은 창업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 ❖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홈 진흥원소식 ▶ 사회적경제 교육 ▶ 교육과정안내 및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ENGLISH

열린혁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안내 **진흥원 소식** 진흥원 소개

진흥원 소식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입찰공고 · 채용공고

알림마당 · 알림마당 · 미디어 기사판 · 참고자료

사회적경제 교육 · **교육과정안내 및 신청** · 교육신청 확인/수정/삭제

보도자료 · 보도자료

홍보자료 · 간행물 · 사회적기업 매거진 · 뉴스레터

미디어자료 · 사진 · 동영상

· 채용공고

알림마당

· 열린알림방

· 미디어 기사판

· 참고자료

사회적경제 교육

· 교육과정안내 및 신청

· 교육신청 확인/수정/삭제

보도자료

지역별 검색

교육 상태 모집중

교육 분야 전문/창업

교육 대상 전체

지역 구분 전체

교육 기간 ~ (ex.2017.06.25)

검색 구분 전체

전체
사회혁신
사회적기업가정신
정부 제도 및 정책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경제 창업
일종창업 설립
비즈니스 모델

※ 지역에서 지역을 선택해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 초기화

사회적기업리스트
예비사회적기업리스트
인증사회적기업목록
자정지원업무대응팀
합영선봉교

f t b

❖ 특화교육 사업(50+세대 사회적경제 이해 교육)

실행기관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 사회적경제기업 핵심인재 육성 프로젝트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진입을 위한 창업 스쿨 • 사회적기업 창업 과정 • 사회적기업 경영지원단 양성과정 등
(주)상상우리	• 사회적경제조직 총괄관리자 양성과정 • 50+세대 대상 사회적경제조직 취업 프로젝트 등
사회연대은행	• 시니어 전문강사 교육 • 시니어 소셜디자이너 양성과정

❖ 50+세대 사회적경제 이해 교육을 통한 일자리, 활동 연계사업 사례

과정명	서울 50플러스 중부캠퍼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목적	역량과 경험이 있는 50+세대 대상, 교육을 수행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및 매칭, 직장체험 지원
성과	- 교육 : 총 3개월 맞춤형 교육 실시 - 직장체험 : 19명 참여 11명 매칭 사회적기업 직장체험 실시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고용 연계 8명
과정명	서울 50플러스 중부캠퍼스 “사회적기업 경영지원단 양성과정”
배경	전문성 있는 50+세대 대상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후 사회적기업 경영지원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목적	- 교육 : 총 2개월 전문 교육 실시 - 예비사회적기업 창업멘토링 연계, 경기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프로보노 위촉(온리유 써포터즈) 하여 멘토링 활동 지원

❖ 신중년의 사회적기업 진입 시 유의사항

- 50+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창업도 인생 2막을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취업)으로 활동하며 이해도를 높인 후 창업을 한다면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멘토나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사업형태나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한 후 창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신중년에게 사회적 기업의 의미는? 장단점, 어떤 사람에게 적합하고 필요한가?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기본적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자(신중년)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퇴직 신중년들이 기존 직장에서의 대우나 급여 등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기업과 매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들어갈 때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은 활용하되 기업에 새로 취업한 직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지위나 보수 등에 대한 생각은 다소 내려놓는 편이 유리하다.
- 평소 사회복지나 사회문제,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신중년들의 인생 2막을 위한 곳이 사회적기업 이라고 판단된다.

(2)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을 알아보자

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창업자(팀) 육성을 위하여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 공간,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내용(2019년 기준)**

구분	지원내용
창업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창업자금	•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 1천만 원~5천만 원 범위 내 팀별 차등 지원
멘토링	• 담임멘토를 통해 상시 창업, 경영 상담 • 전문멘토를 통해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필수 교육
자원연계 사후지원	•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초기창업자(기업)
- **신청기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운영기관 홈페이지 확인
- **신청방법** : 희망 위탁운영기관 선택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 **위탁운영기관 연락처 등 관련정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홈 ▶ 지원사업 안내 ▶ 발굴육성 ▶ 창업육성)

나. 소셜벤처 경연대회

- **사업목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자 매년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 **지원내용('19년 기준)**
우수 아이디어에 선정되면 각종 포상을 하고 창업연계 아이디어 최종 입상자(팀)는 다음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 **신청기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운영기관 홈페이지 확인
- **신청방법** : 개인 혹은 팀으로 신청(팀 구성원은 10인 미만)/온라인 접수
-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7)

다. 광역/기초지자체 창업경진대회

- 사업목적
지역 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이를(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pool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원내용
창업공간, 사업비, 멘토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단 지자체별 지원 내용은 예산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다.
- 신청기간 : 광역/기초지자체 공고를 내고 있으며 광역/기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공유경제센터 등 유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라. 창업공간, 사업화 지원 등

- 공간,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등 초기 창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 신청방법 : 연내 공고 ▶ 입주 기업 모집 (기관 홈페이지 참고)
- 주요 창업공간 지원사업

시설명	지원내용	주소·연락처·홈페이지
소셜 캠퍼스 온(溫)	공간,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	• (서울)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9층 02-467-2510
		• (경기)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6층
		• (부산)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051-753-2501
		• (대구)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테이션아울렛 10, 11층053-431-9821
		• (전주)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063-223-2503
		• (대전)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대전센터 3, 4층 042-489-5790

시설명	지원내용	주소·연락처·홈페이지
서울 창업허브	공간,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02-2115-2027 http://www.seoulstartuphub.com
메이커파크 (서울혁신파크)	공간, 기술 사업화(장비有), 네트워킹 등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02-389-7512~3 http://innovationpark.kr/
경기 문화창조 허브	공간, 투자, 교육, 네트워크 등	• (판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삼평동 629)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6-9층 031-776-4611 http://www.ghub.or.kr
		• (광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이의동 1322-1)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031-8064-1720
		• (북부)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빌딩 10층~13층 031-877-2733~32

※ 지방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함

❖ 신중년의 사회적기업 진입 시 유의사항

- 초기 창업은 대부분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했던 시니어분들은 초기 적응이 힘들 수 있다. 이상은 크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일반 영리시장에서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경제에 적응이 힘든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소셜미션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이윤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더하여 대부분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다보니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3·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를 알아보까요?

(1) 개요

가.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이다.

나.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이다.
-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중앙부처 지정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③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일자리제공형은 전월 말 1인 이상 고용) ④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법적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다.

나. 유급근로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 신청기업은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단,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 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
※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근무 등)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 표 22 | 인증/지정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일 것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혼합형	•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 이상일 것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
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
-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노무비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 * 단순 지원금, 보조금 해당하지 않음	포함 : 인건비(세전),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지급금)
제외 :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제외 :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영업수입 기준 외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을 고려한다.

바. 정관·규약

-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10가지)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 필수사항

- | | |
|----------------|------------------------|
| 1) 목적 | 6) 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 |
| 2) 사업내용 |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
| 3) 명칭 |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5) 기관의 의사결정방식 | 10)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정관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일반합동조합 등에 적용한다.

(3) 신청절차

가.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	○
	※ 컨설턴트 참여 방법 * 기초컨설팅 멘토 등록 - 해당 권역별 기초컨설팅 운영지원기관에 신청 * 전문컨설팅 컨설턴트 등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컨설턴트 등록 교육 수료(연중 공고) * SE프로 등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모집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미소금융은 예비도 지원)	△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대상	
			예비	인증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금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	○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 원~250만 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 : 10%(1차 연도) → 20%(2차 연도) - 인증 : 20%(1차 연도) → 30%(2차 연도) → 50%(3차 연도) • 지원인원 - 예비 : 1명 - 인증 :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 2년, 인증 3년	○	○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지원	※ 전문인력 자격 기준 - 경영, 회계, 마케팅 등 특정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등 - 문화예술, 디자인, 영상, 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채용공고 확인(워크넷 또는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시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원(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예비 1년 차~2년 차 각 50%(취약계층 +20%) - 인증 1년 차~3년 차 각 40%(취약계층 +20%)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 2년, 인증 3년	○	○
		※ 일자리창출 참여 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신청하여 사회적기업 취업 연계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 원(예비사회적기업 5천만 원), 최대 3억 원 • 자부담 : 지원 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 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 차 10%, 2회 차 20%, 3회 차 이상 30% •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공통)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	○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대상	
		예비	인증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투자(4개 조합, 총 182억 원 규모)	○	○
프로보노 지원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전문자원봉사자 (프로보노)와 연계하여 경영지원 - 희망나눔세상 프로보노, SK프로보노, 코오롱사회봉사단 프로보노 등	○	○
	※ 프로보노 등록 방법 - 권역별 지원기관 프로보노 등록(권역별 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참조)		

4·사회적경제 지원기관에 대해 알아보까요?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가. 설립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

나. 주요업무

-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모니터링 및 평가
- 협동조합 교류협력 경영지원, 교육훈련, 행사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지원 등
- 업종·지역 및 전국 단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등

다. 연락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 8층
- www.socialenterprise.or.kr / ☎ 031-697-7700

(2)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가. 주요업무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제도 관련 상담,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 대표 번호 : 1800-2012(해당 권역별 지원기관 자동 연결)

5. 은퇴 후 사회적 기업 창업사례를 살펴볼까요?

(1) (주)큰바위문화복지

(주)큰바위문화복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다.

가. 택배 사업

- 아파트 내 통합택배소를 설치하여 대형 택배사가 집하한 물품들을 입주자에게 전달해주는 새로운 아파트 통합택배사업

나. 유통사업

- 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에 판촉물, 인쇄물을 납품하는 사업

다. 건물관리(청소·주차) 사업

- 관공서 및 연계기관, 일반 건물 등에 취약계층 인력을 고용하여 청소용역 및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

라. 자판기 음료판매 사업

- 공원, 공공장소 등에 음료자판기를 설치,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편의 제공 및 수익 창출 사업

마. 사회적기업 푸드뱅크 지원

- 소포장, 재가공된 기부물품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

(2) 시흥양봉협동조합

시흥양봉협동조합 대표는 퇴직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다. 양봉업이란 직업에서 희망을 본 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열심히 한다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추천할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12명의 아카데미 수료 동료들과 양봉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양봉업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벌통 같은 필요한 준비물만 스스로 준비하면 교육은 무상으로 진행해 주고 있다.

2016년 1월에 설립된 양봉협동조합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필수로 진행 중이며 강원도에도 양봉장을 마련해 교육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 있다.

- 그 외 축산, 도소매업 수행 중이다.

(3) ㈜퓨어앤클린

어린이집 원장 출신인 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생들의 도시락 위생문제와 세척 문제를 해결하고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지원하여 기업을 설립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식판세척 소독서비스 등의 사업 뿐만 아니라 “나비식판”이라는 특수 식판을 기획하고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한 경험은 없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영분야는 중장년 시니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총괄관리를 맡기고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친 시니어를 채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사회적기업(1)

신중년(5060) 사회적기업 도전기 Q&A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은행에 금융업, 행원으로 1967년에 입사하여 지점장, 부장을 거쳐 본부장으로서 2003년에 임기 만료 퇴직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교통카드 환승 할인 시스템 구축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Q 선생님께서 사회적 기업 운영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 12월 ○○시니어클럽 창립,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년 5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았습니다.

Q 창업 전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퇴사 후 대비는 미약했으나 상당기간에 걸쳐 여러가지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Q 사회적 기업 운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A 퇴직 후, 1년 1개월 뒤에 ○○시청, ○○문화원, ○○클럽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Q 사회적 기업 운영에 성공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봉사정신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Q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아파트 통합택배 업무와 자판기 설치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공구매 납품(판촉물, 농산물, 의류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만족스러운 일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A 노인 일자리 창출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사업에 진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Q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새로운 틈새시장을 꾸준히 개발하고 스마트폰 주문, 온라인 쇼핑물, 블로그 마케팅 등 변화하는 환경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업무를 인지하여 세무, 회계(세금계산서 작성, 견적서 제출, 입찰 등)에 대한 이해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유튜브, 블로그 마케팅, PPT 자료 만들기, 온라인 쇼핑물 운영 등)을 위한 교육이수도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참여도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스마트 농업부문의 일자리 사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싹재배, 식물공장 운영에 관심을 갖거나, 새로운 기능성 자동판매기 사업이 등장하는데 신중년 재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2)

신중년(5060) 사회적기업 도전기 Q&A

사회적기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멋진 인생을 꿈꿉니다.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해외농업개발(캄보디아)에서 미작 개발사업의 캄보디아 농업개발공사 한국 측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평생사업으로 여기고 수행 중 IMF 사태를 맞아 1997년 9월 중단하고 철수 하였습니다.

Q 선생님께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은 노인 자신을 위하여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 의무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노인들은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기 전에 노인이 된 사람들로 절대 빈곤층이 더 많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Q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IMF로 해외농업을 접고, 늦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에 청강생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니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인 컴퓨터 교육장을 개설하였고, 건강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기반 사업을 개발하고 검증하여 다른 노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 기업 창업 전, 하던 일을 접으면서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모든 것을 투자한 마지막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IMF 사태는 모든 것으로부터 가능성을 배제당했고 생사의 기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칫, 노숙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참으로 어렵던 시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 시대에 새로운 참여자로 시작하고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또래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선생으로서 새롭게 디지털 시대와 뉴밀레니엄을 맞이했습니다.

Q 사회적 기업 운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A 사업 정리 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까지 30개월 걸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이전에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노인교육단체의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노인 평생교육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교육의 결과물이 비즈니스 모델로 직결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Q 사회적 기업 운영을 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교육을 통하여 기본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사회적기업이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인교육단체는 대한노인회 산하가 아니므로 일체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스스로 벌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영상제작으로 운영비가 나오고, 나아가 참여하는 분들의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Q 사회적 기업 운영을 하기까지 도움을 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결정적인 지원기관은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진흥원'의 도움을 받았으며, ○○영상미디어센터 등으로부터 디지털영상교육을 지원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및 사업비 자원은 사회적기업 출발과 운영에 결정적인 도움이었습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직책은 무엇인가요?

A 노인ICT평생학습원 ‘○○’은 노인영상교육을 주로 하며 이 과정을 마친 노인들은 사회적 기업 ‘○○’에 참여하여 수익을 목표로 영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서 교육원장으로 주로 동영상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Q 현재 만족스러운 일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현 사회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해가며 많은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를 고쳐나가는 역할을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낍니다. 또한, 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노인과 사회를 건강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건만 충족된다면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디지털기술을 통해 만들 수 있으나 아직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은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사회적 기업운영에 아쉬운 점이라면 문서작업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바쳐도 모자란 시간을 서류작업을 위하여 30%가 넘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Q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당신은 반세기(半世紀)를 더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나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당신이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떠올려봤을 때 경제적인 것만이 당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에 적극 참여하며 이제부터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신중년 포함)은 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노인이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분들은 퇴직이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도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멋진 인생이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두를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에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한한시공대에서 태어나 일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과 같은 확률입니다. 이 귀한 생을 경외롭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활용하고 떠나길 바랍니다.

이웃처럼 가까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살펴보기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협동조합 알아보기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기본법과 국제협동조합연맹, 미국 농무부에서 살펴볼 수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미국 농무부(USDA)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결사체)으로 만든 기업으로(사업체)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결사체인 동시에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업체인 셈이다. 협동조합이 최초로 시작된 유럽은 결사체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이후 미국으로 넘어와 사업체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에 시장경제를 보완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델(사회적 목적)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도입과 성장이 이루어졌다.

(2) 협동조합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 협동조합의 6대 가치와 조합원의 4대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995년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나. 기억하세요! 건강한 협동조합을 위한 일곱가지 원칙!

협동조합을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7가지 항목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 | | |
|---------------------|------------------|
|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⑤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⑥ 협동조합 간 협동 |
|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 ④ 자율과 독립 | |

(3) 협동조합의 종류와 유형을 알아봅시다.

협동조합은 설립목적과 구성원 필요에 따라 종류와 유형이 구분되며, 같은 협동조합 이더라도 종류와 유형에 따라 운영방식이나 사업모델 등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은 설립 전 본인들의 목적에 맞는 종류와 유형의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협동조합의 종류

종류 및 유형		내용
일반 협동 조합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 자재 구매/공동 브랜드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직원(노동자)협동조합	직원이 조합을 직접 소유 및 운영/일자리 마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로 운영,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가 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 조건이나 조합유형은 일반협동조합과 같다. 사회적협동 조합 중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조합원이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이라는 별도 특수 조건이 존재한다. 협동조합연합회는 3곳 이상 협동조합이 모여야 설립할 수 있다.

(4) 협동조합의 특징과 장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 협동조합의 특징

협동조합은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이라는 복합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이고 법인이지만 주식회사와는 다른 협동조합만의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2012. 12.1 시행)의 적용을 받는다. 설립 시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소유권을 행사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1주 1표제인 주식회사와 다르게, **협동조합은 1인1표제다**. 출자금 납부 규모도 1인이 30% 이상 가질 수 없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참여해야 설립**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의사결정기구로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와 총회가 있으며 조합원이 100인 이상일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배당은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고 주식회사처럼 투자(출자) 지분 배당이 아닌 **이용 실적 및 기여에 대한 배당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잉여금은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부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쌓아야 하는 법정적립금 제도가 있다.

| 표 23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소유제도	소유자	조합원	주주
	설립조건	5인 이상이 참여,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이사회 구성	주주 1인이 1인 이사인 회사설립 가능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1인 전체 출자금 30% 미만)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거나 불가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시장에서 수시변동
통제제도	의결권	1인 1표	1주 1표(주식 수에 비례)
	경영기구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주주가 선출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수익처분제도	내부유보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유보	내부유보는 제한적
	배당방식	이용배당(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잉여금 배당 가능	투자 지분배당

출처 : 서울시 발표자료 중 일부발췌

나. 협동조합의 장단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시행으로 협동조합설립이 쉬워지면서 협동조합 설립 숫자는 급진적으로 증가했다.

① 장점

기존의 경제 시장은 거대 자본 권력의 횡포와 주주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치열한 경쟁으로 소자본 사업가는 경쟁에 밀리고,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민간에서 조합원 사이에 재원을 조달하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구조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취한다.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사기업과 구분되는 협동조합만의 장점이다. 더불어 영리 목적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조합원의 권익과 사회적 목적 실현이 먼저인 사업체이자 결사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경제 주체별로 살펴보면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과 서비스(각종 사회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의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근로자는 근로자 협동조합을 통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의 경제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새로운 법인격 도입으로 경제에 활력을 주고, 사회서비스 등 국가 복지체계에 민간의 접근을 돕는다. 접근이 쉬운 탓에 협동조합은 **중장년층들의 재도약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재취업 활동을 원하는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복지혜택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1인 1표 체계의 민주적 운영은 구성원들에게 만족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재무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한다.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목적 실현의 가치는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와 자립을 도우며,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한다.

② 단점

협동조합의 1인 1표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의사결정을 더디게 하는 약점이다. 최고 급여의 제한으로 인재 확보 어려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어 확장성에서 불리함, 잉여금의 공동사업을 위한 적립 및 이용자 배당은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단점으로 작용한다.

민주적 운영방식도 조합원의 참여가 부진하거나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해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 사업체로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협동조합의 취약점이다. 설립 초기에 요구되는 행정절차와 다소 복잡한 설립과정이 의욕 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이 시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5)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과정을 살펴봅시다.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 사정에 따라 설립 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의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나 현재는 구·군(시)에 위임되어 있다. 설립 신고가 완료되면 설립 신고 확인증이 나오며, 추가 서류를 갖춰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다. 차례대로 협동조합 설립 과정과 절차,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가.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

| 그림 23 |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도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 설립 동의자 모집 시 5인 이상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설립인가서류 추가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인가는 중앙부처의 장에게 발급

나.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협동조합 설립 과정과 내용을 위 절차도의 순서대로 세분화하여 알아봅시다.

① 필요 욕구와 품목 선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집단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직화 욕구를 추구해야 한다.

예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생산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와, 안정적인 거래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은 유명 프랜차이즈의 커피 전문점과의 경쟁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역 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커피 전문점들이 연합한다면 경쟁력 있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프랜차이즈에 대항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상인들의 연합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를 인지하고, 함께 판매할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② 사업 형식(유형) 선택

욕구가 있고 품목이 정해지면 사업형태를 정해야 한다. 자영업과 같은 **개인사업자, 주식회사(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비영리단체와 같은 법인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협동조합으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유형에는 생산자(사업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근로자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있다.

예시

농·축·수산물 생산을 하는 농어업인과 커피 전문점 사업자는 생산자 협동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 생산자(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퇴직이나 은퇴를 경험한 중장년 세대의 구성과 참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③ 발기인 구성

협동조합을 선택했다면 설립 기본 조건인 뜻을 같이하는 5명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조합설립 발기인 모집이라고 한다.

- * 발기인 : 법인 설립의 발기 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사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자.
- * 발기인의 자격 :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함.
- * 발기인의 역할 : 발기인은 정관 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설립 동의자로부터 설립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해야 한다.

④ 정관 작성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관에 들어갈 필수 내용은 협동조합설립 절차 도표를 참고하고 표준 정관례를 참조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다.

⑤ 설립 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공고 전에 설립 동의자를 모집한다. 설립 동의자는 협동조합의 설립 욕구가 있고 필요성, 설립 취지를 이해하며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⑥ 창립총회

창립총회 개최 일을 제외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목적, 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등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 발송, 전자 우편발송 등으로 알려야 한다. 총회 의결은 **설립 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진행은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3명 이상(임시의장 제외)과 의사록 작성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필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선출(이사장 포함),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⑦ 설립신고

설립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설립 주 사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서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발급**된다.

⑧ 사무 인수인계

시·도지사로부터 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받은 발기인은 그 사무를 즉시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 대상은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별 출자자 수를 적은 서류, 설립 동의자 명부, 조합설립 관련 각종 서류를 말한다.

⑨ 출자금 납부

이사장은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이사장 계좌로 내게 하여야** 한다. 납부 출자금은 등기 전이라도 일부를

협동조합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경우 규약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하고 출자자는 출자의 납부기일에 목적재산 일부를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내야 한다.

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설립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한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법에 따라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공증은 공증인이 실제로 창립총회에 참석해 공증할 수도 있으나(참석 인증)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청문 인증을 한다. 이 경우 공증 비용과 함께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을 의뢰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을 통해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한다.

| 공증 시 필요서류 |

공증은 일반적으로 의장(이사장)이 의뢰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증 신청서와 공증 신청인(이사장)의 진술서
- 공증하고자 하는 창립총회 의사록(원본) 2부
- 공증용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한 사람들의 인감증명서
(총회 참석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
- 조합원(발기인과 설립 동의자) 명부 (작성일은 회의일)
- 정관 사본 1부
- 총회 공고문
- 설립된 협동조합인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공증 사무소마다 양식이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서류는 사전에 의뢰할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⑪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출자금 납부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부여된다.

| 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 시 사본 제출 가능
- 창립총회 의사록 : 공증받은 원본을 제출
- 신고 확인증
- 임원의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 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인감 증명서·주민등록증 초본을 제출
- 대표자의 인감 신고서
- 출자금 총액 납부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액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 납부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 인계서 또는 출자재산 영수증을 함께 제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 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⑫ 사업자등록 신청

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

-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해당 서식)
- 정관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법인명義), 또는 부동산 사용승인서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조합원 출자 명세서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업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기체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
- 현물 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음

설립사례

「꿈세생애설계협동조합」은 강의와 컨설팅, 생애설계 심화 사업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6개월 과정의 생애설계 전문교육을 수료한 학습자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학습한 내용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자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10명의 (퇴직·은퇴자 중심의) 구성원들은 학습 교류 활동을 이어나갈 정기모임 장소를 모색하다가, 서울시 도심권 50 플러스센터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월 2차례의 정기모임은 자연스레 시범강의로 이어졌고, 1년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결산 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형태의 단체 설립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강의와 컨설팅 활동에 적절하고 퇴직과 은퇴를 경험한 신중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의견이 집중되었고, 이에 동의한 구성원 7명이 발기인에 참여하여 2017년 4월 7일 조합이 설립되었다.

현재 14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결성의 초기 임무였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과 지속 가능한 수익사업을 확보를 통해 균형 맞춘 운영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다. 설립과정에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은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해 왔으나 질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전체 설립신고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왕성히 사업을 하는 조합은 훨씬 적은 숫자에 그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협동조합설립은 창업이다. 창업은 잘 준비돼야 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른 창업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고 운영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창업자본이 적게 들어간다. 출자금 또한, 특별한 초기 운영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면 소액 출자금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설립비용 또한, 발기인이나 이사장이 직접 수행할 때는 아주 적은 비용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참여 조합원들의 책임의식이 낮고, 조합 활동 참여에 소극적일 수 있다.**

또한, 구성원 간의 필요 욕구 불균형,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 선부른 설립시도, 협동조합 설립을 부추기는 외적인 환경, 사업가 정신 부재 등으로 극히 **일부의 활동에만 참여하며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활동을 중단해 버리는 측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설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

- 협동조합 설립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설립 동의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이 협동조합이어야 하는 이유와 **협동조합의 종류, 유형에 적합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다.
-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참여할 사람들과 협동조합 기본법을 포함하여 협동조합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한다.
-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설립 동의자들과 **충분한 네트워킹 시간**을 가져야 한다.
- 조합설립 욕구가 없거나 목적, 활동 방향, 비전 등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시키지 않는다.
- 협동조합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조언과 멘토링 단계**를 밟는다.
- 협동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나 센터와 충분히 상담**한다.
- 협동조합은 커뮤니티나 동아리가 아닌, **필요 때문에 설립되는 결사체**며 동시에 사업체임을 **설립 동의자들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 협동조합은 모두가 책임진다는 말은 모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업무별로 조합 활동을 수행할 책임자를 임명**한다.
- 설립절차나 과정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발기인과 이사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향후 **조합운영 활동에 도움**이 된다.
- 고유한 사업모델과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며, **설립신고 사업계획서**는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출발이 순조롭다.
- 정관 외에 조합운영과 관련된 규칙, 수익 분배 기준 등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여 동업계약서 수준으로 준비한다.

(6) 신중년에게 협동조합이란?

가. 신중년에게 협동조합의 의미

신중년으로 통칭하는 중장년 세대와 시니어는 이른 퇴직과 은퇴, 길어진 수명으로 재취업 욕구와 사회적 활동 욕구가 매우 크다. 해마다 발달하는 정보통신과 함께 일자리는 감소하고, 퇴직 은퇴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고도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서비스는 지속해서 확장 및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중 사회적인 목적이 있는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서비스는 단순 인력보다 경험과 재능을 겸비한 인력을 필요로 하며, 정규직보다는 간헐적 근무에 적합하다. 협동조합은 이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신중년 세대에게 적합한 직종으로써의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경험과 재능을 모아 창업한다면 신중년의 재취업과 사회적 활동 욕구를 함께 담아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나. 적합한 인력

퇴직·은퇴를 경험한 세대인 신중년은 재취업과 사회적 활동의 욕구가 강하다. 하지만 생계형 일자리나 Full time-Job보다는 사회공헌형 활동이나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 일과 사회적 관계, 여가와 취미활동이 함께 어우러진 일자리를 원하는 신중년에게 협동조합 활동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 퇴직과 은퇴로 자칫 소외와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일과 사회적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면 삶의 만족과 함께 자아실현으로 연결할 수 있다.**

다. 장단점

퇴직·은퇴를 경험한 세대인 신중년은 저마다의 무기를 갖고 있다. 직장인, 자영업, 개인 사업자 등 여러 직종과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세대로 사회초년생에게는 없는 전문성이 그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자신의 분야에서 축적된 신중년들의 지적재산들은 젊음과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장년 세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들이 퇴직과 은퇴로 단절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도 치명적이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공통의 목표로 함께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는 신중년 세대의 열정과 전문성을 또 다른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설립이 쉽고 적은 투자로 참여할 수 있어 포기도 쉽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조합설립 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뚜렷한 사업모델이 없을 때 조합원 참여가 저조해지거나 와해되기도 한다. 신중년 세대는 자기주장이 강하며, 형성된 내면의 가치체계가 변하지 않아 조합원 간 불협화음이 잦을 수 있어 의사결정이 더디고 비효율적이기도 한다.

(7) 신중년이 협동조합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 성공의 조건

- ❖ 적자생존의 이윤동기 외에 다른 경제적 동기인 **호혜와 연대 가치**로 작동하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

(예) 강사 협동조합, 동네 카페 협동조합

- ❖ 협동조합의 취급 품목은 상품 자체 특성 외, **사회적 책임 소비와 관련된 품목**이면 좋다.

(예) 지역사회서비스 - 돌봄, 교육, 자활, 보건/복지, 취약계층 일자리

청소년 자립 - 위기 환경의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중장년 재취업 - 일자리, 인턴십, 기술교육

지역 및 도시재생 - 지역 내 환경 조성, 문화사업, 공동체 주거 문화 콘텐츠 공급

- ❖ 협동조합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노후준비 지원법에 속하는 영역, 전문계 고교 취업 지원, 환경, 인권, 여가활동 등

(8) 설립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 ❖ 협동조합 이름 작명은 반드시 **“협동조합”**이란 명칭이 들어가고 사업목적이 드러나도록 한다. 지자체 내에 기존에 설립 활동 중인 같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국 단위 동일 이름은 등기는 가능하나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같은 명칭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협동조합이란 명칭은 사명 앞, 뒤 관계없다.

- ❖ 사업목적은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 ❖ 출자금 규모는 초기 사업자금이므로 초기 사업규모를 예상하여 결정하되 **1인 지분은 30% 미만**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 ❖ 발기인은 **5인 이상**으로 하되 서류 간소화를 위해 최소인원으로 하고 등기이사는 발기인 중에서 감사, 이사장 포함하여 4인 이상이면 된다.

- ❖ 설립신고 서류는 **총회 전에 미리 완전하게 준비해** 놓은 것이 좋다.

- ❖ 등기 시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사용승인서)가 필요하므로 **설립 전에 주 소재지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9)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

- ❖ 이사장은 **경영능력과 마케팅능력, 갈등조정능력,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바람직하다.
- ❖ 각종 서류나 업무의 외부 의뢰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서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작성 능력, 회계업무 능력**을 갖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합원이 있는 것이 좋다.
- ❖ 조합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를 잘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업무 흐름이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10) 지원기관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기관	지원업무	홈페이지 및 소재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육성, 설립, 일자리, 기업인증, 모니터링, 평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정보 제공.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지원, 컨설팅,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교육사업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기업 경영지원, 공간대관, 공공시장 진입상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모델개발, 주민 활동가 양성	전국 광역 시·도 지자체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특화 협동조합 발굴 및 지원	http://www.seoulcyber.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www.semas.or.kr
신협 협동조합 종합지원 플랫폼	협동조합 회계, 재무, 세무, 조직관리	https://www.cubizcoop.co.kr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 금융 지원	http://joyfulunion.or.kr

2. 마을기업 알아보기

(1)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인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2) 마을기업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을기업의 조건으로는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들 수 있다.

가. 기업성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통해 주 수입을 창출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다. 또한, 지속 가능해야 하며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나. 공동체성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고 모든 회원은 마을 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출자자는 5인 이상으로 마을 규모, 지역 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어야 하는데 10인 이상 출자가 바람직하다.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공공성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상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지역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하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하여야 한다(우수마을기업 선정 시 자부담 제외).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한다.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 기준)는 농촌 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하고, '구'가 없는 시(도농복합 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 간 연계가 가능하다.

(3) 마을기업 설립 시 고려사항을 알아보자

마을기업의 사업 주체는 지역 주민이다. 따라서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사업내용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보조금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므로 재정 건전성의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사업이지만 1년 후 법인 전환 조건 등 여타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표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가 충분한 경영철학을 가진 사람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4) 마을기업 사례를 살펴보자

가. 「㈜통인시장커뮤니티」

「㈜통인시장커뮤니티」는 종로구 통인동 재래시장의 ‘마을기업’으로 2011년 시장상인들을 중심으로 도시락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도시락 판매라는 사업 품목은 평범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도시락 판매방식에 차별화를 둔 것이다. 통인시장의 상인들은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카페’에서 판매하는 업전으로 손님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도시락 반찬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인시장은 전통성을 살린 지역 화폐로 이색적인 도시락을 체험하고자 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나. 「가마솥순두부(주)」

「가마솥순두부(주)」는 안동시에 있는 마을기업으로 평균 연령 60세 이상을 자랑하는 마을 주민 10명이 모여 설립했다. 이곳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농촌형 마을기업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콩을 가마솥에 끓여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순두부는 맛과 영양이 풍부해 마을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시설 확충으로 노니·인삼 등을 함유한 기능성 두부를 구상하고 있으며, 건강한 집밥을 판매하는 두부 전문점과 전통장류 생산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5) 신중년에게 마을기업이란?

가. 신중년에게 마을기업의 의미

시니어인 중장년·신중년 세대는 지역의 핵심 연령층으로, 위로 노년 세대와 아래로 청년세대를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한다. 지역에는 전 세대가 공존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공동체의 역할은 미약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이루어내고 지역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활동은 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돕는다. 가족과 직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새로운 일과 사회적 활동 욕구가 강한 신중년들의 마을기업 활동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 발굴과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나. 적합한 인력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해 주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자원(사람, 자연환경, 문화재, 소출물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공동체 정신과 시민성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다.

다. 장단점

퇴직·은퇴 세대인 신중년에게 일은 생계보다는 의미와 목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신중년에 매우 매력적이다. 지역 내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이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자원 발굴에도 유리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사업화와 상품화 능력도 탁월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과신하거나, 지나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할 경우 지역 주민의 원활한 협조와 참여에 외면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지역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6) 지원기관 및 설립사례를 알아보자.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1차년 5천만 원, 2차년 3천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이 지원 금액의 20% 이상 되어야 한다. 최초 지원일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연간 한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문턱 없는 밥집 사회적 협동조합(건강한 먹거리 판매), 성미산 좋은 날 협동조합(중증 장애인을 고용해 직접 유기농 공정무역), 통인시장 커뮤니티주식회사(통인시장의 활성화), 문화예술 협동조합 결애(북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각 지지체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신중년(5060) 협동조합 도전기 Q&A

협동조합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경기도 고양시 김○○ (62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IT서비스 업계에서 SW프로그래머로 종사하다 2000년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이후 3차례의 재창업을 반복하며 벤처업계에서 기술을 사업화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직책은 대표자로 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기획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3년도 동료들과의 갈등을 겪고 오랜 기간 종사했던 벤처업계 생활에 회의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사업화 성공 이후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견 차이를 두고 시작되었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하였고,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오랜 고민 끝에 동료들과 결별을 결정하였습니다.

Q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함께 소유하고, 경영하며, 노동하는 회사”라는 운영철학을 지키는 데 있어 주식회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일까 고민했고, 그것이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과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가닥을 잡은 후에는 사회적기업에 뜻을 두고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의 사업내용은 노후 주거문제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 현장학습을 병행했으며, 공공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2014년 사회적기업 창업교육과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참가했으며, 그다음 해엔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 선정되어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밀착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Q 퇴사 전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이전의 경력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무척 컸습니다.

Q 협동조합 설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A 협동조합에 대한 구상부터 실제 법인설립까지는 2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으며, 저와 뜻을 함께해 준 조합원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존재와 공공지원 사업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교육과정이 협동조합 설립에 큰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실용적인 교육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Q 협동조합을 설립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나이 50이 넘어 새로운 일을 도모하면서 이전과 같은 경제적 소득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달라진 소득과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 지향적인 활동을 추구하고 소비를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의 주된 소득을 책임지고 이런 저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무척 감사합니다.

Q 협동조합을 설립하기까지 도움 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2014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소셜벤처경연대회에 참가하였고, 2015년에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협동조합 설립 밀착지원 조연을 받았습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직책은 무엇인가요?

A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에 노후 주거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공통된 문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소그룹 공동체에 의한 협력적 주거’라는 새로운 주거 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소셜벤처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조합은 공동체 주거(한국형 코하우징)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 컨설팅, 공동체 주택 설립 시행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 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업무와 관련된 글쓰기, 강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면서 만족스러운 일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A 일단 협동조합에서 만족스러운 점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말로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 경험을 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도생의 삶이 더 익숙하여 서로서로를 소외시키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조합원의 존재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재무자산보다 이제는 관계 자산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서로에게 든든한 관계 자산의 보고입니다. 반면, 무임승차자 문제를 꼽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경영을 조직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본격적인 경제적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 자산이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협동조합이 쉽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은 만들기는 쉬울지 몰라도 운영은 쉽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업화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와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도 병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급하게 법인 설립부터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 서로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빨리 가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들이 서로 공감하는 목적과 필요를 분명히 하며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타인의 희생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역할과 책임을 배분해야 합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장착하라 나만의 내비게이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삶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을 전반과 똑같이 뚫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전략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돈-시간-행복’의 함수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인다면, 우리는 더 여유롭고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함께한다면 그 일은 더욱 보람될 것입니다.

신문 방송을 보면 매일같이 5060 세대에 대한 우울한 뉴스가 넘쳐 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5060 세대 집단에 대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쏟아지는 광고나 기사에 휘둘리지 말고 이 시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노년, 나이 들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기를 권합니다. 숨겨진 곳을 보고 수많은 문제의 틈 속에서 기회를 찾아본다면, 오롯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공헌일자리 살펴보기



1· 사회공헌 일자리란?

일반적으로 “비교적 적은 금전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한다. 스스로의 경제적 생활유지와 사회 전반의 건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당한 정도의 수입활동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혼합적인 형태(혼합형)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 자유롭고 탄력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공익목적의 사회참여와 지역단위 커뮤니티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건강한 시민성을 유지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인 이유(생계비나 노후자금 준비 등)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여 운영하는 ‘소득 중심 생계형 일자리’와는 구분된다. 또한, 일정 수준의 활동비(실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활동이기도 하다. 윤리·도덕적인 동기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무급의 자원봉사와 구분된다.

사회공헌 일자리 예시

- 일반적으로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인적자원이 부족한 분야로 알려진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분야 등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들로서 방과 후 학교 학습지도, 취약계층의 진로상담, 초등 돌봄 교실 돌보미 등의 교육활동에서 숲 체험 해설사, 문화 해설사, 문화재 지킴이, 공공복지 서포터, 시각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벤처, 지역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을기업, 사회구조의 부조리나 기존 산업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조합원들 중심으로 조직화되어가는 협동조합 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공헌을 위해 참여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

2.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은 주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제도화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고령화·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활동처	근무시간	인건비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사회공헌 활동사업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기회제공 및 참여자 기본교육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	월평균 30시간	실비보상 (활동실비, 참여수당)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직접 일자리	비영리단체 (지역아동센터 등) 평생교육센터 등	월평균 60시간	최저임금 이상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공익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공익형 일자리 제공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월평균 30시간	월 270천원 이내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서울시 50+보람 일자리	만 50세 ~67세 (서울시 거주자)	일자리제공	비영리법인 및 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공공행정기관 등	월 57 시간 이내	월 525천원
	부산시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만 50세 ~64세 (부산시 거주자)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시니어클럽 등	월 52 시간 이내	시간당 8천원
기업체	한화생명/생명보험 사회공헌 위원회	시니어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만 45세 이상	사회적경제 내 일자리 제공 (3개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월 57 시간 이내	월 600천원
	현대 자동차 등	굿잡 5060	만 45세 이상	핵심역량강화 교육 이후 활동처 연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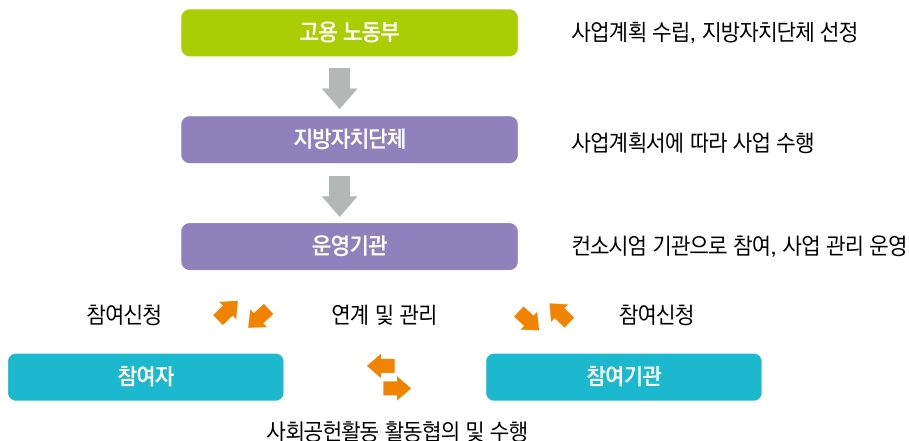
(1)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은 퇴직한 전문인력이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으로서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경력 3년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을 모집·선발하고 주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활동을 연계·지원한다.

참여자들은 활동이 연계된 기관에서 경영능력 제고 및 공익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13개 업무분야(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에서 역할을 담당하며 참여수당 및 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받는다.

| 그림 24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체계



★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19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무엇인가요?

신중년이 가진 풍부한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자리 형태로 제공하고, 신중년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19년에 신설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생 이모작을 위한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지역 아동 교육, 직업상담 등 퇴직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제공되며 주 15시간 이상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가 지급된다.

(3)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유형은 크게 1) 봉사 목적의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2) 근로를 목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의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공익활동의 경우, 참여자는 1인당 27만 원 이내, 수행기관은 부대경비로 1인당 14만 원(연간) 지원받을 수 있다.

| 표 24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구분	유형	주요내용	활동성격
노인 사회 활동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봉사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근로
	시장형 (취창업)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인력 파견형 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기업 연계형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4) 서울시 50+ 보람 일자리 사업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50+세대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한다.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로서 1차 다단계 심사, 2차 면접 전형을 통해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를 선발하며 공통 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 후 활동을 연계한다. 활동처는 세부사업별로 다양하며,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다. 활동 기간은 월 57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활동비와 교육, 상해보험 등을 지원¹⁰⁾한다.

(5)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은 무엇인가요?

퇴직 및 은퇴 등을 맞이 시작한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사회적 일자리와 2)시장형 일자리사업 3)인력파견사업으로 구분된다.

가. 사회적 일자리사업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제3섹터 창업, 사회봉사 등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시장형 일자리사업

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여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고령자 친화기업 및 협동조합 전환 등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인력파견사업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장년층을 해당 수요처에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소득창출을 지원한다.

※ 참여자는 만 50 이상 65세 미만의 부산 시민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전문인력이 필요한 일자리기관, 비영리단체·단체,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전문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를 우선 선발한다. 사회적 일자리는 월 52시간(주 14시간) 이내로 근무가 가능하며 시간당 8,000원 이내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10) 활동비 : 525,020원(원칙) = 57시간 × 9,211원(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교육실비(교육참여자) 1일 1만 원,
상해보험 : 1인당 연간 30,000원 가입

기업 사례 1

▶ 한화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시니어 사회적 경제 취·창업지원사업

주식회사 한화생명과 생명보험사회 공헌위원회가 후원하고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이 2014년부터 진행해온 “시니어 사회적 경제 취·창업지원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니어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특화된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은퇴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시니어 전문가로서 양성한다.

만 45세 이상의 은퇴 시니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소정기간의 교육 이수 후 서울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사회공헌 인턴십 매칭을 제공한다.

기업 사례 2

▶ 현대자동차 굿잡 5060

‘굿잡 5060’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대차 그룹의 신규 사회공헌 사업이다.

현대차 그룹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생 선발 워크숍 및 핵심역량 강화 교육 5주, 취·창업 멘토링 및 후속교육 12주 등 총 17주 동안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앞세워 신중년의 취업을 돕고 이어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매칭하여 5년간 신중년 일자리 500개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간의 교육 이수 후 서울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사회공헌 인턴십 매칭을 제공한다.

3· 사회공헌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과정을 살펴보자.

은퇴 중·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각종의 지원과 저변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스스로의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 재능과 역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제 2의 인생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주요 파트너가 될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례

건축·건설분야에서 설계와 감리 등의 근무경력이 있던 B씨는 은퇴 후, 중·장년 대상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킹도 좋아 자신감이 충만하였다. 마침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계승·발전과 대중적인 한옥보급의 미션이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설계 직원을 구인하던 중 B씨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고 매칭을 요청하였고, 사회공헌을 위한 인턴십 매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매칭 후, 지나친 자신감에 빠진 B씨는 권위적인 태도와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며, 약속한 근무 날짜를 쉽게 옮기거나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만을 근거하여 단체가 오랫동안 쌓아온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나이 어린 기존 직원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다. 결국, 활동처의 강한 요구에 의해 B씨의 인턴십은 종료되었다.

(1) 새로운 영역에 서서히 적응해 갈 수 있는 여유

영리 영역에서의 근로환경은 일반 조직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가령 공공영역의 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은 동질성 있는 구성원들이 직위·직급의 연공서열로 계층화된 구조에서 정해진 역할이나 과업을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고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의 이익(주로 경제적)을 우선시한다.**

반면 **시민사회(3 Sector)에 뿌리를 둔 비영리단체** 등은 대표자와 근로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복지의 수혜자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성향과 출신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수평적인 구조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 내·외의 공동이익을 달성해 나간다는 점이다.** 은퇴 전 일하던 조직들과는 달리,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구성원과의 상호존중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며 함께 성과를 달성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사회(3 Sector)의 인적 구성과 조직 운영원리 차이를 사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중·장년 은퇴자들은 “섹터 간 이동(Sector Change)”에서 오는 혼란에 종종 빠지곤 한다. 때로는 민주적인 소통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이 느려 답답함을 느끼거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배경지식과 이해관계가 다른 복잡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나 다툼도 있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을 빈번하게 느껴질수록 본인의 활동이나 속해 있는 단체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로 이어지게 된다.

처음부터 높은 기대감을 갖고 무턱대고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를 살핀다는 배움의 자세로 관련 단체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활동 단체가 정해진 이후에는 기존의 일터에서 갖고 있었던 권위의식을 버리고 본인이 속한 단체를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여유 있는 마음 준비도 요구하다.

사례

식품회사에서 오랫동안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은퇴 후에는 간간히 지인이 운영하는 헤드헌팅 업체에서 활동해오던 C씨는 본인 커리어의 마지막을 사회적 경제에서 함께하고자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특정한 관심분야를 두지 않았던 C씨는 30대 후반의 젊은 CEO가 운영하는 중장년 대상의 취·창업 교육기관으로 인턴십이 매칭되었다. 당초 중장년 중심의 커뮤니티 구성을 위해 이를 담당할 은퇴 시니어의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 속에서 C씨는 단발로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교육생 모집과 강사섭외 등의 실무를 열정적으로 해내어 대표자의 신뢰를 얻고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하지만 교육을 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사업제안 및 문서작성 등의 행정업무의 역량이 더 크게 요구되었고, 이에 대한 개인의 준비와 보완 노력이 병행되지 않은 C씨는 회사 내부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자연스럽게 퇴사하게 되었다.

(2)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기 역량개발

많은 비영리단체들은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의 부족한 서비스를 채우거나 민간 기업들의 자원조달을 통해 사회공헌 및 사회문제 해결의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안서 작업의 비중이 높고 외부 파트너들과의 원활한 소통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경제기업의 종사자들에게는 **기본적인 문서작성 능력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 또한, 원만한 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중·고령자들 중 일부는 기초적인 실무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전 직장에서 그들의 경력과 경험, 전문성은 이미 충분하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수동적인 대응만으로 성과 달성이 가능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의 사회는 한정된 자원으로 특정되지 않은 업무분야를 통제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별개로 새로운 환경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세련되고 능숙한 업무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새롭고 참신한 사업기획과 관리, 공익목적의 활동을 대중들에게 좀 더 폭넓게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기술 그리고 여럿의 활동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하게 협력해갈 수 있는 각종 협업 툴 사용법 등이 이것에 속한다.

본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한, 제 2의 커리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본인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계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공헌 일자리(1)

신중년(5060) 사회공헌 일자리 도전기 Q&A

사회공헌 일자리로 제 2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서울특별시 박○○ (63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였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저는 25년의 직장생활 동안 2곳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10년을 근무했던 회사는 '○○상선 주식회사'로 이곳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출입 화물의 영업과 마케팅, 고객 지원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15년간 근무했던 곳은 회계 컨설팅 분야의 '○○회계법인'으로 이곳에서 저는 시니어 매니저(이사)로 재직하며 회원사와의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책과 별개로 사내 구성원의 의무적 책무인 '전문가 사회적 재능기부' 실천이라는 명제의 실질적인 기획과 실행을 책임졌습니다. 저는 제가 몸담았던 법인에서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내 봉사단체를 조직적으로 구축하여 매년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행사를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인 ○○상선의 입사 시기는 90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진취적인 현대의 기업관이 개인 가치관과 맞아 공채로 입사하였고 10년 후 새로운 인생과 개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회계법인으로 이곳에서의 입사가 계기가 되어 세 번째 직장이었던 ○○회계법인에서 15년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매우 개인적인 사항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회계·컨설팅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 퇴사 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Q 사회공헌 일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전문가 재능기부라는 사회공헌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면서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퇴사를 결심한 후에도 이러한 경력이 기반이 되어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별한 계기나 결심으로 사회공헌 일을 시작했다기보다 직장 일의 연장이자 정책의 영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5~6년의 기간 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슴 벅찬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해보면 이것이 제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퇴사 이전 쌓았던 관련 직무의 경험들도 사회공헌 일자리를 갖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퇴사 전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25년간 긴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퇴사 후 2~3년 간 휴식을 생각하고 있었고, 준비 시간도 많아 막역한 두려움이나 상실감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 1년간은 즐겁게 자유를 만끽했고, 그 후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의 취업은 어렵다고 판단 되어 그동안의 경험 자산을 살려 사회공헌 분야에 입문했습니다.

Q 사회공헌 일자리로 재취업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A 2015년 퇴사 후 2018년 재취업까지 약 3년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퇴사 하여 본격적으로 재취업에 매진한 시기는 2016년 중순부터이며, 정식으로 취업이 된 것은 2018년 8월부터입니다. 퇴사 후 1년간의 휴식기를 가졌으며, 2016년도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신나는조합 시니어 인턴 과정을 수료하여 ○○협동조합에서 6개월 인턴생활 시작했으며, 2018년 해당 협동조합에 정식으로 재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사회공헌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A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은 재직 당시 쌓았던 관련 분야의 경험 자산들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분야 진입에 도움이 되었던 시니어 재취업 인턴 과정 수료입니다. 하지만 전 직장의 경험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학습과 역량개발이 없었더라면 재취업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가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Q 사회공헌 일자리로 재취업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퇴사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대비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평생 해오던 일을 내려놓고 노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퇴사 후 계획이 휴식이었으나 사회적인 활동이나 역할 없이 노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의 경우 보수가 적어 상대적 상실감이 있었지만, 금전적 소득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에 무게를 두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Q 사회공헌 일자리로 재취업 하기까지 도움 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전문위원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진입 계기가 되었던 “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전문성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신나는 조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심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기여한 “○○협동조합”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직책은 무엇인가요?

A 저의 직책은 전문위원으로 현재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현 직업에서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만족은 일선에서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 보람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소득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생계가 어려워 사회적 가치를 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소득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겨집니다.

Q **사회공헌 일자리를 준비하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저도 아직 갈 길이 멀고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다른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단지 운이 좋아 훌륭한 협력기관인 신나는 조합을 만날 수 있었고,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조언을 한다면 중간 조직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전에 준비를 아주 많이, 지나칠 정도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과거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관과 기업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한 면이 많아서 겉모습만 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뛰어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배려와 포용, 긍정적인 마인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2)

신중년(5060) 사회공헌 일자리 도전기 Q&A

사회공헌 일자리로 보람과 성취를 느낍니다.



서울특별시 조○○ (62년생)

Q 퇴직 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회사와 담당업무, 퇴사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A ○○생명보험에서 경영기획, 지식경영, 인사·노사·총무(경영지원), 법무·홍보·감사 등 주로 경영관리부문에서 본부장 및 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1991년 6월 입사, 2016년 말 임원으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후 그룹 내 관계사 이동으로 ○○자산운용과 ○○사회복지법인 및 장학재단에서 그룹 사회공헌(사회봉사단) 총괄과 두 재단의 사무국 운영총괄업무(상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습니다.

Q 사회공헌 일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기존의 지식과 경력을 최대한 활용 가능한 점을 꼽고 싶습니다. 회사 사회공헌팀 및 그룹 사회봉사단, 사회복지재단 근무 경험을 가졌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후까지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의 기회이자 역할이라는 인식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픈 마음입니다.

사내외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과 관련 교육과정 및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갖고 있는 교육 이수 내역과 자격으로는 사회복지학 학사 및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였고, 청소년교육학 학사 및 청소년지도사 2급도 취득하였습니다.

Q 퇴사 전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A 퇴직 후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 불안이 있었습니다. 기대와 다른 부담감과 인내심에 대한 우려 및 좌절감으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Q 사회공헌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A 현재의 사회적기업 사내 인사·노무분야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재취업 및 근무 시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성공요인으로서는 사이버대와 방통대를 통한 관련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공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자격증의 취득하고 직·간접적인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필요계층과 기관에 대한 봉사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Q 사회공헌 일자리로 재취업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가족 간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결여 및 자괴감이 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가족들과는 저의 생각과 각오를 공유한 후 지지를 얻었습니다. 재취업 시, 근무여건에 대한 적응과 미래의 비전이 중요했으나, 스스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Q 사회공헌 일자리로 재취업 하기까지 도움 받은 기관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50+캠퍼스, 신나는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입니다.

- 시니어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사업 수료(2017. 04, 2017. 05)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전문강사 양성연수 수료(2017. 05)
- 영등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협동조합 창업아카데미과정 수료(2017. 05)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매니저 양성과정, ○○대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2017. 06, 2017. 12)

- Senior Intern(사회적경제전문가, ○○조합 : 2017. 06, 2017. 09) 등
- 기타 다양한 사회활동프로그램 참여 :
 - * 서울특별시, 광화문포럼 시민참여단, 인터넷 시민감시단, 3.1운동 100주년 기념 310 시민위원 활동
 -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Pool, 사회공헌 혁신 전문가 Pool (사회공헌정보센터), 창업보육 매니저, 기업현장교사 등

Q 현재 하시는 일과 직책은 무엇인가요?

A CSR활동 총괄을 하는 곳입니다. 불용 컴퓨터(공공기관·공기업·학교 등)의 기증 활성화 및 정보(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 수리·기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참여 기획 및 실행을 관리합니다. 저는 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담당과 전무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성과 현실적 여건상, 대기업 근무 경험을 활용한 CEO 보좌 및 내부 경영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현 직장에서 지금 가장 만족스러운 일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A 기획, 실행, 평가의 과정 속에서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가 가능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브랜드 인지도, 인력·자금 등의 투자자원 및 처우 등 한계가 있습니다.

Q 사회공헌 일자리에 관심 있는 신중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심을 바탕으로 크든 작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를 통해 성취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단단한 각오와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지지와 소득을 기대하기보다는 본인의 자긍심과 사회적 성취를 얻고자 더욱 새로운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재취업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가치관 및 생활관의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인생 3막을 위한 신중년의 재도전



Chapter

IV

신중년에게 필요한 정보, 이모저모

- 14 직업경력을 활용한 이·전직 가능 직업 알아보기
- 15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알아보기
- 16 재취업을 위한 채용지원서 작성 꿀팁
- 17 신중년 재취업 지원 정책

14

직업경력을 활용한 이·전직 가능 직업 알아보기



- ❖ 신중년 경험 직업의 5가지 특성(업무환경, 요구 학력, 일반 업무활동,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전직이 가능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신중년 재취업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 직업별 이·전직 가능 직업 선정에는 직업 특성 유사성, 입직가능성(공공행정사무원 등 별도의 채용 과정 존재 여부, 의사와 같이 면허 요구 여부), 노동수요(도선사 등 수요가 많지 않은 직업 여부), 3개월 이내의 직업훈련을 통한 입직가능성, 국민에 의한 선출 또는 임명직(의회의원 등)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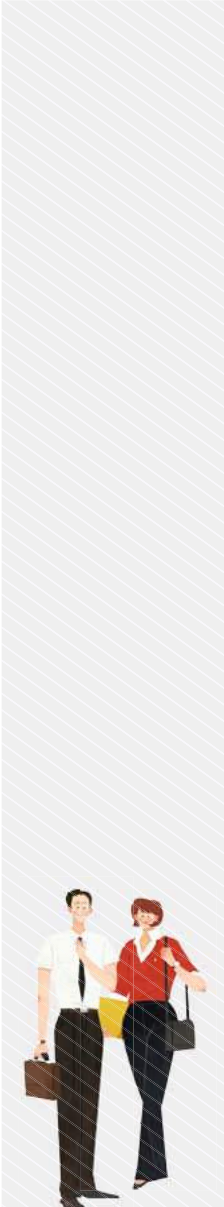
1 경력 직업군 : 관리자	경력 직업명	이·전직 가능 직업명
	경영지원관리자	마케팅·광고·홍보관리자(부서장) 영업 및 판매관리자 광고·홍보·마케팅전문가 제품생산관련관리자 경영컨설턴트
	마케팅·광고·홍보관리자 (부서장)	경영지원관리자 금융관리자 행사기획자 광고·홍보·마케팅전문가 전시·회의기획자 영업 및 판매관리자 마케팅조사전문가 경영컨설턴트 기업고위임원 상품기획자 출판물기획자

1 경력 직업군 : 관리자	경력 직업명	이·전직 가능 직업명
	여행관리자	호텔관리자 경영지원관리자 마케팅·광고·홍보관리자(부서장) 관광통역안내원 상품기획자 영업 및 판매관리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영업 및 판매관리자	경영지원관리자 사회단체활동가 마케팅·광고·홍보관리자(부서장) 기술영업원 해외영업원

2 경력 직업군 : 사무 관련직	경력 직업명	이·전직 가능 직업명
	인적자원전문가 (전직지원전문가포함)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직업상담사 경영기획사무원 사회단체활동가 노무사
	광고·홍보·마케팅전문가	행사기획자 전시·회의기획자 마케팅·광고·홍보관리자(부서장) 경영지원관리자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상품기획자 경영컨설턴트 공연기획자 마케팅조사전문가

2 경력 직업군 : 사무 관련직	경력 직업명	아·전직 가능 직업명
	상품기획자	광고·홍보·마케팅전문가 전시·회의기획자 광고디자이너 출판물기획자 마케팅·광고·홍보관리자(부서장)
	행사기획자	전시·회의기획자 광고·홍보·마케팅전문가 마케팅·광고·홍보관리자(부서장) 경영지원관리자 공연기획자
	경영기획사무원	총무 및 일반사무원 감사사무원 인사·교육·훈련사무원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경영지원관리자 자재관리사무원 광고·홍보·마케팅전문가 상품기획자 사회단체활동가 경영컨설턴트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통계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총무 및 일반사무원 상품기획자 영업 및 판매관리자 시장 및 여론조사관리자 행사기획자 전시·회의기획자 마케팅·광고·홍보관리자(부서장) 광고·홍보·마케팅전문가 사회단체활동가

2

경력 직업군 :
사무 관련직

경력 직업명	이·전직 가능 직업명
인사·교육·훈련사무원	인적자원전문가(전직지원전문가포함) 경영기획사무원 총무 및 일반사무원 경영지원관리자 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영컨설턴트
총무 및 일반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통계사무원 영업 및 판매관리자 인사·교육·훈련사무원 광고·홍보·마케팅사무원 생산관리사무원 경영지원관리자 품질관리사무원 법률사무원(법원, 로펌, 법무사무소등)
회계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총무 및 일반사무원 은행사무원(출납창구제외) 경영지원관리자 감사사무원 보험사무원 손해사정사 세무사 건물관리원 회계사 무역사무원
경리사무원	회계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총무 및 일반사무원 은행사무원(출납창구제외) 보험사무원 감사사무원

2 경력 직업군 : 사무 관련직	경력 직업명	아·전직 가능 직업명
	무역사무원	총무 및 일반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영업 및 판매관리자 관세사 경리사무원 해외영업원
	자재관리사무원	총무 및 일반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생산관리사무원 품질관리사무원 경영지원관리자 제품생산관련관리자 위험관리원
	생산관리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총무 및 일반사무원 품질관리사무원 산업안전원 제품생산관련관리자 자재관리사무원
	품질관리사무원	식품공학시험원 생산관리사무원 자재관리사무원 제품생산관련관리자 건설자재시험원 전기·전자공학시험원 화학공학시험원 금속·재료공학시험원 환경시험원 섬유공학시험원(섬유·염료)

3 경력 직업군 : 건축 및 토목 관련직	경력 직업명	이·전직 가능 직업명
	건축시공기술자 건축설비기술자 토목시공기술자 조경기술자	지적 및 측량기술자 토목감리기술자 위험관리원 에너지진단전문가 토목안전·환경·품질기술자 조경기술자 토목시공기술자 산업안전원 건설·채굴관리자 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기술자 건축설비기술자 토목구조설계기술자 건축감리기술자 건물관리원

4 경력 직업군 : 설치 및 정비 관련직	경력 직업명	이·전직 가능 직업명
	공업기계설치및정비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설치·정비원 보일러설치·정비원 건설·광업용기계설치·정비원	건설·광업용기계설치·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설치·정비원 보일러설치·정비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설치 및 정비원 자동차정비원 철도기관차·전동차정비원 공업기계설치 및 정비원 산업안전원 산업전기공(항공기·선박·철도기관차·전동차전기공)

5 경력 직업군 : 기계 조작 관련직	경력 직업명	이·전직 가능 직업명
	금속공작기계조작원 냉·난방설비조작원 일반기계조립원 금속가공관련조작원	금속가공관련조작원 일반기계조립원 냉·난방설비조작원 목재가공기계조작원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금속가공제어장치조작원 (용광로·용해로·금속가열로) 유리제조 및 가공기조작원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신발제조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재활용처리장치·소각로조작원 공구제조원(치공구포함) 금형원 단조원
	제관원 주조원(목형원, 원형원, 주형원) 용접원 도장기조작원 도금·금속분무기조작원 유리제조 및 가공기조작원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광석·석제품생산기계조작원 비금속광물가공관련조작원	유리제조 및 가공기조작원 금형원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용접원 판금원(덕트원포함) 도금·금속분무기조작원 주조원(목형원, 원형원, 주형원) 도장기조작원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광석·석제품생산기계조작원 비금속광물가공관련조작원

6

경력 직업군 :
전기·전자 설치 및
조작 관련직



경력 직업명

내선전기공
(건물내전기공사원)
사무용전자기기설치·수리원
(컴퓨터제외)
전기·전자설비조작원
전기부품·제품생산기계조작원
전자부품·제품생산기계조작원
전기·전자부품·제품조립원

이·전직 가능 직업명

전기·전자설비조작원
내선전기공(건물내전기공사원)
산업전기공(항공기·선박·철도기관차·전
동차전기공)
전기부품·제품생산기계조작원
전기안전기술자
전기계측제어기술자(전기패널, 계장,
공정자동화전기등)
사무용전자기기설치·수리원(컴퓨터
제외)
전기부품·제품생산기계조작원
건물관리원
전자부품·제품생산기계조작원
산업안전원
전기·전자부품·제품조립원
발전장치조작원

7

경력 직업군 :
화학 제품 조작 및
조립 관련직



경력 직업명

타이어·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이·전직 가능 직업명

화학물가공장치조작원
타이어·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석유·천연가스제조제어장치조작원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산업안전원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알아보기

아래 구인·구직사이트는 국내 2개 인터넷 포털사이트(naver.com, daum.net)에서
구인, 구직 등과 같은 키워드 입력을 통해 표출된 사이트를 순서대로 일부만을 제시



1. 종합 구인·구직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IP	전화번호
워크넷	https://www.work.go.kr/	1577-7114
리크루트	http://www.recruit.co.kr/	02-3473-0833
모이자취업센터	http://job.moyiza.com/	02-0647-3214
사람인	http://www.saramin.co.kr/	02-2025-4733
서울잡코리아	http://www.seouljobkorea.com/	-
스카우트	http://www.scout.co.kr/	02-3482-3366
스피드잡	http://www.speedjob.kr/	02-888-6011
실버와	http://www.silverwa.com/	02-418 2432
에코잡	http://www.ecojob.re.kr/	02-2284-1191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http://www.iljarihub.or.kr/	02-369-0963
월드잡	https://www.worldjob.or.kr/	1577-9997
이엔지잡	http://www.engjob.co.kr/	02-994-3693
인크루트	http://www.incruit.com/	1588-6577
일자리	http://iljari.com/	053-593-4220
잡부산시대	http://job.busansidae.com/	051-939-3300
잡서울	http://www.jobseoul.co.kr/	051-804-0683
잡아바!	https://www.jobaba.net/	031-270-9988
잡코리아	https://www.jobkorea.co.kr/	1588-9350
잡플래닛	https://www.jobplanet.co.kr/	1644-5641
잡피온닷컴	http://www.jobpion.com/	1544-6862
커리어	http://www.career.co.kr/	02-2006-9594
커밋	http://www.commeet.co.kr/	1644-1182

2. 직종·업종별 구인·구직 사이트

직종/업종	사이트명	사이트 IP	전화번호
건설	건설워커	http://www.worker.co.kr/	02-994-3693
	굴삭기기사구인	http://jjbi.guinnet.com/	1522-8219
	목수잡	http://www.mokgongjob.com/	070-7729-3351
게임	게임잡	http://www.gamejob.co.kr/	02-2189-1307
골프	골프 구인·구직	http://www.golfjob.org/	1522-8219
미용	네일아트 구인	http://nailart.guinnet.com/	070-4633-3880
	미용구인·구직	http://help.gapia.com/	070-7729-3351
	헤어구인114	http://www.hairguin114.com/	02-3143-3331
	헤어구인·구직	http://www.hairguin.com/	-
보육	베이비시터구인·구직	http://www.homedoumi.com/	070-7729-3351
	보육교사 구인·구직	http://boyuk.guinnet.com/	1522-8213
	보육교사구인·구직 보육잡	http://www.bo6.co.kr/	070-7729-3351
	어린이집구인·구직	http://www.kinderjob.co.kr/	070-7729-3351
보험	보험구인잡	http://bohum.guinnet.com/	03-6821-7152
복지	사회복지사구인	http://bokji.guinnet.com/	1522-8219
스포츠	레포츠잡	http://www.leportsjob.com/	02-2018-0006
	요가강사구인 요가잡	http://www.yogajob.net/	070-7729-3351
식품	농식품일자리포털	http://www.agrijob.kr/	1811-8656
어업	어업인일자리	http://www.happybada.co.kr/	080-550-3651
음식	조리사구인·구직	http://www.yoriyorijob.com/	070-7729-3351
	쿡 파인드잡	http://www.cookfindjob.co.kr/	070-7785-3919
	한국외식업 구인·구직	http://www.foodsjob.co.kr/	02-6191-2930
의료	넬스잡	http://www.nursejob.co.kr/	1544-5968
	덴탈잡	http://www.dentaljob.co.kr/	080-801-1580
	메디잡	http://www.medijob.cc/	02-742-0111
	병원 구인·구직 병원잡	http://www.byeongwonjob.com/	1833-8591
	요양나라 요양보호사구인·구직	http://www.yoyangnara.com/	02-2015-0001
	치료사구인 치료사잡	http://www.progangsajob.com/	070-7729-3351
	피부관리사구인	http://pibu.xdesign.kr/	1522-8219
학원	수학강사구인	http://www.mgangs.com/	070-7729-3351
호텔	호텔구인잡	http://www.hotelguinjob.com/	02-515-5175

3. 지역기반 구인·구직 사이트

지역	사이트명	사이트 IP	전화번호
서울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http://seoulhomelessjc.or.kr/	02-365-7085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https://www.50plus.or.kr/	1661-5516
부산	50플러스 부산포털	http://www.busan50plus.or.kr/	051-862-6644
	부산경총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http://busanjob.or.kr/	051-647-0452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http://www.jobablebusan.or.kr/	1588-1519
	부산일자리정보망	http://www.busanjob.net/	1688-0019
	잡부산시대	http://job.busansidae.com/	051-939-3300
인천	인천일자리포털	http://job.incheon.go.kr/	120
울산	울산 일자리지원센터	http://ulsan.work.go.kr/	052-229-272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지원센터	http://sejong.work.go.kr/	044-300-4038
경기	경기북부취업센터	http://www.ngjc.org/	031-919-0467
	경기일자리센터	http://gyeonggi.work.go.kr/	1577-0019
	수원일자리센터	http://jobayou.kr/	031-228-3882
강원	강원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http://www.armyjob.kr/	033-255-6455
	황성군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http://hsjob.co.kr/	033-343-9092
충남	계룡시 일자리 안내센터	http://job.gyeryong.go.kr/	042-840-2114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http://www.scec.or.kr/	041-953-1919
전북	전북노인일자리센터	http://www.jbsilver.net/	063-255-9114
전남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http://www.najuwork.net/	061-333-6801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http://job.jeonnam.go.kr/	061-287-1146
경남	마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http://www.masansj.com/	055-221-8447
	밀양시 일자리지원센터	http://jobs.miryang.go.kr/	055-359-5598
	양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http://yangsansj.or.kr/	055-392-5651~3
	진주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http://www.jej.or.kr/	055-744-6088
	창원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http://www.changwon6588.or.kr/	055-286-6588
제주	제주 수놓음 일자리지원센터	http://www.jobjeju.net/	064-721-0771

4. 시·도 지역워크넷

지역	사이트 IP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청	http://busan.work.go.kr/	051-888-6915
부산광역시 서구청	http://busan.work.go.kr/seo/	051-240-6686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http://busan.work.go.kr/yeongdo/	051-419-4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http://busan.work.go.kr/busanjin/	051-605-4348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http://busan.work.go.kr/dongnae/	051-550-4936
부산광역시 남구청	http://busan.work.go.kr/nam/	051-607-4347
부산광역시 북구청	http://busan.work.go.kr/buk/	051-309-43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http://busan.work.go.kr/haeundae/	051-749-4348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http://busan.work.go.kr/saha/	051-220-569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http://busan.work.go.kr/geumjeong/	051-519-4297~8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http://busan.work.go.kr/gangseo/	051-970-449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http://busan.work.go.kr/yeonje/	051-851-191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http://busan.work.go.kr/suyeong/	051-610-4826~8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http://busan.work.go.kr/sasang/	051-310-5205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http://busan.work.go.kr/gijangn/	051-709-4377~9
대구광역시 동구청	http://daegu.work.go.kr/dong/	053-662-266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http://daegu.work.go.kr/suseong/	053-666-4800
인천광역시청	http://incheon.work.go.kr/	1600-1982
인천광역시 중구청	http://incheon.work.go.kr/jung/	032-760-6926
인천광역시 동구청	http://incheon.work.go.kr/dong/	032-770-665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http://incheon.work.go.kr/namdong/	032-453-2497~8
광주광역시청	http://gwangju.work.go.kr/	1899-1907
광주광역시 서구청	http://gwangju.work.go.kr/seo/	062-360-7169
대전광역시청	http://daejeon.work.go.kr/	1644-8644
대전광역시 동구청	http://daejeon.work.go.kr/dong/	042-251-4635~8
대전광역시 중구청	http://daejeon.work.go.kr/jung/	042-606-7245
대전광역시 서구청	http://daejeon.work.go.kr/seo/	042-288-249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http://daejeon.work.go.kr/yuseong/	042-611-213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http://daejeon.work.go.kr/daedeok/	042-608-6914
울산광역시청	http://ulsan.work.go.kr/	052-228-3980
울산광역시 중구청	http://ulsan.work.go.kr/jung/	052-290-3596
울산광역시 남구청	http://ulsan.work.go.kr/nam/	052-226-3644~5
울산광역시 동구청	http://ulsan.work.go.kr/dong/	052-209-6976~9

지역	사이트 IP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http://ulsan.work.go.kr/buk/	052-241-8648~9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http://ulsan.work.go.kr/ulju/	052-204-1356~9
세종특별자치시청	http://sejong.work.go.kr/	044-300-4038
경기도청	http://gyeonggi.work.go.kr/	1577-0019
경기도 수원시청	http://gyeonggi.work.go.kr/suwon/	031-228-3875~9
경기도 성남시청	http://gyeonggi.work.go.kr/seongnam/	031-729-4420
경기도 의정부시청	http://gyeonggi.work.go.kr/uijeongbu/	031-828-2875~9
경기도 안양시청	http://gyeonggi.work.go.kr/anyang/	031-8045-2106
경기도 부천시청	http://gyeonggi.work.go.kr/bucheon/	032-625-8434~9
경기도 광명시청	http://gyeonggi.work.go.kr/gwangmyeong/	02-2680-6273
경기도 평택시청	http://gyeonggi.work.go.kr/pyeongtaek/	031-646-1004~9
경기도 동두천시청	http://gyeonggi.work.go.kr/dongducheon/	031-860-3121~5
경기도 안산시청	http://gyeonggi.work.go.kr/ansan/	031-481-2919
경기도 과천시청	http://gyeonggi.work.go.kr/gwacheon/	02-3677-2451~2
경기도 구리시청	http://gyeonggi.work.go.kr/guri/	031-550-2318-20
경기도 남양주시청	http://gyeonggi.work.go.kr/namyangju/	031-590-1919
경기도 오산시청	http://gyeonggi.work.go.kr/osan/	031-8024-9857~60
경기도 시흥시청	http://gyeonggi.work.go.kr/siheung/	031-310-6280
경기도 군포시청	http://gyeonggi.work.go.kr/gunpo/	031-390-0227
경기도 의왕시청	http://gyeonggi.work.go.kr/uiwang/	031-345-2465~8
경기도 하남시청	http://gyeonggi.work.go.kr/hanam/	031-790-6890
경기도 용인시청	http://gyeonggi.work.go.kr/yongin/	031-289-2262~7
경기도 파주시청	http://gyeonggi.work.go.kr/paju/	031-940-5064~67
경기도 이천시청	http://gyeonggi.work.go.kr/icheon/	031-632-1919
경기도 안성시청	http://gyeonggi.work.go.kr/anseong/	031-686-1760
경기도 김포시청	http://gyeonggi.work.go.kr/gimpo/	031-996-7615~9
경기도 화성시청	http://gyeonggi.work.go.kr/hwaseong/	031-369-4211~3
경기도 광주시청	http://gyeonggi.work.go.kr/gwangju/	031-760-0019
경기도 양주시청	http://gyeonggi.work.go.kr/yangju/	031-849-2340~4
경기도 포천시청	http://gyeonggi.work.go.kr/pocheon/	031-538-3115
경기도 여주시청	http://gyeonggi.work.go.kr/yeoju/	031-887-2690~4
경기도 연천군청	http://gyeonggi.work.go.kr/yeoncheon/	031-839-2980
경기도 가평군청	http://gyeonggi.work.go.kr/gapyeong/	031-580-2956
경기도 양평군청	http://gyeonggi.work.go.kr/yangpyeong/	031-770-1020

지역	사이트 IP	전화번호
강원도청	http://gangwon.work.go.kr/	033-249-2019
강원도 춘천시청	http://gangwon.work.go.kr/chuncheon/	033-250-3782
강원도 강릉시청	http://gangwon.work.go.kr/gangneung/	033-640-5953
강원도 삼척시청	http://gangwon.work.go.kr/samcheok/	033-570-3379
강원도 홍천군청	http://gangwon.work.go.kr/hongcheon/	033-430-2843
강원도 횡성군청	http://gangwon.work.go.kr/hoengseong/	033-340-2096
강원도 영월군청	http://gangwon.work.go.kr/yeongwol/	033-370-1765
강원도 정선군청	http://gangwon.work.go.kr/jeongseon/	033-560-2439
강원도 철원군청	http://gangwon.work.go.kr/cheorwon/	033-450-5359
강원도 화천군청	http://gangwon.work.go.kr/hwacheon/	033-440-2389
강원도 고성군청	http://gangwon.work.go.kr/goseong/	033-680-3434
강원도 양양군청	http://gangwon.work.go.kr/yangyang/	033-670-2978
충청북도청	http://chungbuk.work.go.kr/	1644-9142
충청북도 청주시청	http://chungbuk.work.go.kr/cheongju/	043-221-9191
충청북도 제천시청	http://chungbuk.work.go.kr/jecheon/	043-641-6635
충청북도 보은군청	http://chungbuk.work.go.kr/boeun/	043-543-9172
충청북도 옥천군청	http://chungbuk.work.go.kr/okcheon/	043-730-3396
충청북도 증평군청	http://chungbuk.work.go.kr/jeungpyeong/	043-838-4191~2
충청북도 괴산군청	http://chungbuk.work.go.kr/goesan/	043-833-9772
충청북도 음성군청	http://chungbuk.work.go.kr/eumseong/	043-871-3636~8
충청남도청	http://chungnam.work.go.kr/	041-539-4551~4
충청남도 천안시청	http://chungnam.work.go.kr/cheonan/	041-620-9533
충청남도 공주시청	http://chungnam.work.go.kr/gongju/	041-840-8304
충청남도 보령시청	http://chungnam.work.go.kr/boryeong/	041-930-6273
충청남도 서산시청	http://chungnam.work.go.kr/seosan/	041-660-3149
충청남도 금산군청	http://chungnam.work.go.kr/geumsan/	041-750-2659
충청남도 부여군청	http://chungnam.work.go.kr/buyeo/	041-830-2265
충청남도 청양군청	http://chungnam.work.go.kr/cheongyang/	041-940-2332
충청남도 홍성군청	http://chungnam.work.go.kr/hongseong/	041-630-1355
충청남도 예산군청	http://chungnam.work.go.kr/yesan/	041-339-7284
충청남도 태안군청	http://chungnam.work.go.kr/taean/	041-670-2843
전라북도청	http://jeonbuk.work.go.kr/	1577-0365
전라북도 전주시청	http://jeonbuk.work.go.kr/jeonju/	063-281-2812~3
전라북도 정읍시청	http://jeonbuk.work.go.kr/jeongeup/	063-539-5645

지역	사이트 IP	전화번호
전라북도 완주군청	http://jeonbuk.work.go.kr/wanju/	063-290-3114
전라북도 진안군청	http://jeonbuk.work.go.kr/jinan/	063-430-2539
전라북도 무주군청	http://jeonbuk.work.go.kr/muju/	063-320-2114
전라북도 장수군청	http://jeonbuk.work.go.kr/jangsue/	063-352-7898
전라북도 임실군청	http://jeonbuk.work.go.kr/imsil/	063-640-2463
전라북도 순창군청	http://jeonbuk.work.go.kr/sunchang/	063-650-1997
전라북도 고창군청	http://jeonbuk.work.go.kr/gochang/	063-560-2366
전라남도청	http://jeonnam.work.go.kr/	061-287-1142~3
전라남도 목포시청	http://jeonnam.work.go.kr/mokpo/	061-270-8789
전라남도 여수시청	http://jeonnam.work.go.kr/yeosu/	061-664-2114
전라남도 순천시청	http://jeonnam.work.go.kr/suncheon/	061-720-9178~9
전라남도 광양시청	http://jeonnam.work.go.kr/gwangyang/	061-797-3352
전라남도 담양군청	http://jeonnam.work.go.kr/damyang/	061-381-9211
전라남도 영광군청	http://jeonnam.work.go.kr/yeonggwang/	061-350-5517
경상북도청	http://gyeongbuk.work.go.kr/	1544-8819
경상북도 경주시청	http://gyeongbuk.work.go.kr/gyeongju/	054-760-7962
경상북도 김천시청	http://gyeongbuk.work.go.kr/gimcheon/	054-439-1919
경상북도 안동시청	http://gyeongbuk.work.go.kr/andong/	054-840-6843
경상북도 문경시청	http://gyeongbuk.work.go.kr/mungyeong/	054-550-6767
경상북도 경산시청	http://gyeongbuk.work.go.kr/gyeongsan/	054-667-6862
경상북도 청송군청	http://gyeongbuk.work.go.kr/cheongsong/	054-870-6453
경상북도 영덕군청	http://gyeongbuk.work.go.kr/yeongdeok/	054-730-6744
경상북도 고령군청	http://gyeongbuk.work.go.kr/goryeong/	054-950-6583
경상북도 칠곡군청	http://gyeongbuk.work.go.kr/chilgok/	054-979-6552
경상북도 예천군청	http://gyeongbuk.work.go.kr/yecheon/	054-650-6827
경상남도청	http://gyeongnam.work.go.kr/	055-265-8219
경상남도 창원시청	http://gyeongnam.work.go.kr/changwon/	055-225-3357
경상남도 진주시청	http://gyeongnam.work.go.kr/jinju/	055-749-8185
경상남도 통영시청	http://gyeongnam.work.go.kr/tongyeong/	055-650-0918
경상남도 양산시청	http://gyeongnam.work.go.kr/yangsan/	055-392-2929
경상남도 의령군청	http://gyeongnam.work.go.kr/uiryeong/	055-570-2808
경상남도 함안군청	http://gyeongnam.work.go.kr/haman/	055-580-2547~8
경상남도 창녕군청	http://gyeongnam.work.go.kr/changnyeong/	055-530-1175~6
경상남도 남해군청	http://gyeongnam.work.go.kr/namhae/	055-860-3235

지역	사이트 IP	전화번호
경상남도 하동군청	http://gyeongnam.work.go.kr/hadong/	055-880-2197
경상남도 함양군청	http://gyeongnam.work.go.kr/hamyang/	055-960-5188
경상남도 거창군청	http://gyeongnam.work.go.kr/geochang/	055-949-6502
경상남도 합천군청	http://gyeongnam.work.go.kr/hapcheon/	055-930-3394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jeju.work.go.kr/	064-710-4442

5. 단기일거리 구인·구직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IP	전화번호
각클라우드	http://www.gigcloud.net/	02-6406-7341
넷뱅	http://www.netbbang.com/	02-815-9090
모이자 재능마켓	http://skill.moyiza.com/	02-846-8787
앱개발자 프리랜서연합	http://www.freelancerunion.or.kr/	02-730-5005
외주나라	http://ojnara.com/	070-7767-1911
원더위즈	http://www.wonderwiz.net/	1661-2477
위드몬	http://www.withmon.com/	02-2275-8801
위시켓	http://www.wishket.com/	02-2018-0019
위티브	http://www.witive.com/	0505-901-9000
이고수로	http://egosuro.com/	1577-1548
이랜서	http://www.elancer.co.kr/	02-6008-2059
일감의달인	http://www.ilgam1.com/	02-2019-0004
잡콩	http://jobcong.com/	02-326-2085
재능마켓	http://www.jaenungmarket.com/	02-833-9990
재능인	http://www.jaenungin.co.kr/	02-3422-2799
재능풍	http://momsworld.co.kr/	042-536-3458
크몽	http://kmong.com/	1544-6254
프리누리	http://www.freenuri.co.kr/	1544-6862
프리랜서코리아	http://www.freelancerk.com/	1599-2118
프리모아	http://www.freemoa.net/	02-6380-7521
헬팡	http://www.helppang.com/	02-2275-2905

6. 프리랜서 구인·구직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IP	전화번호
리크루트	http://www.recruit.co.kr/	02-568-1911
모이자취업센터	http://job.moyiza.com/	02-0647-3214
사람인	http://www.saramin.co.kr/	02-2025-4733
서울잡코리아	http://www.seouljobkorea.com/	010-2760-5008
스카우트	http://www.scout.co.kr/	02-3482-3366
스피드잡	http://www.speedjob.kr/	02-888-6011
실버와	http://www.silverwa.com/	02-418 2432
에코잡	http://www.ecojob.re.kr/	02-2284-1191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http://www.iljarihub.or.kr/	02-369-0963
워크넷	https://www.work.go.kr/	1577-7114
월드잡	https://www.worldjob.or.kr/	1577-9997
이엔지잡	http://www.engjob.co.kr/	02-994-3693
인크루트	http://www.incruit.com/	1588-6577
일자리	http://iljari.com/	053-593-4220
잡부산시대	http://job.busansidae.com/	051-939-3300
잡서울	http://www.jobseoul.co.kr/	051-804-0683
잡아바!	https://www.jobaba.net/	031-270-9988
잡코리아	https://www.jobkorea.co.kr/	1588-9350
잡플래닛	https://www.jobplanet.co.kr/	1644-5641
잡피온닷컴	http://www.jobpion.com/	1544-6862
커리어	http://www.career.co.kr/	02-2006-9594
커밋	http://www.commeet.co.kr/	1644-1182

7.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IP	전화번호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110
잡 알리오	https://job.alio.go.kr/	-

재취업을 위한 채용지원서 작성 꿀팁



“

신중년의 경우 70~80세까지 일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일을 하면서 부족한 노후자금과 사회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요즘 실태이다.

퇴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짧은 시간 진행되는 면접을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제대로 작성되었을까? 이대로 지원해도 될까? 아직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디를 보완해야 할까? 등과 같은 고민을 재취업을 준비했던 신중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이다.

이력서와 면접은 “당신을 잘 알지 못하는 회사나 상대에 왜 내가 제일 적합한 사람인가를 알리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채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면접을 위한 첫 만남이다.

이번 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Tip을 제공하고자 한다.

”

1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잘못하면 자신의 자서전이 되기 쉽다. 오로지 자기소개 중심의 나열식 이력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선택되지도 않는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는 **회사의 요구 직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에 맞는 자신의 강점과 역량이 어떻게 부합되는지 논리를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첫째, 이력서를 연도별 경력 서술식의 과거 스타일로 작성, NO! NO!

세상은 변했다. 단순 경력 나열식 이력서는 채용하는 회사 요구 직무에 적합한 경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지루하며 차별화가 없다. 이런 이력서는 아직 변화에 동화되지 못한 느낌도 물어날 수 있다. 같은 경력과 역량을 갖춘 수많은 이력서 중 자신의 이력서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용담당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겸손은 미덕이 아니야~

신중년 세대는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고 겸손해한다. 그러나 겸손이 지나치면 이력서에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표현하고 기술하지 않으면 채용 담당자로서 어떤 분야에 강점과 전문성을 가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과장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역량과 성과를 수치로 분명하게 밝히고 자신을 당당하게 알려야 한다.**

셋째, 백화점식 나열은 금물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나열하고, 어떠한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기술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 즉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며, 가능하면 경력과 기술은 요구 직무에 맞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자신의 강점과 전문성을 집중하여 채용 직무와 수행했던 과업들이 어떻게 부합되는지 논리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정리하라.** 경력을 인사담당자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가 핵심이다.

TIP!

▶ 좋은 이력서 작성

- 5~7줄 가량 핵심 경력 중심으로 요약
- 지원분야별 자신의 핵심 경쟁력/전문성을 부각
(관련성 높은 업무성과 및 기여도를 가능한 숫자로 제시)
- 채용직무에 대한 이해 및 보유역량에 대한 부각

2·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

(1) 경력직 채용의 기준은 역량과 직무의 적합성

채용회사에 제안서를 제출하듯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최대한 표현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업무역량은 소유능력과 잠재능력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유능력에서는 수행했던 업무성과를 수량적으로 평가하여 요구 직무 기준에 자신의 업무 적합성의 일치 여부를 밝혀야 한다. **나의 역량과 전문성이 채용회사의 직무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입증해야 한다.**

잠재능력은 현재 수량적으로 능력을 표현할 수 없으나,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능력을 소유능력에 기반을 두어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성격의 장·단점, 성장 과정, 취미와 특기 등 모두 직무와 연관성 있는 내용을 엮어서 작성해야 한다. 정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스타(STAR) 기법’을 소개한다.

S(Situation, 상황) – T(Task, 과업) – A(Action, 조치/행동) – R(Result, 결과) 순으로 작성된다. 다시 이야기해보면, 발생한 상황과 그 때문에 발생한 과업, 그리고 나의 조치/행동이며, 마지막으로 (좋은) 결과 순이다. 결과의 경우, 가능한 수준에서 수치(비율, 금전 등)를 표시하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 내용도 처음에는 머리를 스치는 핵심단어를 나열하고, 재배열한 이후에 문장으로 만들면 다소 쉬워진다.

(2) 이력서는 철저하게 채용담당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쓰기

채용담당자는 비슷한 수많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애정을 다하여 검토하지 않는다. 특히 연도별 나열식 이력서와 통상적인 성장 배경, 취미와 특기 등을 기술한 자기소개서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에 많은 이력서 속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채용담당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보는 사람으로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산업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와 키워드를 사용하면 전문성을 보여줄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요구하는 훈련, 자격증이나 지원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을 눈에 띄게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라.

“현재는 잘 모르지만 배워서 하겠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은 절대 삼가야 해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데다가 대부분 회사는 경력자를 교육하기 위해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이 회사가 나를 채용할까?와 같은 의심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당신의 느낌이 그대로 나타나고, 채용담당자는 쉽게 알아채기 때문이다. 대신 반드시 취업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표현하고, 지원 분야에 맞는 자신의 주특기와 역량을 드러내야 한다. 관련 네트워크도 잘 갖추어 있어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느낌과 감정이 전달되어야 한다.

(3) 채용회사를 사전에 분명하게 확인

채용 직무에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과 경험이 어떤 것인지, 입사 후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분명히 파악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채용 회사의 비전과 목표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전에 경험해보고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준비된 구직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반드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채용 회사의 모든 것을 미리 숙지한다면 채용 이후에도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채용담당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예시

▶ 서술형 예시

1990년 K 엔지니어링 입사 후 자재 구매 업무를 약 10년 정도 수행 (지원 업무의 전문성) 하였으며, 구매 기획분야에서 전략구매(개발 전 설계단계에서 가격확정을 위한 경쟁 입찰제도 최초 도입) (성과 측면 및 기여도) 추진으로 목표가 대비 구매가를 115% 수준에서 104%로 낮추고 협력업체의 사양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수립 시행함(절감 금액을 50:50으로 공유) 또한, 업체지도 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하면서 품질 / 공정개선 / 종합효율 향상 등을 지도함 (채용직무에 대한 보유역량)

▶ 서술형 + 요약형 예시

1990년 00 은행 입사 후 약 25년간 Retail Banking Sales팀에서 영업조직 구축, 인력충원 및 관리, 신규 고객발굴, 영업기획, 마케팅 등 영업 관련 전반에 걸친 경력 보유함.

- 신규센터 부임 후 3개월간 실적 2배 향상
- Recruiting : 3개월간 3팀 50명 구축 (2007년)
- Team Building : 팀 구축 후 팀장 육성 후 팀 분할
- 카드 / 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위한 채널 발굴 및 영업기획

3. 면접 시 주의사항

면접은 면접관에게 확실히 자신을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면접의 목적은 회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성과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대면 심사이다.** 대부분의 채용 담당자는 지원자의 면접 태도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한다. 불합격자의 주요 특징은 열정 부족, 불성실, 산만함, 거짓 및 과장 등이 있었다. 면접 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과 태도는 아래와 같다.

(1) 지각은 절대 금지

지각은 채용 면접관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강조 해도 약속시간 하나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실함과 신뢰감이 떨어진다.

(2) 부적절한 복장

면접 복장 및 스타일은 첫인상을 좌우한다. 면접관은 짧은 시간에 지원자의 모든 것을 파악하므로 요란한 복장이나 격에 맞지 않은 복장이나 튀는 복장은 자칫 회사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복장 규정이 까다롭지 않은 회사라도 **기본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의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등산복 차림의 면접복장이라던가,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경우, 과한 향수나 화려한 액세서리는 산만한 느낌을 준다.

(3) 산만하고 부정적인 태도

다리를 떠는 행동, 불안하고 어수선한 산만한 행동들은 면접관이 지원자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자칫 면접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평소 습관이 있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듯한 자세와 몸짓은 면접관에게 좋은 첫인상으로 기억될 수 있다.

또한, 면접 시 전 직장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답변은 지원자가 불만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퇴사 시, 누구나 회사에 대한 불만은 느낄 수 있으나 **전 회사의 험담이 지나치면 지원자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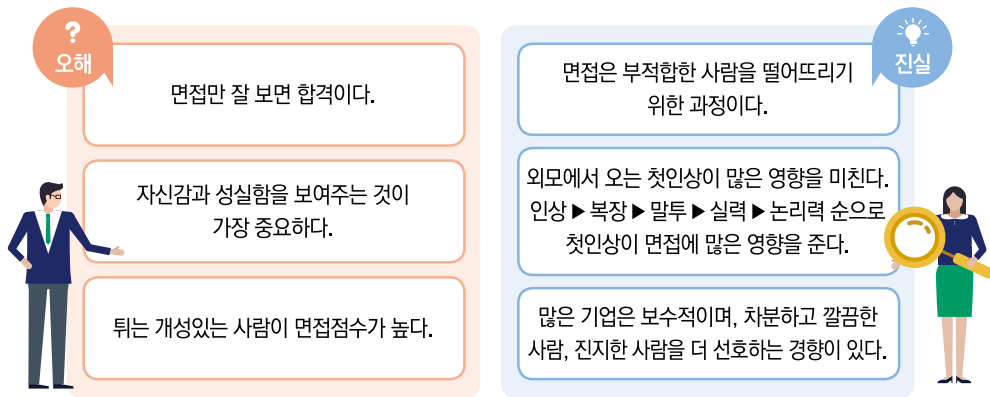
(4) 장황하고 설교식 말

면접관 중 일부는 나의 말에 집중해서 경청하지 않는 예도 있다. 장황하거나 설교하듯 말하면 면접관은 금방 지루하게 느끼며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예/아니오만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매번 질문마다 장황하게 설교를 늘어놓는 것도 좋지 않다.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스며든 습관과 자신의 역량을 포장하기 위한 장황한 설명은 신중년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핵심을 답하는 사전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핵심 역량을 면접관의 질문의도에 맞게 대답하고 겸손함과 자신감이 담긴 간결한 말투로 자신의 채용 적합성을 부각**해야 한다.

(5) 면접관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은 피하라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마치 면접을 진행하듯 다양한 질문을 퍼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아마도 자신이 하게 될 수행업무와 회사에 대하여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많은 탓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준비 없이 면접에 임하는 듯한 이미지만 심어줄 뿐이다. **사전에 충분히 채용 직무에 관한 조사와 회사에 대한 비전을 숙지**하고 면접에 임해야 한다.

(6) 면접의 오해와 진실



4· 면접 노하우

(1) 철저한 사전 준비로 나의 적합성을 보여준다.

면접 전에 지원한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최소한 회사의 주요 생산품, 시장 상황, 경쟁 제품, 주가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회사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보유 기술·지식 수준이나 직무 능력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면접관은 준비된 지원자를 선택한다.

대부분의 면접에서 지원자는 짧은 시간에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말하도록 요청받는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직무 적합성을 연결하여 발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나와 회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 제안을 하여 자신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면접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 대답을 사전에 준비하여 연습해 보는 것이 당황하지 않고 나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길이다. 대부분 면접에서 예상되는 질문은 “①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말해 보세요? ② 자신의 전문성이 우리 기업에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③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본인의 강점을 말씀해 보세요? ④ 마지막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말씀을 해 주세요?” 등의 뻔한 질문일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면접에 임하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어 자신감 전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

(2) 질문에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한다.

답변은 결론부터 30초 이내로 요약하여 말하고, 첫째 (우선), 둘째 (또한), 셋째 (마지막으로)와 같은 형식을 갖춰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 보일 수 있다. **답변은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숫자와 근거를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대충 넘기다가 실수를 범하기보다는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한 다음, 개인 생각임을 전제한 후 논리를 갖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때에 따라서는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제 수행 여부 및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속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경험의 실제성과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경험/사례가 발생한 시각, 장소, 사람 등의 고유명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필요하면 해당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붙여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

(3)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하다.

면접자가 면접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앉은 자세, 표정, 미소, 눈 맞춤, 몸짓 등이 면접의 결과를 결정짓는다. 삐딱하게 앉거나 다리를 벌리는 등의 자세는 성실하지 못하고 거만하게 보일 수 있다. 눈을 맞추지 못하고 시선이 불안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조직원 간에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 몸짓이 화려하면 산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너무 긴장하고 있으면 면접관도 긴장하여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이처럼 **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적 요소만큼이나 비중이 크며, 비언어적 요소들은 면접자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더 파악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면접 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비언어적 소통을 살펴보면

- ① 몸짓 - **자연스럽고 힘 있는 몸짓**은 신뢰감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 ② 자세 - **바른 자세**는 안정적이고 반듯한 이미지를 심어준다.
- ③ 눈 맞춤 - **시선의 맞춤**을 통해 호감, 신뢰, 만족감을 전달할 수 있다.
- ④ 꼬덕이기 - **동의와 긍정, 경청의 자세**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⑤ 그 외 **미소** 등을 통해 친밀감과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다.

(4)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도식적인 고정관념을 불식시켜야 한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면접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에 지속적인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늘 자기 계발과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 세대 융합을 위해 청년과 교류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킹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다급하다거나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옮겨갈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면접 TIP!

- **스토리 있는 차별화된 자기소개를 준비하기**(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은 답변이다)
 - 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 ② 당신은 무엇을 잘합니까?
 - ③ 당신은 우리 회사에 진짜 취업하고 싶습니까?
- **말하기 전에 듣고 절대 방어적이거나 논쟁은 금물**
- **가정법 질문에 대비하기**
- **열정을 보여주기(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활용)**

1분 자기소개 준비

1. 자기소개를 시키는 이유 :

자기소개 1분 발표는 면접관이 지원자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준비성과 차별성,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면접관의 어색함을 탈피하고 질문의 맥을 잡기 위함이다.

2. 2W 1H로 준비하라 :

2W(What과 Why) - 회사 직무와 입사 이유(지원 직무에 대한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인지, 입사 이후 어떤 부분에 이바지하고 싶은지 제시)

1H(How) - 사업 경험에서 얻은 사업적 통찰을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

반드시 첫출발에서 면접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며, 자기소개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질문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 사례

면접관님!

항공학적으로 꿀벌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꿀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기에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꿀벌 같은 지원자 ○○○입니다. 팀원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차별화된 전략에 열정을 더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회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꿀벌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김용원의 불꽃 취업 TV 인용)

1. (현재 : 지원직무와 핵심역량<지식, 기술, 태도 등> 제시) “영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역량은 ‘목표 달성 의지, 고객 신뢰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과거 : 취업준비 한 내용과 경험)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 때부터 주간 단위로 활동 목표를 세우고 달성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왔습니다. 1990년 ○○○입사 후 영업업무를 약 20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지난해 경쟁을 통해 ○○○기관 정보화 사업 500억과 XXX회사에 IT 운영사업 300억을 수주하여 회사 매출에 약 20%의 실적달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공로상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합리적인 혁신 절차를 수립 실행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목표대비 약 10%의 추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는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3. (미래 : 10년 후의 미래 의지와 이를 위한 노력) 10년 후에는 적어도 ‘영업의 달인’이라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의 중남미진출계획에 맞추어 스페인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의 달인이 되어 회사와 함께 열정과 소통을 통해 성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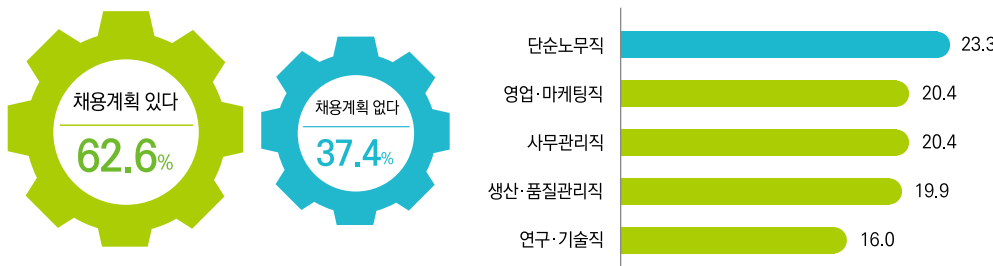


5· 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신중년 채용에 대해 알아보자.

(1) 직종별 채용계획

5인 이상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2019년에 중장년 채용계획이 있었으며, 이는 2018년 조사 결과(64.2%)와 비교했을 때 소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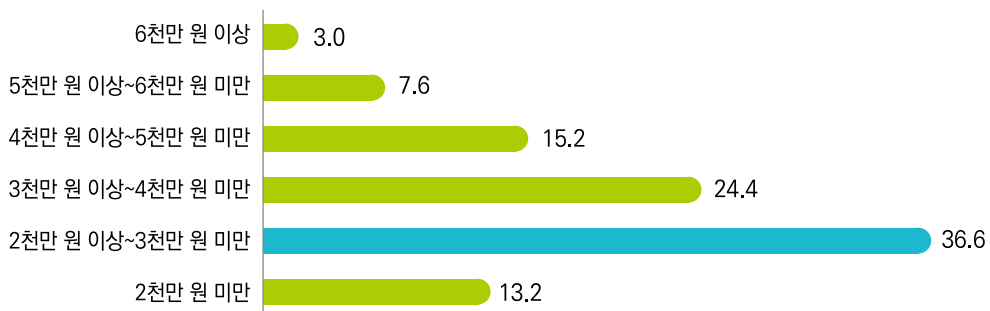
직종별 채용계획을 보면 '단순노무직'이 23.3%로 가장 수요가 많았고 '영업·마케팅'과 '사무관리직'이 각각 20.4%, '생산·품질관리직'이 19.9% 순으로 많다.



(2) 중장년 지급예정 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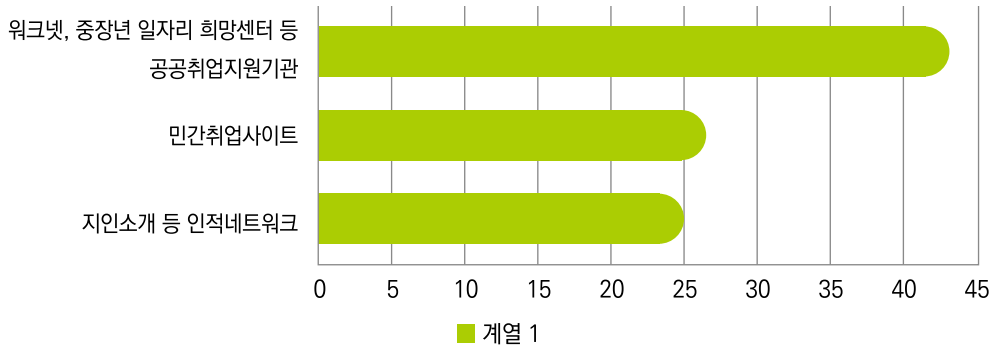
이들 기업이 중장년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는 월 276만 원으로 2018년 조사 결과(월 274만 원)와 거의 동등하였으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302만 원(2018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91.3% 수준에 해당한다.

지급 예정 연봉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이 36.6%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뒤이어 ▲3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24.4%), ▲4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3) 중장년 채용 경로

‘중장년 채용 시 어떤 경로를 활용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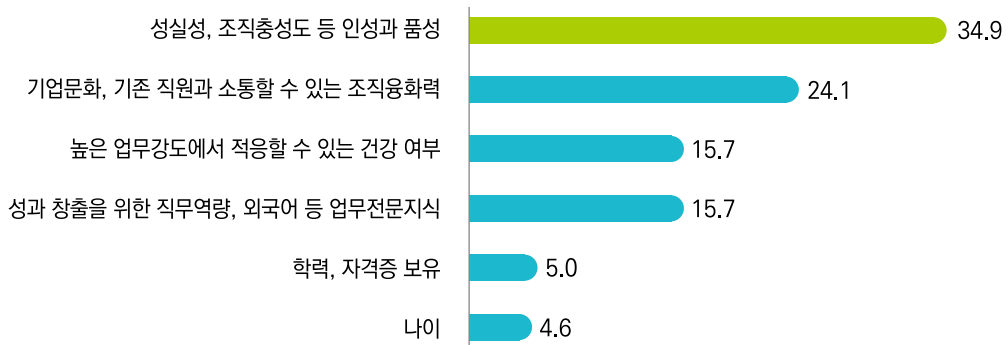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공취업지원기관 활용이 5.5% 늘어난 반면, 지인소개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2.4% 증가에 그쳐 인맥 활용 채용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공개채용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4) 중장년 채용 시 고려사항

중장년 채용 시 우선 고려사항은 ‘성실성·조직 충성도 등 인성’(34.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업문화, 기존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융화력’(24.1%), ‘건강’(15.7%), ‘직무역량, 업무 전문지식’(15.7%) 순으로 많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 구직자들이 구직 애로사항으로 호소하는 ‘나이’를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채용기업과 중장년 구직자가 느끼는 ‘나이’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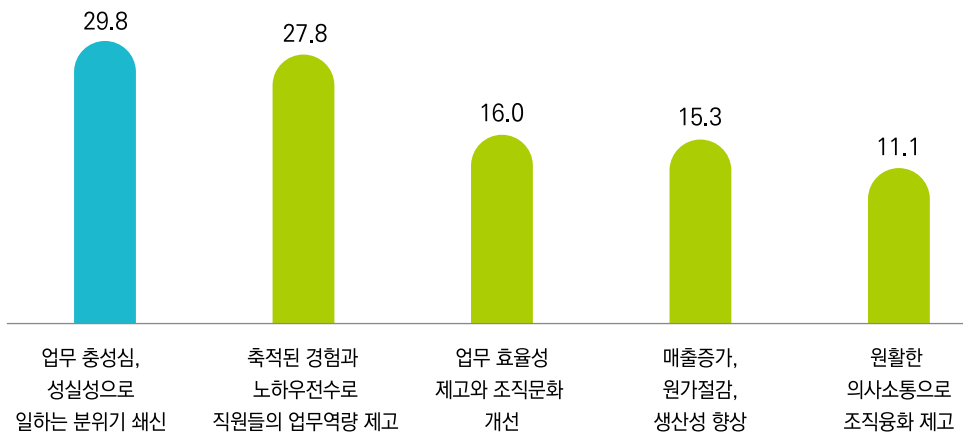
(5) 중장년 채용이 어려운 이유¹¹⁾

‘중장년 채용이 신입 채용보다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38.9%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26.9%)는 답변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중장년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희망임금이 높아 임금협상이 어려워서’가 23.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회사 문화, 기존 직원과 융화가 어려워 보여서’(22.7%), ‘채용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18.0%) 순으로 답하였다.

(6) 중장년 채용기업이 말하는 장점

한편,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는 기업 10곳 중 7곳(69.9%)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중장년이 이바지한 분야는 ‘업무 충성심, 성실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수’(27.8%), ‘업무 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16.0%), ‘매출 증가·원가절감·생산성 향상’(15.3%)이 뒤를 잇고 있다.



11) 본 내용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5인 이상 중소기업 238社를 대상으로 2019. 4. 16 ~ 28일까지 조사한 「2019년 중소·중견기업의 중장년 채용계획 및 채용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한 내용임

신중년 재취업 지원 정책



“

고용노동부와 같은 중앙정부와 함께 각 지방정부에서는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재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중년이 재취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나만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생애경력설계, 직업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 이 장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중년을 위해 마련한 재취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www.work.go.kr/senior)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전직·재취업 등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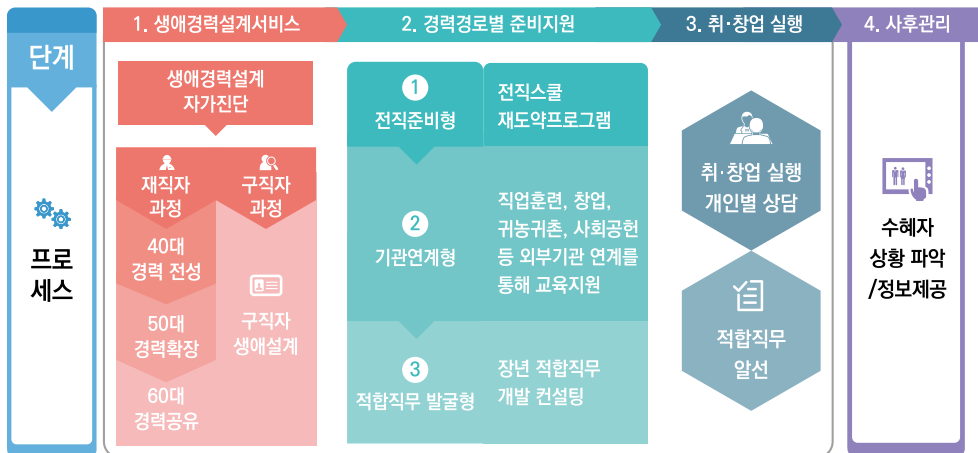
“퇴직 후 맞이한 세상은 퇴직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업협력 중점 교수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자 한○○(57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중장년의 인생 3모작을 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1)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시작으로 경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



(2)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길어진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인생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령별, 상황별(재직/구직)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해보세요.

| 표 25 | 생애경력설계 교육프로그램

40대를 위한 프로그램 : 40+ 경력 전성시대

40대 경력 특성	경력 초기를 재평가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정하는 단계
목표	생애경력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시장의 현재 위치 점검 및 현 경력 유지, 능력 신장 방법을 학습하여 주도적 경력관리 지원
교육구성	경력관리 / 변화관리 / 평판 및 네트워크 관리 / 성과관리

50대를 위한 프로그램 : 50+ 경력확장시대

50대 경력 특성	경력관리 상 문제에 직면해 경력경로에 대한 점검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야 하는 단계
목표	삶의 6대 영역 균형 진단, 강점 역량 도출, 경력 설계 방법을 학습해 인생 3모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교육구성	나의 생애 조망 / 직업역량도출 / 경력 대안개발 / 평생경력계획 수립

60대를 위한 프로그램 : 60+ 경력공유시대

60대 경력 특성	조직에서의 퇴직을 준비하는 시기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단계
목표	일과 삶의 균형감을 찾고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과 관점의 전환을 통해 긍정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 및 실행 지원
교육구성	숨 고르기 / 발견하기 / 균형 잡기 / 뛰어들기

구직자 프로그램

경력 단계 특성	조직에서 퇴직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애경력설계가 필요한 시기이나 경험했던 직무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 및 접근 방법 부재
목표	그동안 경력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로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
교육구성	인생 들여다보기 / 인생 되돌아보기 / 제2인생 계획하기 / 제2인생 실행하기

가. 서비스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 (온라인신청) 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lifeplan)을 통해 신청
- (유선 및 방문신청) 지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문의

나.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서비스 활용하기

자신의 경력특성 및 준비수준에 대해 점검하고 싶다면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소요시간 : 5분 이내)

- (이용방법) 장년워크넷 생애경력설계서비스(www.work.go.kr/senior/lifeplan) 또는 모바일을 통해 이용 가능

- 전직·재취업서비스

퇴직 전·후 시기에 퇴직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전담 컨설턴트와의 1:1 상담으로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지원

(3) 전직·재취업 교육프로그램

| 표 26 | 전직·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전직 전직스쿨 : 퇴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전직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구분	내용
변화관리	동기부여, 회복 탄력성, 관계 및 소통, 시간관리
자기탐색	MBTI, STRONG, 교류분석, 역량분석, 직업가치관, 중장년 특성
목표설정	경력목표 설정, 버킷리스트, 직업카드
구직기술	이력서 작성 및 실습, 면접전략 및 실습, 이미지 메이킹, 구직정보 탐색, 네트워킹 활용, 취업사례 분석
직업세계	고용동향, 다양한 일자리 알아보기 등
플러스	고용복지서비스, 재무관리, 스트레스관리, 건강관리, 직업체험

재취업 재도약프로그램 : 구직기술 습득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구분	내용
숨 고르기	이전의 삶 되돌아보고, 퇴직 후 변화관리와 실직 충격 완화하기
출발 선서기	직업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아보고 구직계획 수립
도움닫기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직 전략 수립
발 구르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면접 스킬 습득
도약하기	취업 동아리 구성 및 활동 계획 공유

❖ 서비스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 (온라인신청) 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을 통해 신청
- (유선 및 방문신청) 지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문의
- 신중년 고용서비스 관련 정보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신중년 전성시대 블로그(blog.naver.com/working60)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블로그(blog.naver.com/newjoborkr)

(4) 전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31개소) 위치 및 연락처 알아보기

지역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서울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7층	02-6021-1100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1번길 29, 3층	02-3488-1900
	노사발전재단 금융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층	02-6021-1334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1, 17층	02-6336-0614
	(사)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서울고용복지+센터 2층	02-2004-7083
인천	노사발전재단 인천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5층	032-260-3800
경기	노사발전재단 경기센터	경기도 수원 권선구 권광로 149, 3층	031-8014-8500
	고양상공회의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1 라페스타 A동, 4층	031-901-9197
	안산상공회의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A동 3층	031-410-3031
	파주상공회의소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328 MH타워 파주고용복지+센터 8층	031-8071-4245
	평택상공회의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194 장당프라자, 평택고용복지+센터 2층	031-646-1043
충청	노사발전재단 충청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한국교직원 공제회관 15층	042-489-3820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6층	042-253-7051~3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5층	041-559-5764~7
	충북경영자총협회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청주산업단지비즈니스센터 5층	043-221-1397
영남	노사발전재단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81, 10~11층	051-860-1300
	노사발전재단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7층	053-550-3000
	노사발전재단 울산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44, 2층 울산근로자 종합복지회관	052-289-8974
	경남경영자총협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4층	055-266-8317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경림빌딩 8층	054-727-2020

지역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영남	경북경영자총협회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복지+센터 3층	054-461-5520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900, 양정타임스퀘어빌딩 12층	051-647-0452~3,7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60, 3층	052-277-9491
	(사)한국커리어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 5길 6 우형빌딩 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055-730-1950
호남	노사발전재단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4층	062-531-5712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5층	063-222-1840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센터 1층	062-609-8963
	목포상공회의소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5 목포고용복지+센터 2층	061-280-0571~4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라남도 순천시 우석로 7,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과 2층	061-741-0096
강원	노사발전재단 강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28, 2층	033-735-0971
제주	노사발전재단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064-710-4501

2· 고령자인재은행

(1) 만 50세 이상의 장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고령자인재은행은 민간의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인단체가 지정되어 취업알선 및 재취업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2)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50시간 이상)

(3) 고령자인재은행(44개소) 연락처 알아보기

- 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 ▶ 장년지원정책 ▶ 고령자인재은행

3. 한국폴리텍대학

(1) 만 45세 이상의 중장년에 특화된 맞춤형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 과정별로 참여 연령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장년이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자격증 취득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가. 신중년특화과정

취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 대상 훈련과정

+ 훈련과정 : 시니어헬스케어, CAM&3D프린팅, CNC선반, 공조냉동, 특수용접, 패션제품 생산, 자동차 복원, 자동차 튜닝엔지니어, 전기시스템제어, 전기설비기술 등

* 개설된 과정은 지역캠퍼스 별로 상이함

나. 중장년 재취업과정

만 45~65세 이하 실업자, 전직예정자, 영세자영업자 대상 훈련과정

+ 훈련과정 : 전기설비시공관리, 급식조리마스터, 냉난방시스템, 전기내선공사, 지게차 운전 등 50여 개 과정

* 개설된 과정은 지역캠퍼스 별로 상이함

- (훈련수당) 매월 훈련수당 20만 원, 교통비 5만 원 지급(단, 소득유무와 훈련횟수를 고려하여 지급)
- (기타) 도서관, 경력개발센터, 체육시설 등 제공

(3)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 (온라인신청) 한국폴리텍대학(www.kopo.ac.kr) 접속 후 입학안내 인터넷 원서접수로 신청
- (방문접수) 캠퍼스별 지정원서 접수처 방문하여 접수

(4) 문의처

- (신중년특화과정) ☎ 032-650-6646
- (중장년재취업과정) ☎ 032-650-6663

4· 사회공헌활동 지원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한 중장년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 (참여자) 만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2)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사회공헌활동 실적에 따라 식비, 교통비, 참여수당 지급
* (활동수당) 시간당 2천원, (식비·교통비) 일 8천원 등 지급(식비 1일 4시간 활동 시 지급)

(3)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 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 ▶ 사회공헌활동 지원에서 관할 자치단체 및 운영 기관 연락처 확인 및 문의

5·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감소된 장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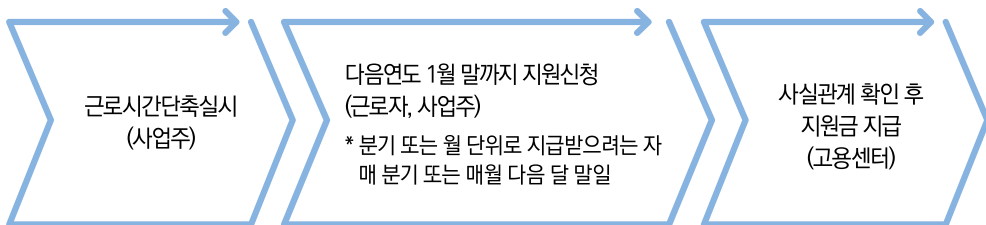
(1) 사업내용을 알아볼까요?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요건)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된 경우
* 사업주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 교육 및 직업훈련 참가, 근로자본인의 질병·부상 및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2)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내용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 지원 * 임금차액 산정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기준임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 원 간접노무비 지원

(3) 지원절차가 궁금한가요?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6·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1)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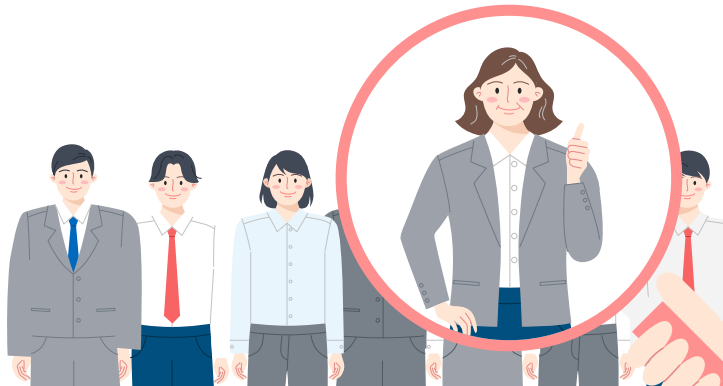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채용요건> 무기계약 체결
② <근로조건> 4대 사회보험 제공
③ <임금>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
④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지급)

(2) 지원 절차가 궁금하다면?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기업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창출 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3)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7· 지역별 중장년 일자리 지원 기관

서울

• **지원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50plus.or.kr)

• **지원내용**

- (일자리) 중장년 채용정보 및 보람 일자리 정보 제공

+ 보람 일자리?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제공하는
사회공헌형의 일자리

+ 우리동네돌봄단,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마을기록자 등 31개 보람 일자리사업 운영

- (교육 및 상담) 인생재설계, 커리어모색 교육 및 상담제공

- (기타) 동년배 모임활동(커뮤니티) 지원, 복합문화공간 지원 등

• **문의처** : ☎ 02-460-5050

부산

• **지원기관**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www.busan50plus.or.kr)

• **지원내용**

- (일자리) 중장년 채용정보 및 사회적 일자리정보 제공

- (교육 및 상담) 직종교육·정보화·생애재설계 교육 등

- (기타) 동년배 모임활동(커뮤니티) 지원

• **문의처** : ☎ 051-864-6300

대구

• **지원기관** : 대구달서시니어클럽(www.dgcsc.or.kr)_달서구 전담

- 노인사회활동지원 및 시니어 재취업 직업교육 등 제공

• **문의처** : ☎ 053-626-8310

인천

- **지원기관**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www.inlife.or.kr)
- **지원내용**
 - (일자리) 중장년 채용정보 제공
 - (교육 및 상담) 인생재설계 교육, 돌봄종사자 직무 교육 등 제공
- **문의처** : ☎ 032-715-5491

광주

- **지원기관**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인생다모작팀)(www.gie.kr)
-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정보 제공
- (교육 및 상담) 커리어개발 및 사회참여교육 등 지원
- **문의처** : ☎ 062-600-5233

대전

- **지원기관** :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www.daejeonsenior.or.kr)
- **지원내용**
 - (일자리) 중장년 채용정보 및 사회적 일자리정보 제공
 - (교육 및 상담) 인생재설계, 커리어모색 교육 및 상담제공
 - (기타) 동년배 모임활동(커뮤니티) 지원
- **문의처** : ☎ 042-331-5064

울산

- **지원기관** : 내일설계지원센터(www.usnoinjob.org)
- **지원내용**
 - (일자리) 중장년 채용정보 및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 (교육 및 상담) 내일설계 상담, 노후설계교육 및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운영
- **문의처** : ☎ 052-290-1665 또는 1670

경기

- **지원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www.gif.or.kr)
- **지원내용**
 - (일자리) 중장년 채용정보 제공
 - (교육 및 상담)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운영

※ 경기도 내 시별로 다양한 사업 운영되고 있음
- **문의처** : ☎ 031-270-9600

강원

-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 사회공헌활동 및 숲 해설, 육아컨설팅 등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
- **문의처** : ☎ 033-256-8829

충북

- **정보처** : 충청북도 여성·복지 홈페이지(www.chungbuk.go.kr/welfare)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정보 제공
- **문의처** : ☎ 043-220-3915

충남

- **지원기관**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www.cntcfol.co.kr)
- **지원내용**
 -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정보 제공 및 사회공헌활동 정보
 - (교육 및 상담) 인생 재설계교육 및 전문강사, 귀농귀촌 교육 등
- **문의처** : ☎ 041-635-1077

전북

- **정보처** :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1577-0365.or.kr)
 - 중장년 일자리정보 제공
- **문의처** : ☎ 1577-0365

전남

- **정보처** :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홈페이지(job.jeonnam.go.kr)
- 중장년 일자리정보 및 중장년 직업훈련정보 제공
- **문의처** : ☎ 061-287-1142~3

경북

- **정보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gyeongbuk.work.go.kr)
- 중장년 일자리정보 제공
- **문의처** : ☎ 1544-8819

경남

- **지원기관** :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blog.naver.com/life4060)
- **지원내용**
-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일자리정보 제공
- (교육 및 상담) 생애재설계 및 재취업 교육, 문화강좌 프로그램 등 제공
- **문의처** : ☎ 055-286-8316

제주

- **지원기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jiles.or.kr/index.htm)
-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정보 제공
- (교육 및 상담) 생애재설계 및 활동모색 교육 지원 등
- **문의처** : ☎ 064-744-9852



참고문헌

- ① 100세누리 시니어사회활동포털(2019).
<https://www.100senuri.go.kr:4431/main/main.do>.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② Sharf, R. S. (2014).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6th ed.). 김진숙·김정미·서영숙(옮김). 2016. 진로상담, 박학사 338p.
- ③ 경제배움 e(2019). <http://www.econedu.go.kr/mec/pop/retire.do>. 은퇴준비하기.
기획재정부.
- ④ 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
- ⑤ 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⑥ 관계부처합동(2017.8.9.).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발표자료.
- ⑦ 관계부처합동(2018.12.26.).
- ⑧ 김형석(2019), [백년을 살아보니].
- ⑨ 데이비드 호킨스(2018), [놓아버림] 내안의 위대함을 되찾는 행복의 기술.
- ⑩ 롤랜드버거(ROLSAND BERGER) 김정희, 조원영 옮김 (2017) [4차 산업혁명].
- ⑪ 매일경제(2019.5.20.).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5/329336/>.
- ⑫ 미래에셋은퇴연구소(2019). 5060일자리 노마드族이 온다.
5060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경로분석 보고서.
- ⑬ 박영숙(2015), [메이커의 시대] 유엔미래보고서 미래 일자리.
- ⑭ 박영숙, 제롬 글렌(2017), [일자리 혁명 2030].
- ⑮ 박찬홍, 배종민, 우광식, 정연돈(2017), [사람중심으로 만들어 가야할 4차 산업혁명].
- ⑯ 서울시 50 플러스 포털(2019). <https://50plus.or.kr/>. 서울특별시.
- 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
- ⑱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http://www.15445077.net>.
- ⑲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sehub.net>.
- ⑳ 송호근/이와우(2013), 「그들은 소래 내 울지 않는다」.

- ④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 ④ 워크넷(2019). <https://www.work.go.kr/>. 고용노동부.
- ④ 위키백과(마을기업).
- ④ 이상수 편저(2019)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
- ④ 이상수의 경제톡(2018) 시리즈 1~18, 시민의 소리(2018), 이상수.
- ④ 이은철(2018), [내일이 더 행복한 노후준비].
- ④ 장년워크넷(2019). <https://www.work.go.kr/senior/main/main.do>. 고용노동부.
- ④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65>.
- ④ 존 크롬볼츠, 라이언 바비노(2013). Fail Fast, Fail Often. 이현정(번역).
2014. 천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 ④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블로그(2019).
<https://blog.naver.com/newjoborkr/221465802957>. 고령자인재은행. 노사발전재단.
- ④ 채용계획 기사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5/329336/>.
- ④ 최윤정 외 8인(2014). 진로상담과 연구를 위한 진로상담 척도 핸드북. 학지사.
- ④ 최진기(2018), [한권으로 정리하는 4차산업혁명].
- ④ 통계청(2017). 2017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 ④ 한국고용정보원(2017), [4차 산업혁 미래 일자리 전망].
- ④ 한국고용정보원(2017), [이제는 신중년으로] 신중년 경력개발 상담자를 위한 역량강화서.
- ④ 한국고용정보원(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찾기].
청소년, 교사, 학부모를 위한 직업·진로 가이드 북.
- ④ 한국고용정보원(2019), [한국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2017), [한국직업전망].
- ④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9). <https://kordi.or.kr/main.do>.
- ④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④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2017년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 ④ 협동조합 <http://www.coop.go.kr/COOP/>.

보고서 집필 및 도움 주신 분들

집필진

- 최기성 ...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 최영순 ...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 김종진 ...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 이민주 ...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도움 주신 분들

- 강도연(노무법인 청춘) ... 50~60세대 재취업 시 주의할 사항
- 권혁채(㈜휴먼리소스코리아) ... 4차 산업혁명, 신중년에게도 기회
- 김갑용(㈜이타에프앤씨) ... 창업
- 김슬기(서울시50플러스재단) ... 신중년 세대의 기술창업 가이드 라인
- 김진호((사)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 ... 사회공헌일자리
- 신창용(양코르브라보노(협)) ... 신중년 면접, 이력서 작성
- 오승석(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담·진로개발센터) ... 진로컨설팅 지원기관 소개
- 이미자(한국전직지원협회) ... 신중년 진로가이드(변화관리)
- 이현숙(스텝스(주)) ... 소중한 나의 일 경험, 인생 3모작에서 꽃피우다
- 임희정(노사발전재단) ... 신중년을 위한 지원 및 정책
- 조기훈(꿈세상설계협동조합) ... 협동조합 마을기업
- 조한수((사)사람과 세상 사회적경제창업센터) ... 사회적기업
- 표성일(라이프앤커리어디자인스쿨) ...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새로운 길을 만들다

한눈에 보는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

인 쇄 2019년 12월 27일

발 행 2019년 12월 27일

발 행 인 한국고용정보원

발 행 처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두성리, 한국고용정보원)
T. 1577-7114 www.keis.or.kr

디자인·인쇄 (사)아름다운사람들 복지회
T. 02-6948-9650

저작권법에 의해 허락 없이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두성리, 한국고용정보원)
TEL : 1577-7114(유선전화)

